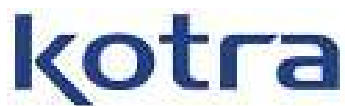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폴란드

정보수정일자: 2009. 12. 31

작성처: 바르샤바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1
- 정치사회동향 /2
- 한국과의 주요이슈 /5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6
- 주요 산업 동향 /8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1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13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4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16
 - 대한수입규제동향 /17
 - 관세제도 /18
 - 주요인증제도 /19
 - 지적재산권 /23
 - 통관운송 /24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29
- 외국기업 투자동향 /30
- 우리기업 투자동향 /33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35
- 진출형태별 절차 /39
- 투자입지여건 /43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46
- 조세제도 /51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55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57
- 물가정보 /58
- 바이어발굴 /59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60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64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66
- 이주정착 가이드 /67
- 출장가이드 /71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98
- 유관기관 웹사이트 /99

Poland



1992 MAGELLAN Geographix/SM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명	폴란드(The Republic of Poland)
위치	중부 유럽
면적	312,685km ² (한반도의 1.4배)
기후	대륙성 기후(동부), 해양성 기후(서부) 연평균 기온 7~10℃
수도	바르샤바(Warszawa; Warsaw)
인구	3,813만 명(2008년)
주요 도시	Warszawa(170만 명), Lodz(82만 명), Krakow(74만 명), Wroclaw(64만 명), Poznan(58만 명) 등
민족	폴란드인(98%), 기타 독일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 등
언어	폴란드어(슬라브어 계통)
종교	가톨릭(95%), 신교, 러시아정교 등 기타(5%)
건국(독립)일	1918.11.11(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3국 분할 종료)
정부 형태	의회공화제(PARLIAMENTARY REPUBLIC)
국가 원수	대통령: 레흐 카친스키(Lech Kaczynski) 취임일: 2005.12.23
	총리: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취임일: 2007.11.23

자료: 폴란드 통계청 등

나. 경제 지표

GDP	US\$ 5,281억(명목GDP, 2008년)
실질 경제 성장률	4.8%(2008년), 6.7%(2007년)
1인당 GDP	US\$ 17,699(2008년, EIU)
실업률	9.5%(2008년)
물가 상승률	4.2%(2008년)
화폐 단위	Zloty(주워티, 약자는 zł 또는 PLN)
환율	연평균 환율(2008): EUR1=PLN3.5166, USD1=PLN2.4092 최근 월평균 환율(2009년 1월): EUR1=PLN4.2181, USD1=PLN3.1717
외채	US\$ 2,089억(2008년)
외환보유고	US\$ 621억(2008년)
산업 구조	농림수산 4.5%, 공업 24.52%(광업 2.22/제조업 18.94/유틸리티 3.35), 건설업 7.32%, 서비스업 56.6%(무역 18.48/ 부동산·임대 13.46/ 수송 7.02/ 금융 5.15 등)(2007년)
교역 규모	US\$ 1695억(수출), US\$ 2,060억(수입)(2008년)
교역품	수출: 승용차, 자동차 부품, 내연기관, 의자/가구, TV, 전선류, 선박
	수입: 원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방송/TV 부품, 컴퓨터/주변기기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중앙은행(NBP) 등

다. 한-폴란드 관계

체결 협정	체육 협력 의정서(협정일 89.5/발효일-) 투자 보장 협정(89.11/90.2.2) 무역 협정(89.11/90.2.2), 항공 협정(91.10/92.4.3) 이중과세 방지 협정(92.1/92.2.21) EDCF차관 공여 각서 교환(93.2.11) 문화 협정(93.6/94.10.3), 과학 기술 협력 협정(93.6/94.10.3) 비자 면제 협정(93.11/94.10.3) 표준화 협력 양해 각서(98.9/98.9) 경제 협력 협정(04.12.3), 관광 협정(04.12.3), 청소년 체육 교류 협정(04.12.3)
교역 규모	우리나라 수출: US\$ 41억1,676만(2008), US\$ 25억877만(2007) 우리나라 수입: US\$ 3억710만(2008), US\$ 3억121만(2007) * 우리나라는 폴란드의 9대 수입국(2008)
교역품	폴란드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2008년) 1. 광학기기부품 2. 컬러TV 3.자동차 부품 4.평판디스플레이 5.무선전화기 6. 승용차 7. 모니터 8. 전구 9. 아연도강판 10.집적회로 반도체 대 폴란드 우리나라 10대 수입 품목(2008년) 1. 자동차부품 2. 전동축맞기어 3.가축육류 4.주철 5. 동괴및스크랩 6.기타 타일및도자기제품 7.운반하역기계 8.기타기계류 9. 식물제제의류 10.원동기
투자 교류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투자: US\$ 11억 6천만 불(119건) (2008년) 폴란드의 대 한국 투자: US\$ 32만 9,000(1건, 2006년)
교민	시민권 5명, 영주권 11명, 일반 체류자 983명(2008년)

자료: GUS, KOTIS, 한국수출입은행, 주폴란드 한국대사관 등

2. 정치 사회 동향

가. 정치 동향

1) 폴란드의 정치 형태

폴란드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가 가미된 내각책임제를 이루고 있다. 대통령은 하원 다수당과 협의하여 총리를 지명하며, 총리 지명자가 내각을 구성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원이 인준한다. 총리는 하원에만 책임을 지며, 대통령은 총리 해임권이 없다. 의회는 임기 4년의 양원제이며 최근 2007.10월 총선을 실시했다.

2) 최근 정치 동향

2009년 들어 정치적 이슈는 경제위기 대처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옮겨가게 된다.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이슈로는 1) 경제성장동력 확보, 2) EURO2012의 성공적 개최, 3) EURO화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는 폴란드의 EURO화 도입으로, 환율 안정 등의 이유로 EURO화 조기도입을 적극 지지하는 투스크 총리와 서민 물가상승을 염려하여 EURO화 도입을 반대하는 카친스키 대통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URO화 도입을 위해서는 통화를 규정하고 있는 폴란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나 카친스키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정치 및 외교분야 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투스크 총리와 카친스키 대통령은 올해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스크 총리가 있는 집권여당(시민연단)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지 못해 제1야당(농민당)과의 연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반수를 넘지 못해 제2야당인 민주좌파연합과의 세력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3) 과거 주요 정치 동향

2005년 총선과 대선을 치른 결과 과거 공산주의 시대에 뿌리를 두었던 정치 세력이 모두 몰락하고 새로운 형태의 좌·우파 정치 세력들이 등장했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짙은 우파 PiS(법과정의당)와 자유주의 성향의 PO(시민연단)가 하원 내 1, 2당을 차지한 것이다. 또한 과격, 인기성 정책을 내세우는 포퓰리스트(populist) 정당인 SO(자주방위당)와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LPR(폴란드 가족리그)도 부상했다.

1당을 차지한 법과정의당은 하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여타 정당과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후 폴란드 정국은 정당 간의 이합 집산에 따른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 2월 법과정의당 소수 정부는 하원 과반수 확보를 위해 자주방위당(populist 좌파) 및 폴란드 가족리그(극우파)와 안정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단순한 안정 협약만으로는 안정된 정국 운영이 어려워지자 법과정의당은 2006년 5월 자주 방위당 및 폴란드 가족리그와 연립 정부를 구성하여 과반수 이상(245석)을 확보했다. 연정 수립 후 자주방위당과 폴란드 가족 리그의 총재가 부총리로 입각하자 정치 배경이 약한 마르친키에비츠(Marcinkiewicz) 총리의 정부 장악력이 떨어졌고, 이에 가을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2006년 7월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 법과정의당 총재(현 대통령의 쌍둥이 형)가 총리로서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한편, 2007년도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자주방위당과 법과정의당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2006년 9월 카친스키 총리는 자주방위당과의 연정 종단을 결정하고 PSL(농민당) 등 다른 당과 교섭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10월 들어 자주방위당과 연정을 재구성하였다.

2006년 11월 집권 1년에 대한 중간 평가로서 의미를 가지는 지자체 선거가 열렸으며, 그 결과 제1 야당인 시민 연단이 수도 바르샤바를 비롯해서 주요 도시와 주 의회에서 승리했고, 법과정의당은 2차 및 기초지자체 의회에서 승리했다. 반면, 연정 파트너인 자주방위당과 폴란드 가족리그는 이 선거에서 크게 몰락함에 따라 연정 내에서 법과정의당의 입지가 한결 강화되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 8월 카친스키 대통령(Lech Kaczynski)이 연립 정부의 파트너 정당 소속 장관 4명 전원을 이들 정당과 무관한 인사들로 교체함으로써 사실상 연립 정부가 와해되었고, 9월 초 하원이 자체 해산안을 통과시켜 10월 21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조기 총선 결과 여당인 법과정의당이 패하고(166석),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경제적 기적’을 공약으로 내세운 우파 계열의 시민 연단이 승리(209석) 했다. 그 외에도 좌파 민주당(53석), 농민당(31석)이 원내 진출하여 제6대 하원을 구성하였다.

대통령은 선거에서 승리한 시민 연단의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총재를 총리로 지명하였고, 투스크 총리는 농민당과 손을 잡아 11월 16일 새 연립 정부가 출범했다. 투스크 총리는 11월 23일 하원 정책 발표를 통해 신뢰 회복을 기반으로 빠른 경제 발전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을 신정부의 최대 과제로 강조했다. 신임 총리의 정책 발표 중 경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년 내 국가 예산의 균형을 도모: 2008년 재정 적자 축소
- 조세와 각종 수수료 감축
- 기업가 정신 진흥을 위한 시스템 변화: 기업 설립 간소화 등
- 민영화 가속화
- EU 기금 지출에서 지방 당국에 더 많은 권한 이양
- 농업 정책에서 EU와의 협력 강화
- 고속도로 등 교통/수송 인프라 건설 가속화
- 에너지 안보 강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축소, 에너지 다변화 정책 등

강력한 폴란드 건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2008년 9월 두트키에비츠 브로츠와프 시장, 우야즈도프스키 전 문화부장관 등 우파성향의 정치인이 참여한 “21세기 폴란드 시민행동(The Civic Movement Poland 21)”이 창당하게 된다.

지난 2008년 8월 러시아-그루지야 사태로 인해 주요 정치 화두가 폴란드의 경제 성장에서 세계 열강에 대한 폴란드의 입장 정리로 옮겨가게 된다. 2008년 8월 9일 카친스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의 조지아 개입을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 러시아의 제국주의 확산에 대한 폴란드의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한다.

2008년 8월 20일 폴란드 외무장관 라데크 시코르스키(Radek Sikorski)와 미 국무장관 콘돌레자 라이스(Condoleezza Rice)는 폴란드 내 미국 미사일 방어기지 설립을 위한 협약에 사인을 하며 18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던 미-폴 간 미사일 방어 기지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강력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동년 9월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라브로프(Sergei Lavrov)의 방폴을 통해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러-폴 외교 관계 냉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미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폴란드 내 MD설립의 효율성에 관해 다시 검토할 것임을 밝혀 실제 MD 설립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자료: 현지 언론보도, Polish News Bulletin 등 종합)

나. 최근 경제 동향

금융위기 이후 EU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폴란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1.7%~2.5%로 예상되었던 2009년 경제성장전망률은 2009년 5월 EU를 비롯 세계경제의 회복이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0%~-1.4%로 하향조정 되었다. 그러나 이는 EU내에서 4번째로 높은 성장전망이며 EU의 전체경제성장률 -4.0%를 크게 상회하는 전망으로 폴란드의 경제여건이 EU내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폴란드 경제는 1) 연 100억 유로 이상의 활발한 외국인 투자, 2) 임금 상승으로 인한 내수 시장 확대 및 생활 수준 향상, 3) EU Fund 유입 및 EURO 2012 개최 준비를 통한 대형 건설프로젝트 발주 및 인프라 개선, 4) 주택, 오피스 등의 건설 경기 호황 등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6%대의 가파른 경제성장을 보여줬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성장은 급속히 둔화되었으며, 주요 경제분석기관들은 2010년 이후에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폴란드 정부는 경제성장 동력으로 EU펀드를 통한 대형 건설경기 활성화, EURO 2012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내수 성장 촉진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연초부터 EU펀드의 조기집행 계획을 발표해왔으며, 2009년 1월 1일부로 개인소득세 감세를 단행하였다.

2009년 초 폴란드의 금융위기설이 국내 언론의 관심을 끌었으나, 폴란드의 외화보유고/단기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IMF, World Bank등의 금융지원이 이어지고 있어 국가 부도의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9년 5월 IMF에서 200억불 규모의 FCL(신축적 공여제도)을 승인함에 따라 폴란드의 외환관리 능력은 더욱 향상되었다. FCL(신축적 공여제도)란 경제 여건이 건실한 국가가 일시적인 외화부족 현상이 나타났을 때 IMF로부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료: 현지 언론 보도, Polish News Bulletin 등 종합)

3. 한국과의 주요이슈

한국과 폴란드는 1989년 수교를 시작하여 2009년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2009년 7월에는 수교 20주을 기념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 투스크 총리 및 카친스크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중동부유럽 최대 투자 진출국으로 양국 정상은 폴란드 내 한국기업을 위한 사업환경 조성 등을 논의 하였다. 특히 폴란드는 LNG 터미널 건설 사업,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타 SOC 건설사업 및 방산 분야 진출 등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많아 양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중동부유럽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2008년 무역흑자는 38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와 폴란드 간 일방적인 경제관계에서 기인한다.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대EU 6위 투자국으로 우리투자기업의 현지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출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폴란드의 대 한국 수출은 우리진출기업의 해외 생산품 역수입 및 일부 생활소비재(육류, 도자기 등)이 대부분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다.

2008년 말 기준 한국의 대 폴란드 수출은 4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했고 수입은 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7% 증가하여 3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폴란드 정부는 만성적인 무역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자국상품의 한국 홍보에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기업의 대규모 폴란드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양국간의 경제관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겠다.

한국의 對 폴란드의 무역 수지 추이

(단위: 천 달러)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 수지
2004	807,233	88,789	718,445
2005	1,174,964	116,234	1,058,730
2006	2,613,334	270,874	2,342,460
2007	3,508,775	201,219	3,207,556
2008	4,116,764	307,102	3,809,662

자료: KITA 한국무역통계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연도별 거시경제 지표

폴란드의 거시경제 지표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E)
GDP(US\$억)	2,530	3,041	3,416	4,246	5,257	384.9
실질경제성장률(%)	5.3	3.6	6.2	6.7	4.9	-0.8
1인당GDP(US\$,PPP)	12,685	13,572	14,879	16,312	17,487	17,461
물가상승률(%)	3.5	2.1	1.0	2.5	4.2	2.5
실업률(%연말)	19.0	17.6	14.8	11.2	9.5	12.3
이자율(%연말)	6.5	4.5	4.0	5.0	5.0	13.75
수출(US\$억)	818	963	1,174	1,453	1,752	1,353
수입(US\$억)	874	991	1,244	1,624	1,989	1,558
무역 수지(US\$억)	-56	-27	-70	-171	-237	-205
연평균환율(US\$대비)	3.6540	3.2348	3.1025	2.4260	2.4092	23.2337

자료: EIU, 폴란드 통계청(GUS), 중앙은행(NBP), 등

주1: 2009년 5월 기준(이후 기준 이자율 변동 없음)

주2: 2009년 5월 월평균환율

나. 최근 경제 동향

2009년 1사분기 직후, 미국 및 EU경제의 회복이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EU 위원회 및 주요 경제분석기관들은 폴란드를 비롯 EU 국가의 경제성장률 모두 하향 조정하였다. EC는 2009년 5월 발표된 EU 중기 경제성장 전망을 통해 폴란드의 2009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다. EU전체 경제성장률은 -4.0%로 하향 조정되어 폴란드가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경기침체(relatively mild recession)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중기 경제성장 전망

순위	국가명	2008	2009(E)	2010(E)
1	Cyprus	3.7%	0.3%	0.7%
2	Greece	2.9%	-0.9%	0.1%
3	Malta	1.6%	-0.9%	0.2%
4	Poland	4.8%	-1.4%	0.8%
7	Czech	3.2%	-2.7%	0.3%
8	USA	1.1%	-2.9%	0.9%
9	France	0.7%	-3.0%	-0.2%
15	Netherlands	2.1%	-3.5%	-0.4%
17	UK	0.7%	-3.8%	0.1%
18	EU	0.9%	-4.0%	-0.1%
19	유로존	0.8%	-4.0%	-0.1%
22	Sweden	-0.2%	-4.0%	0.8%
23	Italy	-1.0%	-4.4%	0.1%
25	Germany	1.3%	-5.4%	0.3%
26	Hungary	0.5%	-6.3%	-0.3%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9.05.05)

주요 기관별 폴란드 2009년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조정 현황

기관명	수정일	수정전	수정후	변동폭
BRE Bank(폴)	2009.02.20	1.5	0	-1.5
Raiffeisen Bank(獨)	2009.03.13	1.5	-0.8	-2.3
IMF	2009.04.23	3.75	-0.75	-4.5
EIU	2009.04.27	0.7	-0.4	-1.1
The Gdansk Institute of Market Economics(폴)	2009.04.30	2.0	0.7	-1.3
European Commission	2009.05.05	2.0	-1.4	-3.4
Oxford Economics(英)	2009.05.11	-	-1.1	-

자료: 주요경제분석기관

폴란드 경제성장 둔화는 주로 기업투자 감소와 내수 소비 증가 둔화에 기인한다. 대출조건 강화에 따른 시장의 자금 경색과 외국인 투자 유입 감소 등으로 인해 2009년 폴란드 기업 투자는 전년대비 -2.5%~-6.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폴란드 외국인 투자의 및 수출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독일(-5.4%), 프랑스(-3.0%), 이탈리아(-4.4%)의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외 경제여건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말 9.5%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2009년 들어 10%를 넘어서면서 내수 소비 증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사분기 들어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2009년 내수 소비 증가는 0%~1%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 정부는 경제 침체 타개를 위해 EU펀드를 통한 대형 건설경기 활성화, EURO 2012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내수 성장 촉진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연초부터 EU펀드의 조기집행 계획을 발표해왔으며, 2009년 1월 1일부로 개인소득세 감세를 단행하였다.

EU펀드 유입 및 EURO 2012 개최준비는 지속적인 외부 자금 유입, 인프라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폴란드의 경제성장 하락의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폴란드에 2013년까지 총 670억 유로가 배정되어 있는 EU펀드는 2008년까지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환율방어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집행 속도를 대폭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5월 13일 UEFA가 폴란드 내 EURO2012 개최도시를 바르샤바, 포즈난, 그단스크, 브로츠와프 이상 4개 도시로 확정함에 따라, 경기장 건설 및 인프라 구축 역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초 폴란드의 금융위기가 국내 언론의 관심을 끌었으나, 폴란드의 외화보유고/단기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IMF, World Bank등의 금융지원이 이어지고 있어 국가 부도의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9년 5월 IMF에서 200억불 규모의 FCL(신축적 공여제도)을 승인함에 따라 폴란드의 외환관리 능력은 더욱 향상되었다. FCL(신축적 공여제도)란 경제 여건이 건실한 국가가 일시적인 외화부족 현상이 나타났을 때 IMF로부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8년 말부터 이슈가 되어온 폴란드의 2012년 EURO화 도입 계획은 2009년 5월 폴란드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발표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폴란드는 유로화 도입을 위해 2년간(EMR2 기간) 재정수지 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당초 2009년 하반기부터 EMR2에 진입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급격한 폴란드화 약세의 방어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전체 산업 구조 개관

폴란드의 산업 구조 (단위:백만PLN)

산업구분	2005	2006	2007	산업비중	성장률
농림업	39,051	39,712	44,326	4.31%	11.62%
수산업	184	218	188	0.02%	-13.76%
공업	213,836	229,903	251,991	24.52%	9.61%
- 광업	21,960	22,485	22,841	2.22%	1.58%
- 제조업	160,374	174,906	194,681	18.94%	11.31%
- 유틸리티 (전기,가스,수도)	31,502	32,512	34,469	3.35%	6.02%
건설업	52,207	59,777	75,185	7.32%	25.78%
무역업	164,154	175,761	189,932	18.48%	8.06%
숙박요식업	10,691	11,055	12,998	1.26%	17.58%
수송업	62,701	68,481	72,119	7.02%	5.31%
금융업	37,729	42,025	52,939	5.15%	25.97%
부동산업	119,068	128,552	138,325	13.46%	7.60%
공공행정 및 국방	53,323	55,292	59,624	5.80%	7.83%
교육업	44,296	45,932	49,245	4.79%	7.21%
공공복지	31,599	34,488	37,344	3.63%	8.28%
기타 서비스업	32,438	34,717	37,753	3.67%	8.74%
가사	5,052	5,266	5,662	0.55%	7.52%
총계	866,329	931,179	1,027,631	100.00%	10.36%

자료: 폴란드 통계청, Statistical Yearbook of Poland 2008 (2009년 발간)

폴란드의 서비스 업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2007년 기준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공업의 비중이 24.52%로 가장 높고 그 뒤를 무역업(18.48%), 부동산업(13.46%)이 잇고 있다. 2004년 EU가입 이후 시장개방과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농림업, 제조업, 건설업, 숙박요식업 및 금융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08년말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에는 전반적으로 산업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나, EU펀드 집행, EURO 2012 개최준비 등으로 인해 건설업 및 관련 서비스업은 비교적 양호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의 통계 분류상 공업(industry)에는 제조업과 함께 광업, 유틸리티 등이 포함 된다. 공업 중에서 제조업은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틸리티 산업이 13%, 광업이 9% 정도를 차지한다.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구조는 다음 표와 같다.

제조업 부문 세부 구조(단위:백만PLN)

구분	2005	2006	2007	산업비중	성장률
총합	213,835	229,902	251,991	100.00%	9.61%
광업	21,959	22,484	22,840	9.06%	1.58%
석탄, 갈탄	15,031	13,575	13,082	5.19%	-3.63%
제조업	160,373	174,905	194,681	77.26%	11.31%
식음료	27,932	28,569	32,700	12.98%	14.46%
담배	1,298	1,167	2,256	0.90%	93.32%
직물	3,431	3,622	3,597	1.43%	-0.69%
의류	3,551	3,824	3,775	1.50%	-1.28%
가죽류	1,031	1,109	1,117	0.44%	0.72%
목재	6,142	6,545	7,690	3.05%	17.49%
제지	3,872	4,131	4,448	1.77%	7.67%
출판	8,319	8,351	8,743	3.47%	4.69%
정유	6,016	5,168	5,236	2.08%	1.32%
화학	11,486	12,541	13,287	5.27%	5.95%
고무	9,870	10,134	11,203	4.45%	10.55%
비금속미네랄	10,117	11,918	15,101	5.99%	26.71%
기초금속	5,358	8,372	3,021	1.20%	-63.92%
금속제품	14,078	17,628	20,657	8.20%	17.18%
기계류	12,665	13,840	14,829	5.88%	7.15%
사무기기	743	536	492	0.20%	-8.21%
전기제품	6,358	6,949	7,992	3.17%	15.01%
방송통신기기	1,895	2,005	1,662	0.66%	-17.11%
의료정밀기기	3,101	3,317	3,871	1.54%	16.70%
차량	10,970	11,859	12,692	5.04%	7.02%
기타운송구	3,406	4,182	4,079	1.62%	-2.46%
가구	8,050	8,128	8,755	3.47%	7.71%
재활용품	674	999	1,470	0.58%	47.15%
유틸리티	31,502	32,512	34,469	13.68%	6.02%
전기,가스,온수	26,469	27,354	29,174	11.58%	6.65%
수질정화	5,032	5,157	5,294	2.10%	2.66%

자료: 폴란드 통계청, Statistical Yearbook of Poland 2008(2009년 발간)

나. 주요 산업 개관

1) 건설업

건설업은 2009년 폴란드 경제성장을 견인할 주요 산업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부터 그린필드형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와 개인 주택 수요 증가로 인해 10% 이상의 성장을 보여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상업용 건물 건설 및 개인주택건설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성장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EU펀드의 조기집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EURO2012 개최도시가 확정되어 관련 인프라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대형 SOC 및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건설업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2) 자동차 산업

폴란드의 신차 판매는 연간 약 30만대 수준으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월~4월까지 판매된 신차는 총 116,702대로 전년 동기대비 1.5%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판매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자동차 업계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폴란드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2009년에는 2008년 수준의 판매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신차 판매 현황

연도	2005	2006	2007	2008
승용차(대)	235,504	239,038	293,319	320,040
증감률(%)	-25.96	1.50	22.7	9.2

자료: SAMAR(폴란드 자동차산업 분석기관)

폴란드에는 피아트, 오펔(GM), 폭스바겐 등 외국 대형 완성차 제조업체가 진출해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MAN, Volvo, Scania 등의 버스 등 대형차량 제조업체도 진출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우 자동차가 전신 이었던 대우 FSO도 현지에서 GM대우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의 대거 진출에 따라 외국계 기업을 비롯한 부품 업체도 많이 설립되어 있어 자동차 산업의 기반은 탄탄한 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완성차 업체들의 감산 및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있어 관련 산업의 침체가 우려된다. 주요 산업분석 기관들은 2010년 이후에나 시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가전 산업

BSH Bosch, Siemens, Indesit, Whirlpool, Electrolux, Fagor 등 글로벌 가전 업체의 직접 투자를 통해 유럽의 주요 가전제품 생산 기지로 부상했다. 최근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부분의 기업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Indesit(이탈리아)의 경우는 폴란드의 생산 환경이 EU 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이용해 투자를 늘리는 등 기업별로 다양한 생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면 TV 생산을 위해 LG 및 협력회사들이 대규모로 진출해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도 EU 내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 2009 년에도 활발한 생산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2008 년 기준 폴란드 가전시장의 총 규모는 약 60 억 PLN 으로 이중 소형가전제품이 14 억 2 천만 PLN, 냉장고가 14 억 PLN, 세탁기가 13 억 4,000 만 PLN. 식기세척기가 6,000 만 PLN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 신재생에너지 육성 현황

폴 정부는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의 발전설비 증설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늘려갈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발틱해 인근의 양질의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주를 이룰 계획이며 Biomass를 통한 Biogas 발전 규모는 전체 증설 규모의 1.2%를 차지할 계획이다.

폴란드 에너지 발전설비 증설 계획 (단위:MW)

에너지원	2008-2015	2016-2030	총계
풍력발전	10,951	5,048	15,999
화력발전(석탄)	6,339	5,240	11,579
천연가스	2,199	650	2,849
수력	96	42	138
Bio Gas	69	56	125
Bio Mass	315	38	353
Co-burning Bio Mass	2,578	2,630	5,208
갈탄	2,032	500	2,532
총계	24,597	14,204	38,783

자료: 폴란드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폴란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관련

폴란드는 2004년 5월 EU에 가입함으로써 그 이전 제3국과 체결한 각종 무역 협정이 효력을 상실한 반면, EU의 공동 통상 정책에 의거하여 EU가 체결한 특혜 무역 협정을 자동적으로 적용 받게 되었다. EU 집행위가 EU의 27개 회원국으로부터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지역무역협정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제 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은 EU 27개국 모두에 적용된다.

□ EU의 FTA 정책

EU는 전통적으로 FTA 협상에서 ‘지역 대 지역’ 협상을 선호해왔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국과의 양자간 협정보다는 지역통합체와의 ‘지역 대 지역 협정’ 체결에 더 중점을 두어왔다. 또한 상호주의에 의거한 FTA 보다는 일방적인 호혜적 특혜협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EU의 FTA 정책 방향이 크게 변경되어 ‘지역 대 지역 협정’ 이외에 개별국과의 FTA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FTA 체결 동기도 정치적 동기와 함께 상업적 동기도 고려하면서 상호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전까지는 EU가 인근 국가의 정치, 경제적 안정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EU의 안보를 모색하는 ‘정치적, 외교적 동기’에 의거하여 인근국과의 FTA를 추진해왔으나 1999년부터는 이와 함께 신흥성장시장을 대상으로 원래 의미, 즉 상업적 의미의 FTA도 병행 추진함을 의미 한다.

□ EU의 FTA의 주요 특징

EU는 안보, 외교, 미국 견제 등의 다양한 동기들이 복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FTA를 추진

하고 있으며, 추진 형태도 FTA, 경제협력협정, 안정화협정, 무역개발협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자국 FTA의 모델로 삼고있는 미국과 달리 단일한 롤 모델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체결한 FTA 별로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다만 WTO(세계무역기구)로부터 지역무역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가능한 FTA에서 양측 상품 무역의 90% 이상의 관세 철폐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과의 협상에서는 이를 고수하고 있지는 않다.

EU는 지난 2006년 10월 ‘신통상정책’을 선언하면서 FTA 우선추진대상국으로 한국, 인도, ASEAN, 러시아, MERCOSUR, GCC를 선정한 바 있으며 한국, 인도 등과는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EU는 ACP 국가, Mercosur, GCC 국가, 그리고 일부 발칸 국가와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지역 대 지역 차원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협상 진행 속도가 부진한 편이다.

나. EU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 GATT 24조에 따라 통보된 협정(상품 교역을 포함하는 FTA 및 관세 동맹)

대상국	발효일	비고
EC(European Community)		
EC 회원국 (EU 12)	58.1.1	로마 협정(Treaty of Rome)
EC-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가입	95.1.1	EC 15 확대
EC-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신가입	04.5.1	EC 25 확대
관세동맹(Customs Unions)		
안도라	91.7.1	공산품(industrial product) 국한
터키	95.12.31	공산품(industrial product) 국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a) 유럽		
불가리아	93.12.31	유럽협정(Europe Agreement)
루마니아	93.5.1	유럽협정(Europe Agreement)
덴마크(Faroe제도)	97.1.1	기존 무역협정(1991) 대체
스위스	73.1.1	리히텐슈타인 포함
마케도니아	04.5.1	Stabilisation & Association Agreement
크로아티아	05.2.1	Stabilisation & Association Agreement
(b) 지중해		
알제리	05.9.1	유로-지중해협정
이집트	04.6.1	유로-지중해 협정
이스라엘	00.6.1	유로-지중해 협정
요르단	02.5.1	유로-지중해 협정
레바논	03.3.1	유로-지중해 협정
모로코	00.3.1	유로-지중해 협정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97.7.1	잠정 유로-지중해 협정
시리아	77.7.1	유로지중해 협정 서명. 아직 미발효
튀니지	98.3.1	유로-지중해 협정
(c) 기타		
역외 국가 및 영토(OCT/PTOM II)	71.1.1	로마협정 PART 4 관련 국가 및 영토
칠레	03.2.1	서비스/투자 제외한 잠정협정
멕시코	00.7.1	EC-멕시코 자유무역지대 : 경제동반자, 정치협력협정
남아프리카	00.1.1	무역개발 및 협력협정으로 완전한 FTA 발효전 임시 적용

□ GATT 5조에 따라 통보된 협정 (서비스 교역을 포함한 지역경제 통합협정)

대상국	발효일	비고
EC (European Community)		
EC 12	58.1.1	로마협정(Treaty of Rome)
EC 15	95.1.1	EC 15 확대
EC 25	04.5.1	EC 25 확대
유럽 (Europe)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94.1.1	EEA가 기존 FTA 대체
불가리아	95.2.1	유럽협정(Europe Agreement)
루마니아	95.2.1	유럽협정(Europe Agreement)
기타		
칠레	05.3.1	Association Agreement
멕시코	00.10.1	EC-멕시코 경제동반자, 정치협력 협정 (1997.12.8)

□ WTO에 통보되지 않은 협정 (상품 교역)

대상국	발효일	비고
산마리노	92.12.1	관세 동맹, 잠정 협정

□ WTO에서 의무면제 받은 협정

대상국	발효일	비고
ACP 국가 (아프리카, 카리브 및 태평양) (77)	00.3.1	협력 협정(Partnership Agreement)으로 EC시장으로 특혜 접근이 가능

자료: European Commission 등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2009년 1-7월 수출 22.5%감소, 수입 30.1%감소

수출은 유로화 기준 폴란드의 2009년 7월까지의 전년 동기 대비 22.5% 감소한 534억 유로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30.1% 하락한 584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폴란드 수출입 현황 (억 달러)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1-7월
수 출	738	894	1,096	1,378	1,695	713
수 입	882	1,015	1,256	1,619	2,060	780
무역수지	-144	-121	-160	-241	-365	-67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나. 국 별 수출입 동향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로의 수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헝가리로의 수출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6월까지 9위였던 스페인으로의 수출은 7월 들어 큰 폭으로 감축하여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또한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 주요 투자국의 투자 감소 및 철수에 따른 원부자재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주요국 수입량은 대부분 20~30% 대의 하락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현지 진출기업의 활발한 생산활동으로 인해 전년대비 99.3% 규모를 수입하여 전년대비 가장 높은 수입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 1-7월 TOP 10 무역국

(단위: 백만불, %)

수출			수입		
국가명	금액	증가율	국가명	금액	증가율
1. 독일	18,526.6	70.5	1. 독일	17,318.9	57.3
2. 이탈리아	5,215.7	78.4	2. 중국	7,208.7	77.5
3. 프랑스	4,939.7	73.2	3. 러시아	6,898.6	55.9
4. 영국	4,457.9	74.3	4. 이탈리아	5,301.3	61.2
5. 체코	4,011.5	68.1	5. 프랑스	3,542.6	55.7
6. 네덜란드	2,966.1	70.2	6. 체코	2,718.9	57.8
7. 러시아	2,605.8	48	7. 네덜란드	2,710.0	62.8
8. 스웨덴	1,915.4	57.4	8. 대한민국	2,520.6	86.6
9. 우크라이나	1,826.7	45.9	9. 영국	2,302.1	63.8
10. 헝가리	1,819.2	60.5	10. 미국	1,976.1	75.1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2008 TOP 10 무역국

(단위: 백만불, %)

수출			수입		
국가명	금액	증가율	국가명	금액	증가율
1. 독일	42383,4	18.1	1. 독일	47221,4	19.7
2. 프랑스	10477,8	24.1	2. 러시아	20535,6	43.1
3. 이탈리아	10193,1	11.4	3. 중국	16502,9	40.4
4. 영국	9712,3	17.9	4. 이탈리아	13229,3	17.7
5. 체코	9594,5	24.9	5. 프랑스	9761,2	16.5
6. 러시아	8932,6	38.9	6. 체코	7365,0	29.8
7. 네덜란드	6750,9	27.3	7. 네덜란드	6904,2	23.2
8. 우크라이나	6443,1	16.9	8. 영국	5778,8	13.2
9. 스웨덴	5399,7	20.9	9. 한국	5038,2	30.7
10. 헝가리	4722,7	17.1	10. 벨기에	4941,7	19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2009년 1-7월 수출, 수입 각각11.3%, 30.3% 감소

폴란드는 전통적인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흑자폭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7월 기준 무역수지 흑자는 20억불 기록하였고, 2008년 연간 무역수지는 38억불 흑자 기록하였다. 2009년 들어 수출, 수입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무역 현황(억USD)

구분	2006	2007	2008	2009.8월
수출(증감률)	26.1(122.4)	35.0(34.3)	41.1(17.3)	25.7(-9.6)
수입(증감률)	2.7(133.0)	3.0(11.2)	3.0(2.0)	1.4(-29.4)
무역수지	23	32	38	24.3

자료: 한국무역통계 (KOTIS)

대 폴란드 수출품목은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원부자재 수출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평면 TV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출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무선전화기(휴대폰), 승용차, 합성수지 등이 주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 폴란드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D,%)

순위	품목명	2008		2009(1월~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116,764,486	17.3	2,574,758,814	-9.6
1	평판디스플레이	273,044,130	-38.5	1,189,391,572	520.3
2	칼라TV	663,770,001	-8.6	304,069,388	-39.6
3	무선전화기	228,989,363	30.9	133,617,173	-9.5
4	광학기기부품	1,198,810,339	112.7	92,004,175	-88.5
5	집적회로반도체	66,777,786	56.4	64,510,441	49.7
6	승용차	177,261,210	-43.2	60,942,915	-57.5
7	아연도강판	71,995,285	86.7	58,711,583	16.9
8	자동차부품	379,008,114	122.6	57,887,596	-76.8
9	모니터	146,691,945	18.2	57,719,675	-52.1
10	전구	73,526,023	105.1	49,323,107	-6.2

자료: 한국무역통계(KOTIS)

대 폴란드 수입품목은 자동차 부품 및 기계류, 금속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순수 폴란드 산 제품으로는 가축육류(돼지고기), 도자기 제품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對 폴란드 주력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08		2009(1월~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07,102,072	2	149,479,820	-29.4
1	자동차부품	88,454,718	30.4	27,046,346	-58.2
2	운반하역기계	8,751,032	34.8	16,125,237	195.1
3	전동축및기어	28,253,190	0.6	11,882,486	-30.4
4	철구조물	0	-	7,500,000	-
5	가축육류	25,254,598	-33.1	6,825,631	-66
6	전기강판	2,357,574	-56.9	4,801,289	438.5
7	주철	15,213,731	90.1	4,645,031	-61.1
8	금속절삭가공기계	2,213,294	49.8	4,069,281	241.6
9	기타타일및도자기제품	9,731,252	-65.1	3,774,254	-61.2
10	기타생활용품	2,589,490	14.8	3,316,388	99.2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조치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 를 통해 취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의 27개국 모두가 동일하게 취해지고 있다.

□ 반덤핑 관세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 규제 조치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사실의 존재 : 해당 수출국(제 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전반적 이익 :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 관세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상계 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수출 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실 존재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 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 연합의 전반적 이익: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 세이프가드 조치

비록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외적으로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가 일어나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 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현재 EU는 공산품에 대해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 기타 교역 관련 규정

수산물이나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위생 및 인체 건강 보호를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품목 역시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군사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기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역시 제한하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09년 5.20일 기준,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다음과 같은 5개 품목이다.

구분	조치 유형	대상 품목
규제 중	반덤핑 관세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PET칩, 양문형 냉장고, 실리콘(우회 덤핑 관세), 철강제 관연결구류

5. 관세제도

가. 개요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벨기에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 (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한편, EU는 일년에 상,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 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나. 통관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벨기에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 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벨기에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되고 있다.

3) 관세 부과 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벨기에 경우에는 21%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4)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위하여 개도국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있지 않다.

GSP 제도는 세가지(표준 GSP, 최빈국에 대한 무세혜택, GSP+)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 GSP 제도는 176개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약 6,400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 GSP 제도이며, GSP+ 제도는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노동권 보호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이며, 최빈국에 대한 GSP 제도는 역시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50개 최빈국에 대해 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행 EU의 GSP 제도는 2009년부터 2011년간 3년동안 적용되고 있다.

6. 주요인증제도

가. CE 마킹 제도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 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 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09년 5월말 기준 19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8개 제품군에 대해 기준 제·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많은 품목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 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제정된 품목도 계속해서 기준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기준 기 제정 품목: 다목적 세제 및 위생 시설 세척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씻기용 세제, 세탁용 세제, 비누와 샴푸, 식기 세척기, 전구, PC, 휴대용 컴퓨터, 냉장고, TV, 진공 청소기, 세탁기, 복사용지, 토양개선제, 신발, 관광사이트서비스, 관광시설 서비스, 형광등
- 기준 제·개정 추진 품목: 히트펌프, 인쇄물, 목재 가구, 티슈, 매트리스, 바닥 깔개, 실내 페인트 및 안료, 섬유 제품 등

다.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편 GEEA의 에너지라벨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란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GEEA의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개 품목으로 GEEA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Switzerland :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 Denmark : The Danish Energy Authority (DEA)
 - Netherlands :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 (GED)
-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 개요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까지 Energy 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 ☐ 대상 품목 ○ 라벨 표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10품목) ○ 최저 효율: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품목) ☐ 시행 기관 EU위원회(EU Commission) ☐ 근거 법령 에너지 라벨링 지침(Council directive/92/75/EEC, 1992)
---	--

▶GEEA

	☐ 개요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개국이 운영하는 대기 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 제품 보급 프로그램이며 Energy라벨 사용 ☐ 대상 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	--

▶Energy 2000

	☐ 개요 대기 전력 절감형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 GEEA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같은 Energy 라벨 사용 ☐ 대상 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등(15품목) ☐ 시행 기관 스위스 에너지부(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	--

7. 지적재산권

가. 개요

폴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EU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있는 제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이 그것이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각 회원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동시에 여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통일된 제도의 경우에도 자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나. 특허권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각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제도이며, 둘째로는 유럽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허락받는 방법이다. 유럽특허청을 통해 취득하는 유럽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인이 지정하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특허제도는 27개 EU 회원국 전역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두가지 제도와 별도로 현재 공동체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체 특허제도란 하나의 출원을 통해 등록받은 특허로 EU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특허의 무효 또는 침해에 대한 재판도 공동체 특허법원이 전담하는 개념이다.

다. 상표권

EU에서 상표를 보호받기위한 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먼저 각 개별국가의 상표보호 담당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소위, 국별 상표권이다. 다음으로는 유럽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공동체 상표이다.

공동체 상표제도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이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 상표에 대해서는 EU 회원국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등록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상표 출원은 공동체 상표청,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통해 출원이 가능하며 EU 회원국 언어로 출원하되, 공동체 상표청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지정해야 한다.

라. 디자인

EU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상표청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체 디자인은 물품 자체의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재질 및 장식의 특징 등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등록 디자인이 출원일로부터 5년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된다.

마. 저작권

EU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해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동안 보호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자에 대한 재판매권도 보호되어 판매가가 일정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격에 대한 재판매권 부과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재판매권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7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역시 저작자 사후 또는 최초 공개된 이후 70년간 보호된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수입 물품의 통관 절차란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 당국은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 수입과 관련된 제반법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여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하는 절차다. 폴란드 수입 절차를 완료하여 수입된 외국 물품(EU 역외국 물품을 의미)은 폴란드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 이동될 수 있다.

폴란드는 EU가입(2004년 5월)과 동시에 EU통관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적인 세관 행정으로 인해 폴란드에서의 통관 절차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U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EU역내에서 제품을 통관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폴란드 내 통관상의 불편함 때문에 많은 폴란드 업체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등지에서 수입 물품을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관 신고는 소정의 공정 양식(관련 사항 기재 및 서명) 및 상업 송장, 포장 명세표 등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며 수입 물품의 화주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관세청에 등록된 관세사, 통관 법인,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다.

신고된 물품 중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폴란드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통관 절차 흐름도

출항 → 입항 → 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 장치) → 물품 보세 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 신고 → 심사 → 물품 검사 → 수입 신고 관리 → 관세 등 제세 납부

2) 구비 서류

통관 신고는 폴란드 관세청 소정의 공정 양식(관련 사항 기재 및 서명) 및 상업 송장, 포장 명세표 등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수입 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 EU의 관세분류번호는 EU 집행위 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음
-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ebticau...htm

수입 신고서와 더불어 송장(invoice), 가격 신고서(발송 당 물품 가치가 10,000 유로 이상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B/L(선화증권) 부분 또는 AWB(항공 화물 운송장)부분,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고기 또는 육류 식품 등의 경우에는 검역 증명서, 식물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 병리학 증명서, 핵 제품과 폭발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또는 운송 허가증, 보호 대상의 야생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수입허가나 CITES 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물품 검사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부가가치세(22%)는 통관 절차 때 지불한다. 대부분의 수입 상들은 통관 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 담당 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게 위임하고 있다.

세관의 조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관세 등의 포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금액과 이자(통관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계산)를 7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입상의 위법 사실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세관은 수입상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결정 사항의 시행을 유보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지만, 수입상은 세관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기간의 예치금은 미리 납부해야 한다. 수입상은 세관의 결정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공식 이의 신청서를 폴란드 중앙 세관장에 수신처로 하되 관련 세관장에 제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서를 받은 세관에서 수입상의 요구가 옳다고 판단할 경우 기 결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만약 관련 세관에서 수입상의 이의 신청 내용이 옳지 않고 세관의 기 결정 내용이 옳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세관장은 수입상의 이의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이의 신청서와 관련 세관의 결정 배경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중앙 세관장에게 이관한다.

중앙 세관장은 해당 세관으로부터 이의신청 서류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개월 동안 중앙 세관장은 관련 세관에 추가적인 조사 등을 지시 할 수 있다.

중앙 세관은 관련 세관 결정의 재확인, 관련 세관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지시, 수입상의 이의 신청 거부 등 3가지 형태 중의 하나로 결정한다.

중앙 세관의 결정이 확정되면 수입상은 중앙 세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는 없으나, 대신 중앙 세관의 결정 후 30일 이내에 Principal Administrative Court(NSA)에 소송을 할 수가

있다. 이후 부터 수입상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Principal Administrative Court (NSA)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4)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 상품 분류 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폴란드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원산지 규정

-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폴란드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5) 통관서비스 업체

- Promexim- Peko
 - Address: ul. Mialki Szlak 4/8, 80-717 Gdansk
 - Phone: (+48 58) 323 88 88
 - Fax: (+48 58) 323 88 11
 - E-mail: m.fischer@premexpeko.pl
 - 웹사이트: www.peko.pl
 - Contact person: Mr. Marek Fischer
- Complex SAD
 - Address: ul. Kwiatkowskiego 60, 81-127 Gdynia
 - Phone: (+48 58) 621 34 48
 - Fax: (+48 58) 621 34 29
 - E-mail: biuro@complexsad.koti.pl
 - Contact person: Ms. Malgorzata Sochaj
- PSM C.Hartwig Warszawa S.A.
 - Address: Ul. J.Wiśniewskiego 27, 81-156 Gdynia
 - Phone: (+48 58) 621 30 35
 - Fax: (+48 58) 621 30 45
 - E-mail: s.bardowska@c.hartwing.pl
 - 웹사이트: www.hartwig.pl
 - Contact person: Ms. Sylwia Bardowska

- A.T. Makro Service
 - Address: Sekundowa 1 02-178 Warszawa
 - Phone: (+48 22) 868 55 75
 - Fax (+48 22) 868 55 63
 - E-mail: info@makro-service.com.pl
 - 웹사이트: www.makro-service.com.pl
 - Contact person: Mr. Mariusz Kos
- Frans Maas
 - Address: ul. Minska 63 , 03-808 Warszawa
 - Phone: (+48 22) 670 67 48
 - Fax: (+48 22) 670 68 53
 - E-mail: olga.aniszczyk@fransmaas.com.pl
 - 웹사이트: www.fransmaas.pl
 - Contact person: Ms. Olga Aniszczyk
- Universal Express
 - Address: ul. Szyszkowa 35/37, 02-285 Warszawa
 - Phone: (+48 22) 878 35 07
 - Fax: (+48 22) 878 35 75
 - E-mail: marekg@uex.com.pl
 - 웹사이트: www.uexgroup.com
 - Contact person: Mr. Marek Grzegorzewski

나. 운송

폴란드의 주요 무역항으로는 GDANSK, GDYNIA, SZCZECIN이 있으며 한국-폴란드 간 항해 일수는 약 7주(약 40-45일)가 소요된다.

- GDANSK
 - 주소: ul. Zamknieta 18, 80-955 Gdansk, Poland
 - 전화: (48-58)343-9300 / 팩스: (48-58)343-9485
 - e-메일: info@portgdansk.pl
 - 홈페이지: www.portgdansk.pl
- GDYNIA
 - 주소: ul. Rotterdamska 9, 81-337 Gdynia, Poland
 - 전화: (48-58)627-4036 / 팩스: (48-58)627-4285
 - e-메일: marketing@port.gdynia.pl
 - 홈페이지: www.port.gdynia.pl
- SZCZECIN
 - 주소: ul. Bytomska 7, 70-603 Szczecin, Poland
 - 전화: (48-91)430-8470 / 팩스: (48-91)462-4507
 - e-메일: info@port.szczecin.pl
 - 홈페이지: www.port.szczecin.pl

폴란드 내 공항은 Bydgoszcz, Gdansk, Katowice, Krakow, Lodz, Poznan, Rzeszow, Szczecin, Szczytno, Warszawa, Wroclaw, Zielona Gora 등 12개가 있으며 바르샤바에 있는 공항은 Warsaw Frederic Chopin Airport 이며 홈페이지는 www.lotnisko-chopina.pl 이다.

1) 운송 비용

40 피트 컨테이너 물량의 door to door 이삿짐 운송의 경우 폴란드에서 한국까지 약 7,000 유로가 든다(내륙 운송, 환적 등 부대 조건으로 인해 총 운송비가 비싼 편이다).

상품 운송의 경우 운송 물량과 운송 거리에 따라 운송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20피트 컨테이너 물량 운송의 경우 폴란드와 한국까지 해운 운송비는 약 3,000~4,000유로 정도 든다.

2) 주요 운송 회사(해운)

- Hanjin Shipping Poland Spolka z o.o.
 - Address: ul. Rzymowskiego 30, 02-697 Warszawa
 - Phone: (+48 22) 647 06 77, 647 07 32
 - Fax: (+48 22) 647 06 77
 - E-mail: alina.mach@pl.hanjin.com
 - 웹사이트: www.hanjin.com
 - Contact person: Ms. Alina Mach or Mr. In-Do Baik
- PEKAES MULTISPEDYTOR
 - Address: Spedycyjna 1 05-870 Blonie
 - Phone: (+48 22) 725 34 58
 - fax(+48 22) 731 81 59
 - E-mail: marketing@multispedytor.com.pl
 - 웹사이트: www.multispedytor.com.pl
- PSM C.Hartwig Warszawa S.A.
 - Address: Ul. J.Wiśniewskiego 27, 81-156 Gdynia
 - Phone: (+48 58) 621 30 35
 - Fax: (+48 58) 621 30 45
 - E-mail: s.bardowska@c.hartwing.pl
 - 웹사이트: www.hartwig.pl
 - Contact person: Ms.Sylwia Bardowska
- Promexim- Peko
 - Address: ul. Mialki Szlak 4/8, 80-717 Gdansk
 - Phone: (+48 58) 323 88 88
 - Fax: (+48 58) 323 88 11
 - E-mail: info@peko.pl
 - 웹사이트: www.peko.pl
 - Contact person: Mr. Marek Fiszer
- Frans Maas
 - Address: ul. Minska 63 , 03-808 Warszawa

- Phone: (+48 22) 670 67 48
- Fax: (+48 22) 670 68 53
- E-mail: olga.aniszczyk@fransmaas.com.pl
- 웹사이트: www.fransmaas.pl
- Contact person: Ms. Olga Aniszczyk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 진출지로서 매력도

2006년부터 매년 100억 유로 이상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기록한 폴란드는 명실상부한 중동부 유럽 최대의 외국인 투자지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009년 들어 금융위기의 여파로 외국인 투자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폴란드 투자 법인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생산량을 줄이고 있지만, Fiat의 자동차 엔진공장 증액 투자, Indesit의 이탈리아 식기세척기 공장 폴란드 이전 등 금융위기 이후에도 전략적으로 투자를 지속하는 기업도 있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폴란드의 주요 투자 매력 포인트로는

첫째, 임금을 비롯한 생산 비용이 서유럽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4년 EU 가입 후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폴란드의 평균 임금 수준은 아직 서유럽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둘째, 우수한 기술 인력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프로그래밍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소프트웨어 분야 IT인력은 물론 항공, 제약 분야에서도 우수한 인력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Intel, IBM 등 세계적인 IT기업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폴란드에 대규모 R&D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셋째, 폴란드의 EU가입으로 EU의 까다로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우회할 수 있어 서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넷째, 폴란드는 국토, 인구 및 경제 규모 면에서 중동부 유럽 최대의 시장이며, 내수 시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로 투자 진출 시 폴란드 내수시장 공략을 통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폴란드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도 언급할 만하다. 폴란드는 경제 발전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데 구체적으로는 법제도 정비, 투자 인센티브 제공, 경제 특별 구역 및 산업 단지 설치, 지방세 면제 등을 들 수 있다.

나. 투자지로서의 장, 단점

장 점	단 점
- 서유럽 대비 저렴한 생산 비용 - 우수 기술 인력 풍부(IT, 제약분야) - 중동부 유럽 최대 내수 시장(인구, GDP 등) - 물류적 요충지(유럽의 중앙) - 해양 수송로(발트해) 보유 - 대규모 자금 유입(EU Fund 등)	- 금융기관의 높은 서유럽 의존도 - 높은 환율 변동성 - 관료주의적 병폐 잔존 - 사회보장제 등 높은 非 임금성 노동 비용 - 인프라 열위: 도로, 전력 등 - 최근 급격한 임금상승 및 비용 상승

자료: 폴란드 투자유치청(PAIZ), 자체 보유정보 등 종합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인 직접 투자(유입) 개관

1989년 폴란드의 시장 경제 체제 전환을 계기로 90년대 초반부터 서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 진출이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2007년 말 기준 폴란드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입 누계는 1천억 유로를 넘어서며 중동부 유럽 최대 외국인 투자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2006-2008년간 매년 100억 유로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폴란드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Fiat, Indesit등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는 투자가 늘고 있다.

2009년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 철수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1월의 경우 금융위기 직후 중단되었던 투자계획들이 이행되어 단기적으로 큰 폭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이후 외국인 투자유입 감소세 지속하고 있다. 2월과 5월, 6월의 경우 투자자금 회수로 인해 FDI 유입액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폴란드 투자청은 2009년 예상 외국인 투자를 70~80억 유로로 전망하고 있다.

폴란드의 해외 직접 투자(FDI) 유입 동향

(단위: 백만 유로)

기간	09.1	09.2	09.3	09.4	09.5	09.6	09.7
투자액	1,095	-77	291	328	-483	-192	-24

자료: NBP(폴란드 중앙은행)

나. 국가별 투자 동향

2007년까지의 국가별 투자 동향을 보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서유럽 국가의 진출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특히 EU국가로부터의 투자는 전체 외국인 투자의 85% 수준으로 폴란드가 EU내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 외 국가로는 미국이 누적 투자액 79억 유로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10억5천만 유로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뒤를 일본이 따르고 있다. 2007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투자액 순위는 15위이다.

국별 주요 투자 분야를 보면, 네덜란드는 보험업(ING Group, Eureko), 독일은 은행업(HVB, 코메르츠 은행 등) 등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통신 및 유통업(France Telecom, Vivendi Universal; Carrefour, Geant, Auchan 등)으로 진출을 선호하는데 비해 미국은 다양한 분야(Citigroup, Apollo-Rida, GM)로 들어오고 있다.

주요 국가별 외국인 직접 투자

(단위: 백만 유로)

국가명	2004	2005	2006	2007	누적투자금액
The Netherlands	1,952.2	413.9	1,345.4	1,738.2	22,111.4
Germany	1,056.6	1,675.3	2,802.6	2,828.2	19,083.4
France	2,731.8	-18.9	840.3	1,778.7	13,359.7
Luxembourg	196.6	1,680.0	3,638.9	1,006.2	9,784.0
USA	114.3	643.5	394.8	834.6	7,918.1
Italy	437.7	171.8	1,429.8	391.9	5,147.0
Sweden	496.7	456.0	274.7	813.2	4,681.7
GB	264.2	422.3	1,168.6	613.1	4,606.5
Austria	640.2	574.5	-414.1	904.5	4,323.5
Belgium	473.3	71.5	209.6	321.6	3,670.9
Spain	407.2	189.4	1,137.3	574.0	3,507.8
Denmark	195.2	491.3	187.1	471.7	3,035.0
Switzerland	304.5	243.8	563.1	492.5	2,846.2
Ireland	139.3	120.9	332.2	463.7	2,208.9
Korea	167.7	-38.7	415.9	25.6	1,052.9
Japan	150.0	239.3	253.7	191.6	1,024.1

자료: 폴란드 중앙은행(NBP) 2009 (2008 통계치 미발표)

다. 업종별 투자 동향

2007년 말 기준 부문별 투자 비중은 제조업이 27%이며 금융업 15%, 상업 및 수리업 13%, 부동산업 9%가 그 뒤를 이었다. 2005년까지 폴란드의 외국인 투자는 제조업과 금융업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그 중 50% 정도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투자였다. 2006년 들어, 제조업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으며, 금융 분야 투자는 감소한 반면 건설/부동산 분야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2007년 에는 전년 대비 투자액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제조업 및 부동산 분야 투자가 강세를 이뤄왔다.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식료품, 가전 분야의 투자가 주를 이루었다. 기계 설비 및 고무/플라스틱/화학제품도 위 투자 증가에 따른 설비 투자 및 원부자재 공급을 위한 투자가 대부분이었다.

업종별 외국인 직접 투자

(단위: 백만 유로)

	2004	2005	2006	2007	Investment Position
MANUFACTURING	3,563.1	2,310.6	3,738.7	4,946.9	40,042.3
- Food products	209.4	405.2	394.3	304.2	5,755.4
- Wood, publishing and painting	596.4	65.4	366.4	580.2	4,267.5
- Chemical products	330.0	-19.2	534.3	327.0	3,641.3
- Rubber and plastic products	223.2	307.0	535.5	445.4	2,919.6
- Metal products	704.8	392.4	740.2	1,232.5	5,740.9
- Mechanical products	148.9	336.6	168.0	290.9	2,040.7
- Office machinery and computers	11.2	-1.0	18.2	179.2	238.6
- Radio, TV, communication equipments	52.4	26.0	226.9	272.8	1,121.0
- Motor vehicles	757.9	325.1	466.6	662.2	6,388.9
- Other transport equipment's	53.8	37.7	191.1	139.0	609.1
ELECTRICITY, GAS AND WATER	625.7	193.6	77.6	454.7	3,561.4
CONSTRUCTION	202.8	93.5	415.6	384.0	2,432.1
TRADE AND REPAIRS	1,350.6	2,045.9	2,540.4	2,158.0	19,515.7
HOTELS AND RESTAURANTS	-12.0	9.5	36.8	108.2	641.7
TRANSPORTS, COMMUNICATION	1,761.5	-333.5	916.3	611.9	8,699.8
- Telecommunications	2,126.1	-549.5	732.2	485.9	6,781.5
FINANCIAL INTERMEDIATION	1,811.9	2,408.4	1,652.3	2,495.0	22,858.8
REAL ESTATE & BUSINESS ACT.	923.3	1,323.3	5,157.4	4,089.1	17,783.0
TOTAL	10,304.8	8,259.9	15,575.9	16,582.1	119,541.3

자료: 폴란드 중앙은행(NBP) 2009 (2008 통계치 미발표)

라. 주요 외국 투자 기업

폴란드로 투자 진출한 외국 기업 중 투자 규모가 큰 기업들은 다음 표와 같다.

폴란드 주요 외국 투자 기업

기업 명	국가	투자 분야	투자액(백만 달러)
France Telecom	프랑스	통신	4,470
FIAT	이탈리아	자동차, 보험, 은행	1,800
KBC Bank	벨기에	은행	1,740
METRO Group	독일	유통(소매 등)	1,500
HVB	독일	은행	1,336
Citigroup	미국	은행	1,300
LG	한국	전자	1,100

자료: 폴란드 투자청

금융위기 이후에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외국 기업의 폴란드 투자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며 주요 외국인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 외국인 투자계획

연번	기업명	투자분야	투자액	시기	투자지역	사업규모
1	FIAT(이)	신형엔진생산 (증액투자)	400M EUR	2009말	Bielskobiala	연산50만대
2	INDESIT(이)	가전생산 (이태리공장이전)	-	2009말	Radomskio	연산70만대이상
3	Octapharma(스)	혈장분리생산 (신규설립)	150M EUR	2009	비공개	고용: 2,500 (R&D:500)
4	Unicredit(이)	금융기관 BPO (신규설립)	18.5M PLN	2009	Szczecin	고용: 430
5	TOYOTA ASIN(日)	자동차 내장재 (의자용품, 신규)	30M EUR	2009	Wojewodztwo Wroclaw인근	고용: 400
6	NIDEC(日)	자동차용 정밀모터(신규)	56M PLN	2008.말	Niepolomice	고용: 500
7	Castrorama(英)	DIY 샵 확장 44→70	-	2008- 2010	폴란드 전역	-
8	IBM(美)	ERP R&D센터 Biz Resilience Center	- \$30M	2008.11 2008.말	그단스크 바르샤바	고용: 100 -

자료: 바르샤바KBC 종합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나라의 對 폴란드 투자 현황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대 폴란드 투자는 90년대 중반 대우자동차와 협력 업체들이 진출하면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6~1998년 3년 간 투자액이 4억 4,0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투자가 집중되기도 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대우자동차의 파산과 철수 등의 요인으로 2000년 초반까지 대 폴란드 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04년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른 여건 호전과 전자, 가전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투자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는 LG전자(TV 부문)의 제2공장 설립 투자, LG 필립스 LCD, LG전자 백색가전 부문의 투자가 시작되고, 협력 업체들이 동반 진출하면서 투자가 급증하여 2006년 한해 동안에만 2억 2,000만 달러를 투자, 폴란드의 주요 외국인 투자국으로 올라섰다. 2007년 들어 투자세가 감소했으나 2008년부터 폴란드 남부 지방으로 자동차 분야 투자가 이어져 2009년 1/4분기 기준 대 폴란드 투자는 누적건수 120건, 투자액 12억 200만 달러에 달했다.

한국의 對 폴란드 직접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1/4	누계
신규 법인 설립 수	16	18	18	10	0	120
투자금액	78.1	226.9	123.7	92.8	21.1	1,22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지역별 투자 동향

우리나라의 폴란드 투자는 건수로나 금액 면에서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2008 년 말 기준 제조업 분야 투자 기업은 총 82 개사로 총 투자 기업의 68.3%를 차지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약 10 억 달러로 총 투자액의 약 90%를 차지했다.

한국의 對 폴란드 업종별 투자

(단위: 건수, 천 달러)

업종 대 분류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총계	120	1,222,461
농업, 임업 및 어업	1	2,400
제조업	82	1,101,979
건설업	6	1,657
도매 및 소매업	15	49,333
운수업	4	186
숙박 및 요식업	1	1,9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63,6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1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49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60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조업 세부업종 분류

(단위: 건수, 천달러)

업종중분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Total	82	1,101,979
식료품 제조업	1	4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3	1,24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	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	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	30,17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	10,364
1차 금속 제조업	2	17,4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6	133,54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444,55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	6,507
전기장비 제조업	3	2,64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	68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8	450,606
가구 제조업	1	1,836
기타 제품 제조업	1	2,37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편, 우리 기업의 투자는 바르샤바 근교(대우자동차, 대우일렉트로닉스, LG전자, SK유로켄 등), 독일 국경과 가까운 폴란드 남서부의 브로츠와프(Wroclaw) 지역(LG 전자, LG 디스플레이 등) 및 카토비체(Katowice) 지역(신창전기, 대동공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브로츠와프는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투자한 지역으로 초대형 LCD 패널 및 LCD TV생산 분야 협력업체들이 동반 진출해 있으며 2008년부터 투자가 본격화된 카토비체 지역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자료: 바르샤바KBC 종합)

다. 주요 투자 기업 리스트

주요 투자 기업 리스트

기업명	업종	제품	진출 형태	종업원수	투자진출시기
신창전기	자동차	엔진부품	단독 투자	-	2008 년
POSCO	철강	강판가공	합작 투자	-	2007 년
LG 필립스 LCD	전자	LCD 패널	단독 투자	1,250 명	2005 년
LG 전자 브로츠와프	전자	LCD TV, 냉장고	단독 투자	1,700 명	2005 년
휴맥스	전자	디지털 셋탑박스, 디지털 TV	단독 투자	54 명	2004 년
SK 유로켄	화학	PET 원료	합작 투자 (지분 63%)	80 명	2002 년
제니스-모나미	사무용품	필기구	합작 투자	55 명	2001 년
LG 전자 무와바	전자	컬러 TV, 디지털 TV	단독 투자	1,500 명	1999 년
한국유리	유리	자동차안전유리	합작 투자	800 명	1997 년
운화실업	자동차	안전벨트	합작 투자	150 명	1997 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전자	컬러TV,디지털 TV 등	단독 투자	850 명	1993 년

자료: 각종 자료 종합, KBC 정리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법 개요

폴란드 내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규정하는 기본 법령은 경제활동 자유법(Economic Freedom Act of 2 July 2004)이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는 없고, 경제활동 자유법에 의거하여 폴란드에 진출한 외국 기업(현지 법인)은 내국인 대우의 원칙 하에 일반적으로 폴란드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먼저 ‘외국인’의 정의를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 등이다. 그러나 EU나 EFTA(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지역 외국인과 여타 지역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EU나 EFTA 지역에서 온 외국인 투자가는 폴란드 시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기업 설립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과 같이 EU나 EFTA 회원국이 아닌 지역의 외국인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 유한합작회사(limited partner ship), 유한주식합작회사(limited joint-stock partnership) 등의 형태로만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는 지사(branch office)나 대표(연락)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할 수도 있다.

나. 투자 장려 및 제한 분야

□ 장려 분야

1,000만 유로 이상의 대형 투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5년간 최소 100개 일자리를 창출, 유지하는 최소 50만 유로의 투자), 기술 혁신을 유발하는 투자, 환경 개선 투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을 설치하여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조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08년 들어 폴란드 정부는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폴란드의 산업 구조 고도화 및 외국인 투자 매력도 증진을 추진했다. 2008년 8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 지원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투자 지원 강화 방안 개요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대규모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 일반 조건 - 투자액: 1억6000만 주워티 이상 - 고용 규모: 50명 이상 ○ 우선 지원 대상 - 투자액: 10억 주워티 이상 - 고용 규모: 500명 이상	- 현금 지원 - 지원액은 경제부와의 협상에 따라 결정
고도 산업 분야 신규 고용 지원	○ 전략적 산업 육성 분야 - 투자액: 4천만 주워티 이상 - 고용 규모: 250명 이상 ○ 서비스업 - 고용 규모: 250명 이상 ○ R&D - 투자액: 300만 주워티 이상 - 고용 규모: 35명(연구원) 이상	○ 고용 규모 250~1000명 - 신규 고용 인력 1인당 최대 3,200주워티 ○ 고용 규모 1000명 이상 - 1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인력 1인당 최대 18,700 주워티 지원

□ 제한 분야

폴란드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다. 외국인 투자를 민영화 추진과 연계시켜 대부분 자유화하는 한편, 외자 유치를 위한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 상의 문제점은 많이 해소되었다. 특히 99년부터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 개방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등 선진국형 개방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 산업이나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허가나 인가를 취득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업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을 위해서는 이권(concession)을 취득해야 하며, 주류나 담배 제조,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 통신서비스,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은행, 부동산 중개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서로부터 허가(permit)를 받아야 한다.

허가/인가가 요구되는 업종 또는 사업 활동

허가 유형	업종 또는 사업 활동
이권 (concession)	- 광물 탐사 및 채굴 - 폭약, 무기 제조, 기타 군용 제품 및 기술 - 연료 및 에너지 제조, 가공, 유통, 거래 - 항공 수송 -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등
등록 (register)	- 통제되는 활동(예: 사설 탐정, 외국환으로 상행위 등)
허가 (permit)	- 주류 도매 - 주류 및 담배 제조 - 유독성, 방사성 물질의 제조 및 판매 - 공항 관리 -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약국 또는 의약품 창고 운영 - 특정 우편 및 택배 서비스 - 카지노의 운영 - 은행, 보험회사 또는 중개회사 운영 - 통신 서비스 - 도로 수송 -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 폐기물 처리 - 투자펀드 또는 연금펀드 설립 - 비료 및 살충제 거래 - 부동산 중개 서비스 - 원양 어업 - 경제특별구역(SEZ)에서의 사업 활동 등
라이선스 (license)	- 특정 물품 수입 및 판매: 화장품, 일부 아동용품(크레용, 물감 등), 식수와 접촉하는 물품, 동물, 육류, 작물 등 - 공공 전화 네트워크,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공공 통신 네트워크 이용 등

자료: 폴란드 투자유치청, “How to do business”

다. 투자 인센티브

2004년 5월 EU에 가입함에 따라 폴란드의 현행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EU 요건에 맞추어져 있다. 대표적인 투자 인센티브로는 소위 ‘지역 지원(Regional Aid)’을 들 수 있는데 신규 투자(공장 설립, 기존 공장 확장 등)에 대해 현금 보조, 법인세 감면 등의 형태로 투자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 지역 지원(Regional Aid) 제도

- 지역 지원이란 폴란드 전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초기 또는 신규 투자(initial-investment) 지원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초기 투자에는 신규 기업(공장) 설립, 기존 기업 확장, 신제품, 추가 제품으로 생산 다변화, 기존 기업 내 생산 공정의 획기적인 변화 등이 모두 포함된다.
- 한편 지역별로 지원율은 차등을 두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금 보조나 법인세 감면의 한도(즉, 최고 지원율)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음
 - 현행(2007~13년) 최고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아래 서술하는 적격 비용(투자 또는 고용 창출 비용)의 30%에서 50%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음.
 - 예컨대 수도인 바르샤바의 지원율 상한선은 30% 이고, 최근 외국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남서부 공업 지역은 40%, 기타 지역은 50%로 되어 있음.

- 단, 중소기업에 대한 최고 지원율은 더 높는데 소기업(직원 50명 미만)의 경우 각 20% 포인트가 높고, 중견 기업(직원 50~250명)의 경우 각 10% 포인트가 높게 책정
- 대형 투자(적격 비용 5,000만 유로 이상)에 대한 지원율 수준은 낮아지는데 계산식은 이와 같음: 최대 지원액 = $R \times (5,000\text{만 유로} + 0.50 \times B + 0.34 \times C)$

(* R은 지역별 최고 지원율, B는 적격 비용 5,000만~1억 유로, C는 적격 비용 1억 유로 초과)

○ 적격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된다.

- 개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액은 일반적으로 적격 비용(투자 비용 또는 일자리 창출 비용)에 근거를 두게 됨
- 투자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는 유형 자산(토지, 건물, 플랜트/기계 장비), 무형 자산(특허, 라이선스, 노하우 등 기술 이전 관련 자산), 리스(토지, 건물) 등임
- 구입 비용 또는 제조 비용(건물, 기계 및 인프라 스트럭처 비용)
- 신규 직원 고용 비용(job creation costs)은 2년 동안의 신규 직원에 대한 노동 비용(사회보장세 포함)임.

○ 인센티브의 지원 조건은 최소 5년간 투자 또는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다.

○ 한편, 지역 지원의 형태에는 현금 보조, 법인세 감면, 부동산세 감면 등이 있다.

- 현금 보조: 투자 기업과 폴란드 경제부 사이에 계약(agreement)이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에는 투자액, 투자 일정, 적용 기술, 신규 고용 인력 수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투자자의 신청에 대해 경제부에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함
- 법인세 감면: 경제특구(SEZ)에서만 적용됨
- 부동산세 감면

□ 경제특별구역(SEZ) 법인세 감면 제도

○ 경제특별구역(SEZ)은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별도 행정 구역이다. SEZ은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만, 조세 감면 혜택이 있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하다.

○ SEZ 내 법인세 감면 제도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 감면은 전술한 '지역 지원'의 한가지 형태이므로 상기 지역 지원의 조건과 대부분 동일함. 단, 법인세 감면은 경제 특구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이 다름.
- 감면의 한도: 적격 투자 비용 x 상기 지역별(경제 특구가 속한 지역) 최고 지원율
-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별 지원율도 지역 지원과 동일(즉, 중소기업은 지원율이 10~20% 포인트 높아짐)

○ 법인세 감면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는 당연히, 경제 특구에 입주해야 한다. 입주를 위해서는 특구 관리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국은 입찰 또는 협상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액이 최소 10만 유로가 되어야 하며, 지역 지원과 마찬가지로 투자가 최소 5년간 존속되거나, 투자 결과 새로 창출된 일자리가 최소 5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 지방세 감면 제도

- 부동산세의 전액 또는 부분 면제가 가능한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 당국과의 협상이 필요하고, 지방 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세도 부분 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한데 트럭과 버스에만 적용되며, 승용차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료: 폴란드 투자유치청(PAIIZ) 등 자료 종합)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회사의 형태

폴란드 내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규정하는 기본 법령은 경제활동 자유법(Economic Freedom Act, 2004. 7. 2)이다.

외국인투자자 관련하여 먼저 ‘외국인’의 정의를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 등이다. 한국과 같이 EU나 EFTA 회원국이 아닌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 유한합작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주식합작회사(limited joint-stock partnership) 등의 형태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지사(branch office)나 대표(연락)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할 수도 있다. 가장 보편적이고 법인 성격을 보장받는 회사 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들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폴란드 약어 sp.zo.o.)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주주 1인에 의해서도 설립 가능하나, 다른 1인 주주 유한책임회사만에 의해서는 설립될 수 없다. 법인성(legal personality)을 가지며, 이사회에 의해 대표된다. 최소 설립 자본금은 50,000주워티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50주워티으로 되어 있다. (2006년 평균 환율은 1달러에 3.1025주워티). 유한책임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되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폴란드 약어 S.A.)의 최소 설립 자본금은 50만 주워티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0.01주워티 이다. 주식회사는 최소 1인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주주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하나, 1인 주주의 유한책임회사에 의해서는 설립될 수 없다. 주식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에 등록되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주식회사는 공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한책임회사와 다르다. 바르샤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한다.

지사(branch office)는 법인성을 갖지 못하나,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지사는 본사 영업 범위 내의 상거래 활동만 가능하며, 국가법원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대표 사무소 또는 연락 사무소의 활동은 본사와의 연락, 광고 및 프로모션 등으로 제한되며, 상거래 활동은 할 수 없다. 폴란드 경제부가 관리하는 대표사무소 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나. 현지 법인(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설립 절차

한국에서 미리 준비할 서류로는 대표이사 위임장, 이사회 결의서, 주주 명부,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인데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주한 폴란드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폴란드에 와서는 영어서류를 폴란드어로 다시 번역 후 공증을 받게 되어 있다.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형태(유한책임 또는 주식회사)를 결정하면,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을 작성하고 발기인들이 서명을 해야 한다. 단, 서명할 때에는 폴란드 내 공증인(Notary Public)의 공증이 있어야 한다.

회사 정관에는 회사명, 소재지, 사업 내용, 초기 자본금 액수, 주식의 수량 및 액면가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여기에 더해 등록 전 자본금 납부액, 이사회 및 감사 위원회 구성원의 수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에 서명이 되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고 설립 자본금(5만 주워티 이상)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공식 조직으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자본금 50만 주워티, 주주 수 25명을 넘지 않을 경우 선택 사항이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임명하고 자본금(50만 주워티 이상)의 최소 25%를 납부해야 한다.

다음으로 회사를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한다. 즉,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이나 주로 사업이 영위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등기를 하는 것인데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유한책임회사
 - 신청서(소정 양식)
 - 정관, 자본금 납부 내역서(모든 이사회 구성원 작성), 주주 명단, 이사회 구성원 내역 (이름, 주소, 무범죄 증명서 등), 이사회 구성원의 서명 견본(공증된 것), 임대차 계약서 등
- 주식회사
 - 신청서(소정 양식)
 - 정관, 회사 설립 및 주식인수 관련 공증된 결의서, 자본금 납부 내역서, 회사 경영진 명단 및 인적 사항, 이사회 구성원의 서명 견본(공증된 것) 등

등록 신청 후 중앙통계국(GUS)에 REGON 번호(statistical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사업자 등록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에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납세자 번호(NIP;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할 수 있는데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REGON과 NIP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후 보완하면 된다.

폴란드 법에 의하면, 모든 기업은 폴란드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은행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로는 회사 정관, 서명 견본, 등기 관련 서류, REGON 번호를 부여하는 GUS의 서신, NIP 등이다.

법원에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자본금이 납부되어야 하므로(유한책임회사 전액, 주식회사 25% 이상) 은행은 설립 과정에 있는 회사에 이러한 결제 목적으로 예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 계좌는 회사의 정식 등록과 함께 일반 계좌로 바꿀 수 있다.

법원 등기부에 등록이 되면, 회사는 등록 번호를 받고 정식 법인이 된다. 한편, 매출이 1만 유로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송금업체(VAT remitter)로 등록되어야 한다.

다. 지사 설립 절차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정관, 폴란드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그 사무소가 폴란드 법을 따를 것이라고 결정한 이사회 결의서 등이다. 이러한 서류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후, 주한 폴란드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영문서류를 다시 폴란드어로 번역하고 공증받아야 한다.

지사를 설립하는 데는 행정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외국 기업가는 폴란드 내 지사를 등록하기 위해서 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항들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나 자료 작성을 폴란드어로 해야 하므로 현지 법률 사무소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지사에서 외국 기업을 대표하도록 위임 받은 사람의 폴란드 내 이름 및 주소 공개
- 외국 기업을 대표하도록 위임 받은 사람의 공증된 서명 첨부
- 정관 사본과 공증된 폴란드어 번역본 첨부 등

지사는 폴란드 회계법의 규정과 합치하도록 폴란드어로 별도의 장부를 유지해야 하고, 사실적인 또는 법적인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경제부에 통보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가진다.

지사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등기 신청을 한 후, 중앙통계국에 REGON 번호(statistical identification number, 사업자 등록증), 관할 세무소에 납세자 번호(NIP;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해야 한다. 지사는 본사의 이름에 “branch in Poland”를 추가하여 등록된다.

지사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와 마찬가지로 회계감사의 의무는 없으나, 장부 기록은 잘 유지해 두어야 한다.

라. 대표(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대표 사무소의 활동은 본사와의 연락, 광고 및 프로모션 등으로 제한되며, 상거래 활동을 할 수 없다. 폴란드 경제부가 관리하는 대표 사무소 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대표 사무소의 성격상 자본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다. 대표 사무소 등록을 위한 신청서는 폴란드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이하 모기업)의 명칭, 등록 사무소 및 법적 지위(한국 내 회사의 형태)
- 모기업의 회사 형태, 자본금
- 모기업의 사업 목적
- 대표 사무소 책임자의 성명, 폴란드 내 주소
- 대표 사무소의 폴란드 내 주소

또한, 신청서와 함께 모기업의 정관 사본 및 공증된 폴란드어 번역본, 폴란드 내 대표 사무소의 설립과 관련한 모기업의 결의서(statement) 등을 첨부해야 한다.

마. 공장 설립 절차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용도 허가(Planning Decision)와 건축 허가(Building Permit)를 받아야 한다. 지구 종합 계획(Local Master Plan)이 되어 있고 동 계획에 맞는 용도로 건설될 경우

바로 건설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폴란드 내 대부분의 지구 종합 계획이 2004년 초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경우 새로운 지구 종합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용도 허가부터 받는 것이 필요하다.

1) 용도 허가(Planning Decision)

- 용도 허가는 지방 정부에서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500 또는 1:1000 척도의 기본 계획도(Main Plan). 기본 계획도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표시된 지적도(cadastral map)와 대상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시장 가격
 - 건설 기간 동안의 용수 및 에너지 소비량 예상치 및 하수 처리 방법, 지역의 인프라와 관련된 필요 사항
 - 건설 예정 건물 및 시설의 기능 및 규모에 대한 그래픽을 포함한 토지개발계획과 방법
 - 투자와 관련된 기술적 세부 내역
 -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 없을 경우 환경 영향에 대한 개요
 - 대규모 투자의 경우, 환경 영향 평가서
- 용도 허가는 행정 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Law) 및 지구 종합 계획법(Local Planning Law)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 지역에 대한 지구 종합 계획이 마련되어 행정 처리 과정에 있을 경우에는 최종 확정 시까지 용도 허가가 무기한 연기된다.
- 용도 허가에는 투자의 형태, 허가 조건, 세부 준수 사항이 명기되며 동 허가 조건에 따라 건설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용도 허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발급되며, 허가 발급 이후에도 건축 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지구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 동 종합 계획과 상충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
 - 같은 공공도로를 통해 접근되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부지가 부지 사용 목적이나 건설 형태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 대상 부지가 공공 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해야 하고
 - 기존 또는 계획된 사회 간접 자본이 계획된 투자에 충분하고
 - 농지나 삼림이 아니거나 전용 허가를 이미 받은 토지여야 하며
 - 환경법(Environmental Law)이나 문화재보호법(Monument Protection Law)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 허가(Building Permit)

건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는 모든 건축 관련된 설계 등 세부 사항이 건축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결정되며,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건설 공사가 중도에 2년 이상 중단될 경우 취소된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가 지구 종합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도 허가서를 첨부해야 하며, 면허를 갖춘 설계사가 작성한 건축 허가용 설계도면 4부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을 위해서는 착공 7일 전까지 허가 당국에 착공일을 통보해야 하며, 건설업체와 감리 업체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

3) 점유 허가(Occupancy Certificate)

완공 후에는 건설 완료 통지서를 건축 허가 당국뿐 아니라 환경 당국, 위생 당국, 소방 당

국, 노동 당국에 보내야 한다. 동 통지서 접수 후 관련 당국에서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점유허가가 발급된다. 건설 완료 통지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건축 일지 원본
- 건축 내용이 폴란드의 관련 법규, 건축 허가 조건과 부합된다는 건설업체 책임자의 보고서
- 인접 지역에 대한 적절한 관리 보고서(필요 시)
- 감리 보고서 등

*자료: 폴란드 투자유치청(PAIIIZ), “How to do business: Poland” 등)

6. 투자입지여건

가. 입지 선정 시 체크 포인트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 즉 입지 선정은 투자할 업종과 함께 교통 물류를 비롯한 인프라 스트럭처 구축 상황, 노동력 확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입지 선정을 위한 일반적인 체크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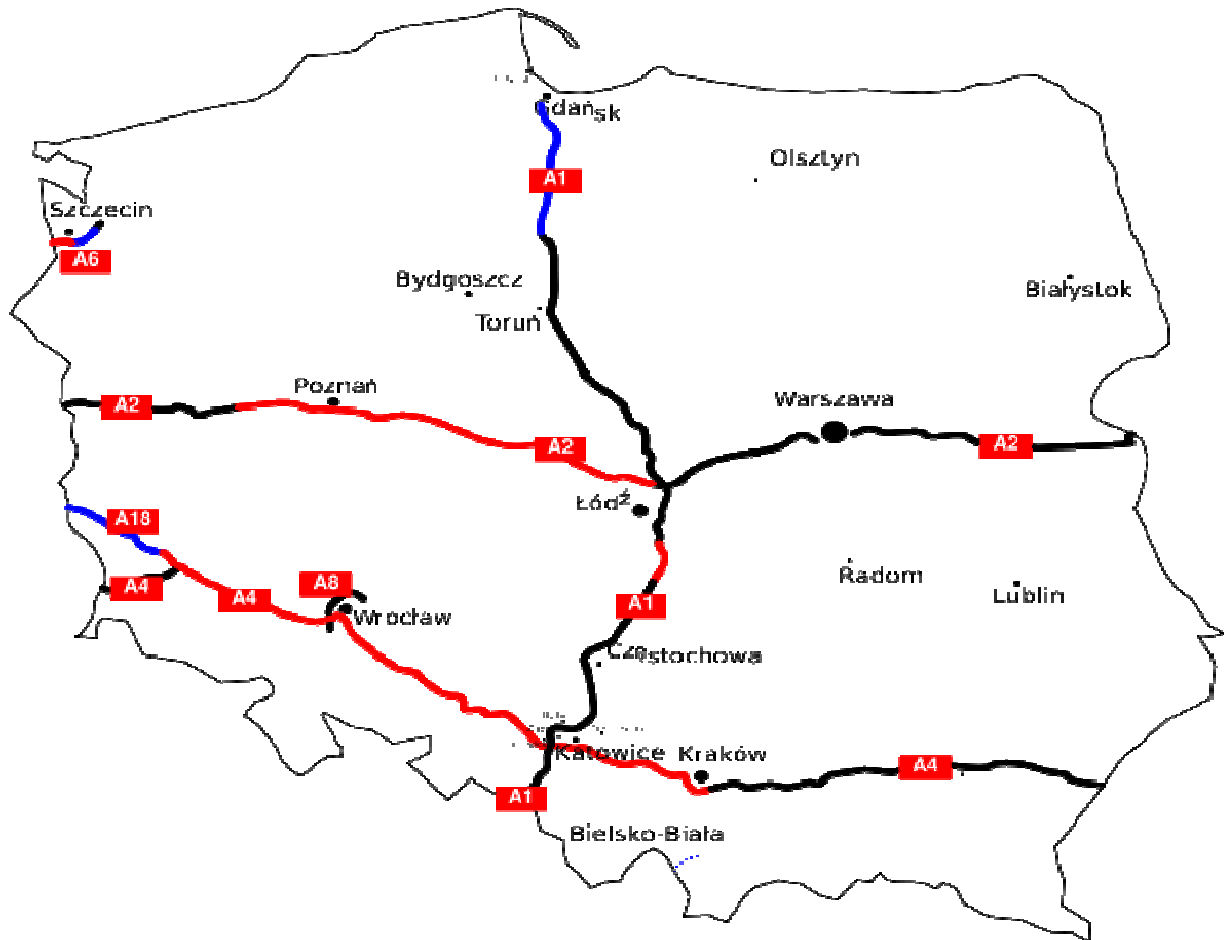
구 분	체크 리스트
토지	- 토지 및 기후 상황, 지형 및 지질의 공장 용지로 적합성 - 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 여부 - 토지 가격 및 관련 세금 등
전기	- 전기의 안정 공급 가능성 및 자가 발전 필요 여부 - 전력 요금 체계 및 세금 - 사용량 예측 및 비용 산출
용수	- 용수의 안정 공급 가능성 및 저수 시설 필요 여부 - 공사비에 수반되는 부담금 및 공사 기금 - 상수도 요금 체계 - 사용량 예측 및 비용 산출
운수	- 원자재 조달용 수송 수단 및 수송 소요 시간 - 제품 수송용 국내 교통 수단과 소요 시간 - 신뢰할 수 있는 운송업자 확보 가능성 - 항만, 공항 적하장 등의 취급 상황 - 해상, 항공 및 육상 수송의 소요일수 및 요금 체계 - 통관상의 애로 및 대책
통신	- 통신 사정 및 요금 체계 등
노동력 확보	- 투자 지역의 통근권 내 노동 인구, 실업률, 연령 분포 - 인근 공장의 노동력 확보 상황 - 인근 공장의 작업 내용 및 임금 수준

특히,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및 완제품의 수송을 위한 교통망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폴란드의 도로망이 전반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현재 폴란드에서 도로는 화물 수송의 주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중량 기준 총 화물 수송의 76.8%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망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각 고속도로 별로 일부 구간이 개통되어 운영되는 상황이다. 투자 기업으로서는 이미 개통되었거나, 조만간 개통될 고속도로와 연결이 용이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부자재 운송이나 생산제품을 서유럽 등지로 수출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현재 공사 중(일부 구간 개통)인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다.

폴란드 고속도로 현황



- A1 남북 노선: 북쪽 발트해 연안 그단스크와 남쪽 체코 접경 도시 연결, 총 길이 564km
- A2 동서 노선: 독일 국경에서 중부의 포즈난과 바르샤바를 통과, 벨로루시 국경까지 연결, 총 길이 651km (상당 구간 개통 운영 중)
- A4 서-남동 노선: 독일 국경에서 남부의 카토비체와 크라코프를 통과,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연결, 총 길이 779km (상당 구간 개통 운영 중)

나. 지역별 투자 여건

우선 진출을 고려해 볼 만한 지역으로는 정부에서 지정한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이하 SEZ)이나 산업단지(Industrial Park)를 들 수 있다.

1) 경제특별구역

경제특별구역(SEZ)은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별도의 행정 구역으로 폴란드 전역에 걸쳐 14개 SEZ(기술단지 1개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SEZ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금 면제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투자 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1월 1일부로 지역별 인센티브 지원율이 일부 변경되었고, 2013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아래 외 지역에서는 적격 투자 비용의 50%까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그단스크, 브로츠와프, 포즈난, 카토비체 지역에서는 적격 투자 비용의 40%, 수도인 바르샤바 지역은 30%까지 면제
- 또는 투자 기업은 2 년에 걸쳐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한 노동 비용의 50%(상기와 같이 지역별 지원을 차등)까지 조세(법인세, 개인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새 일자리는 최소 5 년간 유지되어야 함

또, 지방 정부로부터 부동산세 면제, 직업 훈련 보조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폴란드 경제특별구역 현황

특구명	유효기한	총 면적(ha)
SEZ "Euro-Park" Mielec	2015	739.23
Katowicka SEZ	2016	1077.24
Suwalska SEZ	2016	331.00
Legnicka SEZ	2017	441.93
Walbrzyska SEZ	2017	492.61
Lodzka SEZ	2017	337.60
Kamiennogorska SEZ	2017	250.89
Kostrzynsko-Slubicka SEZ	2017	462.56
Slupska SEZ	2017	167.89
SEZ "Starachowice"	2017	351.48
Tarnobrzaska SEZ	2017	828.80
Warminsko-Mazurska SEZ	2017	372.10
Pomorska SEZ	2017	348.37
Krakowski Park Technologiczny (Cracow Technology Park)	2017	122.35

주: 각 특구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폴란드 투자청 홈페이지(www.paiz.gov.pl)를 참조

메뉴 중 Regions > Special Economic Zones > 개별 특구로 검색

자료: 폴란드 투자유치청

투자기업이 SEZ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SEZ 관리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당국은 입찰이나 협상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한다. 입주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약 3개월이 소요된다.

- SEZ 당국과 접촉 및 입주 신청
- 신청에 대한 심사
- 추가 서류 준비
- 투자가 수용에 대한 최종 결정(입찰)
- SEZ 내 사업 활동 허가서 발급

2) 산업 단지

산업 단지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폴란드 전역에 30개 정도가 있다. 산업단지 중 일부는 SEZ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크라코프 기술단지(Cracow Technology Park)가 대표적이다.

산업단지 입주 시 이점으로는 일반적인 투자 보조금 혜택과 함께 부동산세 감면, 에너지, 난방, 용수 등 유틸리티의 저렴한 공급 등을 들 수 있다. 단지 운영 당국이 단지 내의 도로 등 인프라 구축 및 개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유리한 점이 된다. 개별 산업 단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폴란드 투자 유치청 홈페이지(www.paiz.gov.pl)에서 메뉴 중 Regions > Industry and Technology Parks > 개별 단지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다. 기 진출 외국 기업의 주요 투자 지역

현재 외국 기업의 투자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바르샤바 시에서 1~2 시간 거리의 주변 도시, 독일 및 체코 국경과 인접한 남부의 브로츠와프 市(Wroclaw) 근방, 체코, 슬로 바키아와 인접한 카토비체 市(Katowice) 근방, 그리고 중부의 우지市(Lodz) 등이다.

한국 투자 기업을 보면, 바르샤바 근처 1~2시간 거리에 LG전자 무와바,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이 나와 있고, LG디스플레이, LG전자 등은 브로츠와프 근교에 대규모 생산 단지를 설립했다.

(자료: 폴란드 투자유치청 등 자료 종합)

7. 노무관리

가. 노동법 주요 내용

1) 채용 및 고용 계약

- 고용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히 정해진 고용 계약 양식은 없다. 고용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고용 계약의 종류, 계약 발효일, 근무 조건, 급여 등을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업무의 종류, 업무 장소, 근무 시간, 근무 시작일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 노동법에 의하여 종업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동 손실이 현찰과 같이 종업원에게 위탁된 것이거나 고의에 의한 손실이 아닐 경우 종업원은 3개월 급여 범위 내에서 변상토록 되어 있다.
- 2003년부터 임시고용법(Temporary Employment Act)에 의하여 파견 근로제가 도입 되어 파견 근로업체를 통해 임시로 종업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 사용 업체는 파견 근로업체와 업무의 종류, 요구되는 자격 수준, 업무 기간 및 근무 시간 등을 포함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은 파견 근로업체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급여는 폴란드 주위티화(PLN)로 지급해야 한다.

2) 법정 근로시간

- 피고용자의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동법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불가피하게 업무의 지속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근로 시간의 초과가 가능하다.
- 초과 근무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활동이 필요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보호 혹은 긴급 보수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 고용주의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 초과 근무 시간은 단체 협약, 고용주 업무 규정, 고용 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으면 연중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48시간을 넘길 수 없다.
-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근무일 야간,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급여의 200%
 - 위에 명시된 시간 외 추가 근무 시 급여의 150%
-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는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고용주의 필요에 의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근무일에 셀 수 있다.

3) 휴가

- 모든 종업원은 매년 유급 연차 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 휴가 일수는 10년 미만 근무 시 20일이며, 10년 이상 근무 경력 시 26일이다. 근무 경력에는 직장 경력뿐만 아니라 교육 기간도 포함되는데, 예컨대 고등학교 인문 과정은 4년, 정규 대학 과정은 8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각급 학교의 근무 경력 인정 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정규 대학 과정을 마치고 처음 입사를 하는 종업원은 근무 경력 8년을 인정 받아 연간 20일 휴가가 주어지며, 2년을 더 근무하면 근무 경력 10년을 채워 연간 26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출산 휴가는 첫 아이의 경우 16주, 둘째부터는 18주이며, 쌍둥이의 경우 26주이다.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 최소 2주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출산 휴가 기간 중 연 33일까지는 급여의 100%를 지불해야 한다.

- 병가와 관련, 종업원이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가는 경우 연 33일까지는 급여의 80%를 지급해야 한다. 출퇴근 시 사고나 장기 기증 등으로 병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연 33일 까지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

4) 해고

- 고용 계약의 해지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사전 서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서면 통지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 사전 서면 통지 기간은 고용 계약의 종류, 직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종업원은 사전 서면 통지 기간에도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사전 서면 통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3일 계약 기간이 2 주 이내일 경우
 - 1주일 계약 기간이 2 주 이상, 3 개월 이내일 경우
 - 2주일 계약 기간이 3 개월일 경우 또는 계약 기간이 무제한에 근무 기간이 6 개월 이내
 - 1개월 계약 기간이 무제한으로 근무 기간이 6 개월 이상 3 년 이내일 경우
 - 3개월 계약 기간이 무제한으로 근무 기간이 3 년 이상일 경우
- 한편, 다음의 경우 사전 서면 통지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
 - 종업원이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경우로, 기본적인 의무 불이행(근무지 내 음주, 근무지 무단 이탈, 업무 불이행), 고용 기간 중 명백한 범죄 행위, 그리고 직위가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을 때 등이다.
 - 종업원의 실책이 없어도 근무 기간이 6 개월 이내이며 병으로 인해 3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근무기간 6 개월 이상이나, 질병으로 총 3 개월 간 근무를 할 수 없고, 급여, 치료비 등 혜택을 받았을 때, 기타 사유로 1 개월 이상 근무를 못할 때 등이다.
- 단, 사전에 서면 통지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할 수 없다.
 - 피고용자가 연차 휴가 또는 출산 휴가일 경우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병가 중일 경우
 - 정년 임기를 마칠 경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년이 4 년 이내로 남았을 때
 - 임신 중인 경우

나. 임금 수준

2008년 폴란드의 전체의 월 평균 임금은 2,908.26 PLN(주위티)로 전년 대비 8.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평균 임금은 ‘gross’ 개념으로 피고용자 부담 사회보장세와 개인 소득세 등이 포함 되며, 상여금 일부(payments from profit)도 포함된다. 단,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19.8%~22.7%)는 gross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임금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부문은 건설업(12.7%), 부동산(10.88%), 수송, 보관 및 통신(10.57%)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임금을 하회하던 제조업의 평균 임금은 2008년 들어 평균 수준으로 상승했다.

주요 업종별 월평균임금 현황

(단위: PLN, %)

업종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2,583.32	2,691.03	2,908.26
광업	4,185.35	4,941.78	5,453.40
제조업	2,395.32	2,661.71	2,907.11
전기, 가스 및 수도	3,458.20	3,742.17	4,120.90
건설업	2,483.31	2,975.01	3,354.42
상업 및 수리업	2,417.10	2,709.83	2,959.76
호텔 및 레스토랑	1,899.04	2,096.16	2,262.94
수송, 보관 및 통신	2,834.35	3,120.12	3,449.99
부동산	2,607.05	2,966.43	3,289.03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2009

지역별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외국계 기업 사무소가 많이 있는 수도 바르샤바 지역이 4,185주워티로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평균 임금을 기록하고 있다. 2위는 조선, 물류 및 IT 산업이 발달해 있는 발틱해 연안의 그단스크 지역이며, 우리 기업기 한창 진출 중인 카토비체 지역이 3,594주워티로 3위,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투자한 브로츠와프 지역이 3,383주워티로 다음을 잇고 있다.

지역별 월평균임금 현황 (2008년)

(단위: PLN)

지 역	주 (행정구역)	평균임금
중부지역	Lodzkie (주도 우찌)	2,938
	Mazowieckie (주도 바르샤바)	4,185
남부지역	Malopolskie (주도 크라쿠프)	3,141
	Slaskie (주도 카토비체)	3,594
동부지역	Lubelskie	2,943
	Podkarpackie	2,774
	Podlaskie	2,935
	Swietokrzyskie	2,949
북서지역	Lubuskie	2,842
	Wielkopolskie (주도 포즈난)	3,089
	Zachodniopomorskie	3,080
남서지역	Dolnoslaskie (주도 브로츠와프)	3,383
	Opolskie	3,079
북부지역	Kujawsko-pomorskie	2,849
	Pomorskie (주도 그단스크)	3,357
	Warminsko-mazurskie	2,801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2009

다. 노동조합 및 기타 사항

1) 노동조합 관련

폴란드에서 모든 피고용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폴란드 헌법,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최소 10명 이상의

피고용자에 의해 결성될 수 있다. 피고용자 또는 노동자는 노조 가입 또는 거절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노조 가입을 고용이나 승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노조의 간부는 해고 등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노동법이나 노동조합법은 여러 사항에서 노조와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과잉 인력 해고 등의 경우 노조와의 협의를 필요하며, 인수합병(M&A)에는 일반적으로 노조의 협조가 필요하다.

최근 폴란드에서 노조의 위상은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영 기업의 경우 아직 노조의 위력이 상당하나, 민간 기업에서 노조의 지위나 역할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 부문 노조의 약세는 높은 실업률 등에 원인이 있는데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우려하여 사용자 측과의 마찰을 꺼리고 있다.

한편, 폴란드에서는 자유 노조(Solidarity)가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는 등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거나 실제 폴란드에서 파업을 비롯한 노사 분쟁의 빈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 분쟁 통계

연 도	파업 건수	파업 근로자 수(천 명)
1999	920	27.1
2000	44	7.9
2001	11	1.4
2002	1	0.01
2003	24	3.0
2004	2	0.2
2005	8	1.6
2006	27	24.6
2007	NA	NA

주: 2006년 공공 보건 분야 등에서 파업 발생
자료: 폴란드 통계청, 2008년 이후 통계치 미발표

노사 분쟁은 기본적으로 노사 양측의 협상을 통해 해결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 양측은 의견 차이서(protocol of opinion differences)를 작성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밝히고 조정(mediation) 절차를 밟게 된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조정자(mediator)를 선택하게 되는데 경제노동부가 준비한 명단 중에서 선택 하거나, 경제노동부가 제안하는 사람을 택할 수도 있다.

조정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노사 양측은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중재(social arbitration)를 요청할 수도 있다. 중재위원회는 1명의 심판관과 6명의 위원(노사 양측에서 각 3명 지정)으로 구성되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중재가 시작될 때 노사 양측이 이를 따르기로 했으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2) 기타 노무 관련 유의 사항

폴란드의 경우 낮은 노동 비용이 투자 메리트의 하나가 되고 있으나, 실제로 임금 외에 사회보장세 등 부대 비용이 높음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률은 임금의 19.8%~22.7%에 달하고 있다.

또한, 외국 투자 기업 진출 확대, EU 확대에 따른 서유럽 노동 시장의 점진 개방으로 폴란드 노동력이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어 노동력 확보 여건이 불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면적인 실업률과 노동 인구 등 통계를 무조건 맹신하면 곤란하다.

노무, 공장 작업 환경 등의 측면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현지 변호사 등과의 협력 체제를 미리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

(자료: 폴란드 통계청, 투자유치청 등)

8. 조세제도

가. 조세 제도 개요

- 폴란드의 조세 제도는 폴란드 전역에 걸쳐 균등하며, 다만, 지방세의 경우 약간 차이가 있다. 외국 투자기업의 경우 폴란드 국내법인과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있어 차이가 없다. 폴란드의 주된 세금으로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물품세, 인지세 등이 있다.
-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코자 하는 모든 회사들은 소재지 지방 세무서 등록 후 납세자 번호(NIP)를 부여 받게 된다. 법에 의해 회사들은 자신들의 계정을 두고 세금을 독립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 폴란드의 조세 관련 행정기관으로는 세무서(tax office), 조세국(tax chamber),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있다. 세무서는 관할 지역(지방)에서 세금 징수를 맡고 있으며, 조세국은 세무서들을 관리 감독하고 세무서의 행정 결정을 평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재무부는 폴란드의 예산 정책을 총괄하며, 조세 체계 전체를 관리 감독한다.

나. 법인소득세(CIT; Corporate Income Tax)

- 폴란드는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의 목적으로 2004년 1월부터 법인세율을 19%(단일 세율)로 인하했다. (2003년 법인세율은 27%)
- 과세 대상 소득은 과세 연도(tax year)에 벌어들인 모든 수익의 총합에서 공제 대상 비용, 추가적인 특정 비용(예컨대 공제 대상 기부금 등)을 차감한 소득이며, 이것이 과세 표준 산출의 기본이 된다. 본사가 폴란드에 있는 회사는 폴란드를 포함한 전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의 대상이 되며, 본사가 해외에 있는 법인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을 경우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의 대상이 된다. 법인세의 과세 체계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총 수익 - [공제 대상 비용 + 이월 결손금(5년 내) + 소득 공제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 공제 대상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각종 경비: 원자재 구입, 에너지 사용, 수송비 등
 - 종업원 급여 및 사회보장세
 - 감가상각

- 리스 비용
 - R&D 비용
 - 공제 가능 기부금 등
-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비공제 비용)의 주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고정자산 취득, 창출 또는 개선을 위한 지출
 - 벌과금
 - 주식, 채권 구입비
 - 일부 기부금 및 선물 구입비
 - 수익의 0.25%를 초과하는 광고 선전비
 - 회원 가입비: 가입이 의무 사항이 아닐 경우
- 고정 자산과 무형 자산은 감가상각 공제의 대상이 된다. 자산의 가액이 3,500주워티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 시점에서 전액 상각 또는 임의의 상각률 적용이 가능하다. 토지와 같은 특정한 자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요 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률(depreciation rate)은 다음과 같다.
- 건물: 1.5~10%
 - 사무기기: 14%
 - 컴퓨터: 30%
 - 자동차: 20%
 - 플랜트 및 기계: 5~20%
- 한편, 손실 처리와 관련하여 법규에서는 납세 기업이 손실을 미래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소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 회계 연도에 총 손실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차후 5년간 이월 처리가 가능하다.
- 일반적으로 역년(曆年, calendar year)이 과세 연도가 된다. 그러나, 납세 기업은 12개월을 대상으로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 한편,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배당금에 대한 과세: 폴란드에 적을 둔 법인의 이익 분배를 통한 소득(배당 소득 등)에 대해서는 19%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되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의해 송금된다.
 - 이자, 로열티, 무형 서비스에 대한 과세: 일반적으로 이자는 소득이면서 공제 대상 비용으로 간주된다. 즉, 이자는 채무자에게는 공제 대상 비용이 되며 채권자에게는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 해외에 있는 법인에 지급되는 이자는 20%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로열티와 무형 서비스(컨설팅, 회계, 시장조사, 법률서비스 등)의 경우에도 20%의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개정 법인세법(2004.11.18)은 이자와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의 점진적인 인하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2005.7.1일~2009.6.30일 중 10%, 2009.7.1일~2013.6.30일 중 5%, 2013. 7.1일 이후 면제하기로 되어 있다.
- 폴란드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 따라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낮아지게 된다. 협정에 의거,

한국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현재 배당금 5/10%(수혜 업체가 지급 업체의 지분 10% 이상 보유 시 5% 적용), 이자 0/10%(정부/지방 기관, 중앙은행에 지급 시 0% 적용), 로열티 10%로 되어 있다.

다. 개인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 폴란드의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개인은 유한 또는 무한 조세 책임을 갖게 된다. 특정 개인의 조세 지위(tax status)는 개인이 폴란드에 '거주지'(place of residence)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폴란드에 거주지가 없는 개인(주로 외국인 임)은 비거주자로 인식되어 유한책임 납세자가 되며,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반면, 거주지가 있는 개인(주로 내국인 임)은 거주자로 인식되어 무한책임 납세자가 되며, 폴란드를 포함한 전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
- 일반적으로 개인이 받는 모든 소득과 이득(benefit)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데 소득에서 공제되는 사항(possible deduction from income)은 다음과 같다.
 - 기부금(자연인에 대한 기부는 제외, 2005년부터 소득의 6%까지 인정)
 - 폴란드 사회보장제도 관련 납부금
 -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용비(2005년부터 연간 760주워티까지 인정) 등
- 또한, 과세액에서 공제(possible tax deduction)가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폴란드 건강보험에 납부한 보험료(건강보험 산출 표준의 7.75%까지)
 - 자선 단체에 대한 헌금 (최종 과세액의 1%까지) 등
- 폴란드 개인소득세는 누진세로 2008년까지 4개의 구간에 0%~40%가 적용되었으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로 0%~32%의 인하된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인 소득세 세율(2009.01.01시행)

과세표준(PLN)	세율	세금 납부액
0~3,089	0%	0
3,089~85,528	18%	3,089 초과액의 18%
85,528 이상	32%	85,528 초과액의 32% + 14,839.02 PLN

- 상기 표에 나타난 소득세율은 개인의 총 소득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개인 소득세법에서는 특정한 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폴란드 및 해외에서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19%를 과세하며, 부동산 판매를 통한 이익에 대해 10%를 과세한다.
- 개인에 대한 과세 연도는 역년(曆年, calendar year)이 된다. 개인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납부하며, 폴란드 고용주들이 피고용원의 보수에 대한 세액을 산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라. 부가가치세(VAT)

-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라 2004년 5월 1일 이후 부가세(VAT) 법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현재 폴란드의 규정은 EU에 규정에 기반하고 있다. EU 가입 후 부가세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고 EU 회원국과의 수출입은 역내(intra-community) 공급 및 인수로 대체되었다.

- 부가세(VAT, Tax on goods and services)는 폴란드에서 물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부과되는 광범위한 조세이다. 법인은 연간 매출이 1만 유로를 초과하면, 부가세 대상 업체로 등록되어야 한다.
- 부가세 기본 세율은 22%이며, 이 세율이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 단, 일부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부가세율이 인하되어('reduced VAT rate') 과세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물품/서비스별 부가세율 현황

세율	물품 및 서비스
22%	- 기본세율, 대부분 품목에 적용
7%	- 일부 식품 - 약품 및 보건 관련 제품/ 비료 - 일부 아동용품 - 호텔 및 케이터링(catering) 서비스: 2007년 말까지 - 건설 및 주택 관련 보수 서비스: 2007년 말까지 - 일부 수송 서비스 - 도시 서비스(상수, 하수처리, 도로 유지 등)
0%	- EU 역내 물품 공급, 제품 수출, 일부 국제 운송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 서적 및 특정 잡지(2007년 말까지), 선박 및 항공기용 일부 물품

자료: How To do business, 폴란드 투자유치청

- 일부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문화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등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납세 기업은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구입시 지불 부가세(input VAT 라고 함)를 환급 받을 수 없다. 한편, 2004년 5월 EU 가입과 함께 건축자재,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에 대한 부가세율이 7%에서 22%로 인상됐다.
- 부가세 납부 대상 등록 회사는 구입시 지불된 부가세(input VAT)를 매출 시 징수된 부가세(output VAT)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부가세 납부 업체 사이의 거래는 부가세 송장(VAT invoice)으로 처리해야 한다. 등록된 부가세 납부업체는 매월 부가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부가세 관련 구매 및 판매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수출 기업은 수출 통관 후 수출용 원자재에 부과된 부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과도하게 지불된 구입 부가세(input)도 환급이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은 최대 180일 내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기업이 인화된 부가세율 또는 영세율로 과세되는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거나, 구입 부가세가 고정자산 매입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환급 기한이 60일, 더 짧게는 25일까지 단축될 수 있다.

마. 기타 세제

- 2004년 5월 1일 발효된 새로운 물품세법에 따라 물품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2개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조화된 물품세 제품(Harmonised excise duty goods)으로 석유, 주류, 담배 등 EU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포함하며, 다른 하나는 비조화 물품세 제품(Non-harmonised excise duty goods)으로 자동차, 향수 및 화장품, 전기

등 폴란드 자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들이다. 물품세는 제품 가액의 일정 비율 또는 물량 기준(단위당 고정 비율)에 따라서 산출된다. 재무부 장관은 연중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세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물품세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예컨대 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이다.

- 지방세(Local tax)에는 부동산세, 차량세(트럭과 버스에만 부과됨), 증여세, 산림세 등이 있다. 지방자치체에서 이러한 세금들에 대한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회나 재무부 명령에서 정한 최고치를 초과할 수는 없다.
- 인지세(Stamp duty)는 행정 행위 등에 부과되는데 여기에는 공적인 신청, 공적 행위, 증명서, 허가 등이 포함된다.

자료: 폴란드 투자유치청(PAIIIZ), “How to do business” 등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관리

폴란드는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대부분의 경제 시스템을 EU기준에 맞추고 있으며 외화거래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약이 없다. 다만 폴 내에서의 외화 거래 시 중앙은행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등록절차이며 폴란드 내 외화거래 통계 집계를 위함이다.

2002년 10월 발효된 외환법(Foreign Exchange Law)이 현재 외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외환법은 외환 거래의 유형을 1)EU 회원국 및 특정 비회원국(OECD 국가 등)과의 외환 거래, 2)BIT 국가(폴란드와 투자 협정을 맺은 국가로 非OECD) 및 여타 非EU 국가와의 외환 거래로 크게 나누고 있다.

1) EU 회원국 및 특정 비회원국(OECD 국가로서 EU가 아닌 국가)과의 외환 거래

이 국가들과의 외환 거래는 자유화되었다. 특히, 거주자(기업 및 개인)는 인가 없이도 이들 국가에서 은행 계좌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동산 취득, 단기 증권 및 파생 상품 발행과 거래, 단기 증권 및 파생 상품 구매,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차입 등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 국가 출신의 비거주자들은 외환 관련 인가 없이도 폴란드 증권, 채권 및 단기 증권과 파생상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 이 범주에 속하는데다 1989년 폴란드와 투자보호협정도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거주자)이나 주재원(비거주자)의 경우 외환 거래와 관련한 제한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투자 협정은 소득의 송금을 포함한 투자와 관련한 지급(payment)의 태환 가능 화폐로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2) BIT 국가 및 여타 非EU 국가와의 외환 거래

BIT 국가란 폴란드와 투자 협정을 맺은 국가로서 OECD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며 아르헨티나,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이에 해당한다. BIT 국가와의 외환 거래에는

다소의 제한 조항이 수반된다. 예를 들어 BIT 국가에 있는 거주자는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나, 해당국가에서 행해지는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으로 제한되는 것 등이다. OECD나 EEA(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이 아닌 여타 非 EU 국가와의 외환 거래에서 제한의 범위는 가장 넓어진다.

나. 환율 제도

폴란드는 지난 2000년 4월 기존 환율 체제인 관리 변동 환율제(중앙 패리티율 및 $\pm 15\%$ 의 변동폭 운용)를 폐지하고 완전한 변동 환율제를 도입하였으며, 환율은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 현지화가 큰 폭으로 절하되자 정부에서는 적정환율 유지를 위해 EU집행위로부터 받은 EU펀드 자금을 외환시장에 풀기 시작했다.

최근 달러화 대비 주워티화 연 평균 환율

(단위: 주워티/1달러)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환율	4.35	4.09	4.08	3.89	3.65	3.23	3.10	2.42	2.40

주: 2009년 들어 폴 현지화의 급격한 약세로 인해 2009년 5월 기준 월평균 환율은 3.337USD/PLN을 보이고 있음.

다. 자금 조달 방법

우리 기업 현지 법인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현지 은행으로부터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나, 제일 큰 문제는 신용이다.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 본사 보증으로 해서 현지 대출을 받는데 무리가 없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 단계에서는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 현지 법인은 1년 정도 사업을 운영하고 난 뒤 사업 실적(생산, 판매 실적 등)과 담보(부동산 등) 등을 제시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기업의 향후 수익성이 대출 결정에 중요하다는 은행 관계자의 이야기이다.

또한, 우리 투자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하는 해외 투자 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해외 투자 금융이란 해외투자, 해외 사업 등을 하는 국내기업 또는 국내 기업이 출자한 외국 법인이 현지에서 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써 해외 투자 자금 대출, 해외 사업 자금 대출, 국내 기업 출자 외국 법인에 대한 운영 자금 및 시설 자금 대출 등이 있다.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 + 가산율이다.

자료: 폴란드 투자유치청, 중앙은행 및 현지은행 관계자 등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중동부 유럽 지역의 최대 시장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다. 3,800만 명을 넘는 인구는 1,000만을 갓 넘는 주변의 체코나 헝가리와 비교가 무색할 정도이며, 경제규모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3개국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폴란드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발틱 3국, 체코, 슬로바키아 등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유럽에서 수입된 완제품 및 원부 자재가 이들 국가로 재수출되는 물량도 상당하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폴란드 시장을 범 슬라브 시장으로 확대하여 1억의 시장으로 보기도 한다.

나. 변화하는 소비자 구매 성향

EU 가입과 함께 경제가 좋아지고 가계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성향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과거 가격을 중시했던 소비경향은 품질과 브랜드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지 주요 유통업체들은 최근 고가, 고품질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예를 들면, 플라즈마 TV, 홈씨어터 및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20% 정도 높은 유기농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다. 계층별, 지역별로 소득 격차 확대

계층별, 지역별로 시장이 나누어지고 있다. 체제 전환 이후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 수요도 이원화되고 있다. 폴란드에서 부유층은 5%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들은 고급 브랜드 제품 위주로 소비하며, 저소득층은 염가제품 위주로 구매한다. 중산층은 90년대 중반 이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 평균에 비해 구매력이 높은 지역(도시)은 바르샤바를 둘러싼 마조비안 주, 남부 공업 도시 카토비체 중심의 실레시아 주 등이다. 이들 도시에서는 수입 명품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구매력이 낮은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접 경한 남동부와 동부 루벨스키에 주 등이다.

라. 한국 상품 인지도

폴란드에서 한국상품에 대한 시각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삼성, LG 등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덕분에 한국산 제품은 첨단기술과 우수한 품질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전자제품 및 IT 제품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반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제품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으므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과 동일시되는 경향도 있으며 현지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제품 홍보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2. 물가정보

(1 US\$ =2.8503 PLN/ 2009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PLN)
식품류	쌀 1kg	10.00
	계란 12개	5.00
	쇠고기 등심 1kg	55.00
	돼지고기 등심 1kg	13.00
	우유 500ml	1.00
	식용유 1L	7.00
	생수 1L	3.00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20.70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9.95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7.50
	김치찌개 1인분	45.0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500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10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95,000.00
	무연휘발유 1L	4.20
	자동차 등록비	168.0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2500.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5.0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2.80
	시내버스 기본요금	2.80
	택시 기본요금	5.0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0.21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1.05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0.49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80.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9,00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25,900.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32,00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34,20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600.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400.00
임금/노무	대졸 초임(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세전))	6,00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2,50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15,0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18주
	연간 국경일수	10일
	주5일 근무 여부	YES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70.00

3. 바이어 발굴

폴란드 바이어를 발굴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KOTRA에서 제공 하는 해외 시장 조사 서비스(유료)를 이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해외 시장 조사는 업체로부터 의뢰 받아 전세계 KOTRA 해외 KBC를 통해 바이어 조사, 해외 시장 동향을 조사하는 서비스이다. 관심 바이어 발굴 서비스의 경우 관심 바이어를 물색, 접촉하는 과정에서 요청 품목에 대한 폴란드 바이어들의 의견, 시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방법으로는 인터넷 검색, 폴란드 전화번호부 검색, 각종 전시회 디렉터리 입수, 각종 분야별 조합 및 단체 접촉 등이 있다.

가. KOTRA 해외 시장 조사 이용

인터넷(www.kotra.or.kr) 또는 고객센터(서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접촉해서 상담이 가능하다.

지역	연락처
서울, 고객센터	02-3460-7383

나. 인터넷 업체 정보 검색 사이트 이용

1) Panorama Firm(www.pf.pl)

북유럽에서 Yellow page 발간/배포를 전문으로 하는 Eniro Poland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회사명, 품목, 지역에 기반한 업체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검색 방법은 초기화면에서 'Firma/branża/słowo kluczowe'란에 회사명, 업종 또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업체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Miasto/woj./region Panoramy Firm'란에 도시 또는 지역 명을 입력하여 검색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업체 정보 포탈(www.TeleAdreson.pl)

TeleAdreson LLC가 운영하는 업체 정보 포탈 사이트로서 전문(full-text) 검색을 지원하며 연 매출 규모, 설립 연도, 종업원 수 등 개별 업체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검색 방법은 초기 화면 우측단의 'English' 메뉴를 클릭하여 찾고자 하는 검색어 또는 SIC 코드(표준 산업 분류 코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된다.

3) Polish Export Promotion Programme (www.export-import.pl)

동 웹사이트는 독일계 벤처 캐피탈 회사인 Bmp사가 운영하는 폴란드 수출/수입 알선 사이트로서 오퍼 등록, 폴란드 수출/수입업체 카테고리 검색 등을 제공한다.

검색 방법은 초기 화면에서 영문 웹사이트를 선택한 후, 'Firms-Domestic Offers'를 선택하고 화면 하단의 Branch항목에서 찾고자 하는 업종(예: 섬유/돼지고기 등)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된다.

다. 폴란드 전화번호부 이용

매년 발간하고 있는 폴란드 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폴란드 바이어를 검색할 수 있다. 동 전화번호부는 경제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KOTRA 본사 3층에 소재한 무역 정보 자료실을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라. 전시회 디렉터리 이용

폴란드의 3대 전시장은 포즈난 국제전시장(Poznan International Fairs; <http://www.mtp.pl>), 키엘체 국제 전시장(Targi Kielce, <http://www.targikielce.pl>) 및 크라코프 전시장(Trade Fairs in Krakow, <http://www.targi.krakow.pl>)이며 동 전시장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관련 전시회 참가 업체 명단을 입수하여 바이어 발굴이 가능하다.

마. 각종 분야별 상공회의소, 조합, 협회 등 접촉

폴란드에는 지역별, 산업별로 많은 상공회의소나 조합, 협회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체를 접촉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회원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폴란드의 대표적인 상공회의소는 다음과 같다.

- The Polish Chamber of Commerce
 - WWW: <http://www.kig.pl/>
 - Address: Trebacka 4, 00-074 Warszawa, Poland
 - Contact Point: Mr. Wladyslaw Jerzy Wezyk (Director of Foreign Relations)
 - Phone: (48 22) 630 9609
 - Fax: (48 22) 828 4199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관행

1) 수출입 관행

상품의 수출입은 자유로워 무기류, 폭발물 등 특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허가가 필요 없다. 수입 상품의 폴란드 도착 시 운송 서류와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 식품, 의약품 등 현지 승인이나 등록이 필요한 품목은 사전에 수입상을 통해 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2004년 5월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라 EU 공동의 규격 인증 제도인 CE 마크가 폴란드에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CE 대상 품목(기계, 전기전자, 건축자재, 완구 등)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CE 마크가 있어야 한다.

수입품 유통 구조는 수입상→디스트리뷰터→도매상→소매상과 같은 전형적 형태는 아니다. 후르토브니아(Hurtownia, 자체 창고를 보유한 도매상)를 겸하는 전문 수입상이 수입부터 도매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 수입상은 원부자재를 생산 공장에 직접 공급하며, 수입한 상품을 러시아와 주변 동구권에 재수출하기도 한다.

2) 스톡 구매 방식을 선호

국내 시장의 불안정, 대량 주문 생산에 필요한 자금력 부족, 소량 다품종 구매 등의 요인으로 스톡 수입 방식이 성행한다. 디자인, 패션 등 소비 행태가 자주 바뀌는 대부분의 소비재가 이에 해당한다.

3) 불법적 거래에 주의

경제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정상적인 거래가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거래도 엿보인다. 수입 관세 및 부가세 절감을 위한 이면 계약과 거래 대금의 과소 신고(Under-Value Invoice) 요구가 많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지 마케팅 수행에 애로 요인이다.

4) 대금 결제 방식

폴란드 바이어들은 일반적으로 신용장(L/C) 거래를 회피한다. 이는 신용장 개설 시 거래 은행의 현금 담보 요구(110%), 수입상의 자금 부족 등의 요인과 함께 외상 거래를 선호하는 동구권의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 것이다. 바이어들은 결제 방식으로 송금(T/T) 또는 외상 거래(D/P, D/A)를 선호한다. 바이어가 제품을 마음에 꼭 들어 할 경우 L/C 거래를 수용하기도 하나, 거래가 누적되면 현금 분할 지급이나 외상 거래와 같은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결제 방식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관행을 보면, 초기 거래의 경우, 대금의 10~3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제품이 선적되어 폴란드 항구 도착 직전 또는 직후에 지급하는 방법(해상 운송의 경우), 또는 나머지를 선적 전에 지급하는 방법(항공 운송의 경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잔금 입금한 후 B/L을 보내게 됨).

한편, D/P나 D/A 거래의 경우 위험이 발생하므로 초기 거래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한 경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도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대금의 10~30%를 선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D/A 60일 조건으로 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하다.

L/C 개설만 고집하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우리 기업은 바이어의 외상 거래 요구를 무조건 기피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거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보험과 같은 안전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비즈니스 에티켓

1) 복장

비즈니스 상담 또는 면담을 할 때는 정장에 넥타이를 매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바이어나 우리 기업인이나 마찬가지이다.

2) 인사

호칭은 남성은 Mr.(폴란드어 Pan, 판), 여성은 Ms.(폴란드어 Pani, 파니-결혼 여부에 관계

없음)를 이름 앞에 붙인다. 또는 직위를 이름 앞에 붙여 불러도 좋다. 간단한 폴란드어 인사말을 익혀 만나거나 헤어질 때 말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 간단한 폴란드어 인사말
 - 안녕하세요?: 지엔 도브리 (Dzien Dobry)
 - 감사합니다: 지엔쿠예 (Dziekuje)
 - 작별인사(다시 만날때까지): 도 비제니아 (Do widzenia)

남성들은 악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법이다. 악수는 손을 지긋이 잡고 가볍게 흔드는데, 상대방의 손을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안된다. 손을 오래 잡고 있는 것은 게이들이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여성과 인사할 때 남성은 인사말과 목례로 인사를 하며, 악수는 여성이 청할 때(즉, 손을 내밀 때)에만 한다.

또한 실내로 들어서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는 지위나 연령의 고하에 관계 없는 예절이다.

3) 선물

폴란드에는 처음 만난 사람(바이어)에게 선물을 주는 전통이 없기 때문에 초면의 바이어에게 너무 과한 선물을 주면 오히려 당황할 수 있다. 바이어에게 자사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고 싶다면 회사 로고가 표시된 판촉물(펜, 노트, 작은 달력 등) 정도가 무난하다. 거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진 사업 파트너 관계라면 선물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할 만한 선물로는 인삼 제품, 한국 전통 공예품, 전통술 등이 있다.

4) 약속

기업인(바이어)과 면담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 1주 전에는 연락해 두어야 한다. 전화보다는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명확하고 안전하다. 정부 기관을 방문하거나 공무원과 면담 요청을 하려면 최소 2주 전에는 이메일이나 레터를 보내야 한다. 특히 정부 기관(공무원)은 면담 목적을 검토하고 가장 적합한 담당자를 물색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면담을 확인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대체적으로 폴란드인은 느긋한 성격이기 때 문에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하며, 회신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전화 등으로 재촉한다면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된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준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약속 시간보다 늦었을 때는 늦은 이유를 설명하고 미안함을 표시해야 한다. 또,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5) 식사

폴란드인은 따로 가리는 음식이 없으므로 특별히 피해야 할 음식은 없다. 최근 폴란드인 중에서 초밥(스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식도 아주 매운 음식 외에는 잘 먹으므로 한국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해도 무방하다(바르샤바 내 대부분 한국 식당은 한식과 일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식사할 때 마시는 술로는 맥주나 보드카가 대표적이다. 폴란드인은 식당 등에서 정찬을 할 경우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즐기는 편이다.

다. 문화적 금기 사항

특별히 금기라고까지 할 만한 사항은 없으나, 현지 문화 상 주의할 만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 유럽 사회는 일반적으로 사생활을 중요시하므로 개인적인 질문은 좋지 않다. 폴란드인은 처음 만난 사람과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내용 -예를 들어 남자(여자) 친구, 남편(부인) 관련 사항, 자녀 관련 사항, 나이, 월급 등 금전 관련 사항, 그리고 종교, 정치 관련 사항 등-에 관해 묻거나 대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대중 장소에서 가래침을 뱉지 않는다.
- 식사 때 소리 내어 먹지 않는다.
- 손으로 음식을 집어 주지 않는다.
- 공공장소나 다른 사람 앞에서 신발을 벗지 않는다: 폴란드인은 신체 중에서 발을 ‘불결한 것’으로 인식하므로 잘 노출하지 않는다.
- 사람 몸에 손대는 것(touching): 잘 모르는 사람이 몸에 손대는 것을 싫어한다.

라. 바이어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간단한 폴란드어 인사말을 구사하거나, 폴란드가 배출한 세계적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화기애애하게 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 폴란드의 위인으로 코페르니쿠스(지동설), 쇼팽(피아노의 시인), 퀴리 부인(노벨상 2회 수상),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을 언급하면 좋다. 그러나 한국에 잘 알려진 자유 노조 지도자 바웬사에 관해서는 국민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데다 고학력층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므로 언급을 피하는 게 좋다.

상담할 때는 바이어를 고객으로서 존중하고, 말이나 행동에서 실례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 우리 기업이 한국에서 일류 기업이라고 해서 바이어에게 우월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바이어를 앞에 두고 동료와 한국말로 대화하는 것은 실례이므로 삼가야 한다.

바이어와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폴란드에서는 대화하면서 눈길을 피하는 것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모든 바이어를 똑같이 존중해야 하며, 직원 수가 적다는 등 과소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 폴란드에는 직원 숫자가 적다고 해도 큰 매출 실적을 올리는 업체가 많다. 바이어와 상담 전후에 가볍게 한담을 나눌 때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소재를 화제로 할 수 있으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폴란드 바이어들은 제품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독점 에이전트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실정에 밝은 현지 업체의 활용이 권장되나, 거래 초기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거래 관계도 없이 에이전트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2년간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은 다음 에이전트 지정을 협의하거나 조건부로 부여하는 것이 좋다.

현지의 일부 기업인은 아직도 사회주의 당시의 구습과 슬라브족다운 느슨한 기질의 영향으로 무책임하게 약속하고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문서로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폴란드 바이어들은 일반적으로 신용장(L/C) 거래를 꺼린다. 이는 신용장 개설 시 거래은행의 현금 담보 요구(110%) 등과 함께 외상 거래를 선호하는 동구권의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

른 것이다. 바이어들은 결제 방식으로 송금(T/T) 또는 외상 거래(D/P, D/A)를 선호한다. 바이어가 제품을 마음에 꼭 들어 할 경우 L/C 거래를 받아들이기도 하나, 거래가 계속되면 물품 현지 도착 후 지급이나,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무역 관련

1) CE 마크를 비롯한 인증이 진입 장벽으로 부상

일반적으로 상품의 수출입이 자유로워 무기류, 폭발물 등 특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허가가 필요 없다. 상품의 폴란드 도착 시 운송 서류와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식품, 의약품, 일부 자동차 부품 등 현지 승인이나 등록이 필요한 품목은 사전에 수입상을 통해 관련 절차를 밟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2004년 5월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라 EU 공동의 규격 인증 제도인 CE 마크가 폴란드에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CE 대상 품목(기계, 전기전자, 건축자재, 완구 등)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CE 마크가 있어야 한다.

2) 대금 결제 방식

폴란드 바이어들은 일반적으로 신용장(L/C) 거래를 회피한다. 이는 신용장 개설 시 거래 은행의 현금 담보 요구(110%), 수입상의 자금 부족 등의 요인과 함께 외상 거래를 선호하는 동구권의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 것이다.

결제 방식과 관련하여 일반적 관행을 보면, 초기 거래의 경우, 대금의 10~30%를 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제품이 선적되어 폴란드 항구 도착 직전 또는 직후에 지급하는 방법 (해상 운송의 경우), 또는 나머지를 선적 전에 지급하는 방법(항공 운송의 경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잔금 입금한 후 B/L을 보내게 됨)

한편, D/P나 D/A 거래의 경우 위험이 발생하므로 초기 거래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도 수출 보험을 활용하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대금의 10~30%를 선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D/A 60일 조건으로 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하다.

현지 거래 관행상 L/C 개설만 고집하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우리 기업은 바이어의 외상 거래 요구를 무조건 기피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보험과 같은 안전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통관 관련

폴란드의 EU 가입과 전산화 진전에 힘입어 통관과 관련한 문제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폴란드의 통관 절차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폴란드 세관 관계자들은 물품 이동의 원활화보다는 불법적인 행위 적발과 검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이며, 이에 따라 통관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된다.

EU 법규에 의하면, 기업들은 EU 역내에서 제품을 통관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통관 문제 때문에 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통관지를 EU 여타 회원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폴란드 로컬 업체들도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에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4) 조달 시장 접근 시 애로 사항

폴란드 내 정부 조달과 관련하여 발표되는 입찰 공고, 세부 요건 등이 모두 폴란드어로 되어 있어서 언어적 장벽이 만만치 않다. EU 관보의 경우 일부 영어로 되어 있으나, 이는 기본적인 내용에 한정된다. 입찰 신청서 제출시 구비 서류를 폴란드어로 번역해 공인을 받아야 하므로 많은 시간 소요된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준비할 때 CE 마크 등 유럽 기준과 폴란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조달 시장은 아직 외국 업체의 진출이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2005년 폴란드 발주처는 EU 관보에 12,380건의 입찰을 공고했는데 이 중 98% 이상을 폴란드 업체가 낙찰 받았으며, 외국 업체가 낙찰된 232건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EU 업체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의료 장비와 의약품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조달 시장은 성격상 장벽이 높은 시장이며, 우리 업체는 폴란드 로컬 업체나 EU 업체에 비해 현지 정보, 인맥, 인지도 등 많은 면에서 불리하며, 사업 경험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단기적으로 입찰에 직접 참가하기가 쉽지 않으며, 현지 사정에 밝은 폴란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간접 참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방식으로는 원 계약 업체에 대한 하도급(sub-contractor) 참여, 원 계약 업체에 물품을 대주는 에이전트(수입상이나 유통상)를 통한 공급, 또는 현지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 참가 등을 들 수 있다.

나. 투자 관련

1) 부가세 환급 관련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부가세(VAT) 환급 기간이 과다 소요되며,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복잡한 상황이다. 또한, 환급 기한인 60일이 준수되지 않아, 실제 환급에 90일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투자 진출 업체의 자금 회전에 애로가 있다. 게다가 수정 신고가 자주 발생하며, 이에 따라 환급이 지연되어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예시: 부가세 환급 절차

통관(부가세 납부)→제조(15일)→출하(1주)→부가세 신고(차월 25일) →
환급(신고 후 60일 / 수정 신고 시 이날부터 60일 기산)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의 경우 원부자재를 폴란드로 들여 오지 않고 부가세 유예 제도가 있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항구를 통해 통관하여 폴란드로 반입하는 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취업 비자 발급 기간 과다 소요

취업 비자 발급 기간이 65일 정도로 많이 소요되어 급여 지급, 공식 업무 수행 등에 차질을

주는 사례가 있다. 폴란드의 취업 허가서 발급이 까다롭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한국 기업의 문제이자 여타 폴란드 진출 국 기업들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관련국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자료: 폴란드 수출, 투자 진출 기업 사례 등)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무역 거래 성공 사례

○○사는 ○○장갑을 전문적으로 생산, 수출하는 견실한 기업이다. 동 사는 일찍이 90년대 중반부터 폴란드 시장 개척을 추진했고, 2003년부터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현지 생산 공장까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까지 ○○사는 폴란드 시장에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물론 이 업체라고 해서 그간 현지 수출 마케팅에서 어려웠던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 국 및 한국 경쟁업체의 저가 제품 공세가 거셌고,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된 점 등은 수출 사업에 내내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현지 시장의 여건에 맞춘 회사의 전략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 이다.

○○사가 폴란드 시장 진출 확대에 성공한 요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품의 우수성이며, 다른 하나는 마케팅 전략이 좋았다는 점이다.

먼저, 제품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첫째, 현지시장에서 브랜드를 꾸준히 알리고 육성했다. 즉,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경쟁 업체의 저가 공세 등에 굴하지 않으면서 제품의 브랜드를 확립하는 데 힘을 기울인 것이다. 둘째, 현지 시장이 저가 중심에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경향에 착안하여 제품의 품질로 승부를 걸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동 사의 제품은 중국산보다 가격이 훨씬 높지만, 품질은 월등하다는 인식을 심는 데 성공했다.

다음으로 현지화 전략과 관련해서 ○○사는 아직 그 규모가 크지 않지만 현지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다.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모로 도움이 되는데 무엇보다 바이어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현지 바이어의 소량 주문에 적극 응할 수 있고, 납기가 단축된다는 점도 큰 강점이 된다. 경쟁업체의 경우 컨테이너 베이스가 아닌 소량 오더를 선뜻 수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납품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 채널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현지 바이어 관리와 시장개척을 위한 경영진의 높은 의지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인이다. ○○사 본사에서 매년 현지 시장에 출장 와서 바이어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돋보이며, 때로는 1개월여 장기 출장을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 등에 힘쓰고 있다. ○○사는 중장기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현지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투자 관련

폴란드 바르샤바 북쪽의 무와바 市(Mława)에 위치한 LG전자 생산 법인은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1999년 3월부터 컬러TV를 생산해 왔다. 생산 제품의 대부분을 서유럽으로 수출하는 데 매년 공장 규모와 매출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05년 4월, LG전자는 향후 유럽의 디지털TV 시장을 주도한다는 전략 하에 제2공장 투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2010년까지 총 1억 1,0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1공장을 포함한 폴란드 생산 법인의 PDP TV 및 LCD TV 생산 능력은 연간 150만 대에서 2010년에는 600만 대로 늘어나게 된다. LG전자는 투자 확대를 통해, 세계 디지털TV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유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2008년 기준 LG전자는 유럽 디지털 TV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3위권이다.

폴란드 정부는 투자 협정에 따라 LG전자의 생산 단지를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로 지정해 법인세 등 세금 감면, 고용 및 교육 지원금 지급,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 측은 LG전자의 투자를 크게 반기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서유럽으로 수출에 따른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2005년 4월 투자 협정 체결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LG전자는 2공장 건물을 설립하고 생산 라인을 6개에서 10개로 늘렸으나 급증하는 오더를 맞추기 위해 2교대나 3교대 작업을 해야 했다. LG전자에서는 LCD TV, PDP TV 등 디지털 TV의 비중이 80%에 달하며, 생산 물량의 90% 정도가 서유럽으로 수출된다.

LG전자 생산 법인의 성공 요인이란, 첫째,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신속히 대응한 점을 들 수 있는데 디지털 TV로의 조류에 빨리 대응하여 생산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었다. 둘째, 빠른 의사 결정과 실행을 들 수 있다. 폴란드 시장 선점은 물론 제2 공장 설립 등도 매우 빨랐다는 평가이다. 셋째로는 밤을 새워 일하는 임직원들의 열정을 들 수 있다.

(자료: KBC 자체 조사)

7. 이주정책 가이드

가. 사증(비자)

한국인의 경우 한-폴란드 사증 면제 조약으로 인해 폴란드에 비자 없이 입국하여 최대 90 일 간 체류가 가능하다.

폴란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비거주자(외국인)가 받을 수 있는 비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시거주 비자(temporary residence visa), 노동비자(Work Visa, a residence visa with a right to employment in Poland), 임시거주 허가(temporary residence permit), 영구 거주 허가 등이 그것이다.

임시 거주 비자는 폴란드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체재할 수 있게 하며, 제한된 기한 동안 유효하다. 이 비자로 폴란드에 들어온 외국인이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2 개월 동안 총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 허가 비자는 폴란드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비자는 회사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주(voivodship) 당국에서 노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의 본국(home country)에 주재하는 폴란드 공관에 의해 발급된다. 비자 갱신의 경우 외국인이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지역을 관할하는 주 당국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

임시거주 허가는 외국인이 거주를 위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받을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로는 폴란드 내 노동허가 발급 또는 사업 수행 등을 들 수 있다.

폴란드에 주재원 또는 취업으로 들어오는 경우 노동 허가 확약(Promise) → 노동 비자(Work Visa) → 노동 허가(Work Permit) → 임시 거주 허가를 받는 절차를 간략히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 비자 면제 협정에 의거 무비자 입국(90 일 체류 가능)
- 주(voivodship) 노동사무소에서 노동허가에 대한 확약증(promise) 취득(약 2 개월 소요)
- 한국 주재 폴란드 대사관에서 노동 허가 비자 취득(약 3 주 소요)
- 폴란드 입국 후 노동 허가 취득(약 4 주 소요)
- 임시 거주 허가증 또는 거주카드 취득(노동 허가, 비자 갱신을 통해 장기 체류 시)

폴란드의 노동 허가나 거주 허가 발급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고 구비 서류도 많으며, 언어상(폴란드어 작성)의 장애도 있다. 노동 허가는 보통 1 년간 유효한 것으로 발급된다.

나. 운전면허증

한-폴란드간 운전면허 상호 승인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 조약에 따르면 일국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타방 체약 당사자의 영역 안에 정착하는 경우, 그 자는 이론 및 실기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거주국의 국내 운전면허와 교환할 권리를 가진다(단, 운전면허의 번역은 요구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위의 경우 주의할 점은 ‘한국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만큼 ‘폴란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해외 근무 기간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주재국의 재발급 절차를 밟아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참고로 외국인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자비 부담으로 통역을 고용하여 시험을 치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일명 제네바 협정) 가입국으로서 국제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다. 이사 화물 탁송

한국에서 폴란드로의 이삿짐 운송(해운 기준)은 약 2개월이 소요된다(한국 내 처리 약 5일, 해상 운송 6~7주, 현지 통관 및 내륙 운송 7~10일).

이사화물 탁송 조건은 door-to-door 방식이 일반적이나 door-to-port로 탁송하고 현지에서 통관 업체를 수배하여 별도 진행하는 방법도 활용이 가능하다.

통상 함부르크 항이 최종 환적항으로 이용되고 최종 도착항으로는 폴란드 그드니아(Gdynia) 항이 이용되는데 통관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함부르크 등으로부터 트럭킹을 이용하여 이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picture)은 폴란드 정부의 검열이 엄격하니 가급적 발송하지 않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주택 임차

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임차하는 주택은 아파트 또는 연립 주택(현지에서는 라인하우스라고 함) 형태이다. 월 주택 임차료는 주택의 위치, 크기 등에 따라 천차 만별인데 바르샤바에 소재한 130 평방미터 아파트의 경우 2,000유로에서 2,500유로 정도이다(2009년 기준).

통상 임차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산출하며, 한국과 같이 공용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관례이다.

아파트 소유주와의 협상을 통해 침대, 냉장고, 소파, 책장, 전자레인지, TV, 청소기 등을 포함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퍼니쉬드’가 일반화된 추세이다. 이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인 쌍방이 사전에 비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모델, 가격, 용량 등)을 협의해서 구입해야 하므로 최종 입주 시까지는 며칠에서 몇 주까지 시간이 소요 될 수도 있다.

임차 계약 기간은 보통 1~3년이며, 임차 기간 중 중도 해약 시에는 2~3개월 전에 사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주택을 임차하게 되는데 이 경우 1개월 임차료(또는 이의 50%)를 중개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이 관례이다. 보증금으로는 1개월 치 임차료를 선금으로 소유주에게 납부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돌려 받게 된다.

관리비는 아파트의 경우 보통 월 임차료에 포함되며, 단독 주택의 경우 관리비는 임차인이 별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전화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 자녀 교육(바르샤바)

폴란드에서 바르샤바 및 그 근교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자녀들을 주로 아메리칸 스쿨과 브리티쉬 스쿨에 보내고 있다. 아메리칸 스쿨은 ASW(American School of Warsaw)와 IAS(International American School of Warsaw) 등 2개가 있다.

학교 시설이나, 교육 수준은 상당히 좋은 편이며, 미국, 영국 등 국가의 대학에서 학력, 성적을 인정하고 있다. 학비는 꽤 높은 편인데 ASW의 경우 1~5학년의 연간 학비가 17,000달러를 넘는다(학비에 포함된 이외 별도의 기부금은 없다). 브리티쉬 스쿨(The British School)의 고등학생 학비는 연간 8,800 파운드 정도이다.(2009년 기준)

ASW는 바르샤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통학 시 승용차나 스쿨 버스(월 이용료 20만원 정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프랑스 학교, 일본 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 인터내셔널 스쿨

학교명	주소	전화/팩스
American School of Warsaw	Bielawa, ul. Warszawska 202, 05-520 Konstancin-Jeziorna	+48 22) 702 8500/ +48 22) 702 8599
The British School	ul. Limanowskiego 15, 02-943 Warszawa, Poland	+48 22) 842 3281/ +48 22) 842 3265
International American School	ul. Dembego 18, 02-796 Warszawa, Poland	+48 22) 649 1440/ +48 22) 649 1445

한편 폴란드에 소재해 있는 전체 국제학교는 폴란드 투자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 홈페이지: <http://www.paiz.gov.pl/index/?id=92049debb566ca5782a3045cf300a3c#1>

바. 전화 신청

외국인이 전화를 신청할 경우는 주택 임차 계약서 또는 소유 증빙서와 여권이 있으면 된다.

거주 지역의 통신회사(TP S.A., Netia 등)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보통 신청 당일 신청 서류 및 전화 연결 가능성(기술적인 면)을 검토한 후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준다. 전화 연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TP SA를 통할 경우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폴란드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이동전화 사용을 원할 경우 이동전화 사업자의 본 지점을 방문하여 이동전화기와 SIM카드 및 선불 카드를 구입하면 구입한 선불 카드 금액 만큼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선불 카드 서비스는 Plus GSM의 Simplus, Era GSM의 Tak-Tak, Centertel의 POP 이다.

사. 자동차 구입

메이커, 모델,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차량 가격이 상이하나, EU 가입 후 현지에 공급되는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현지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대부분 스틱기어이며, 오토 기어는 흔하지 않으므로 가격이 높아진다. 자동차 모델 별 가격은 현지 시장 조사 기관 SAMAR의 홈페이지(www.samar.pl)를 참조하기 바란다.

차량 보증 기간은 통상 3년이며, 차량 보험료는 종합 보험인 경우 연간 600-700달러 내외이다. (2009년 기준)

폴란드에는 현대자동차(판매법인), 기아자동차(판매법인), 시보레가 진출해 있고, 대우의 일부 차종도 생산되고 있어서 한국산 자동차 구입이 가능하다.

아. 은행 계좌 개설

계좌 개설은 간단하다. 여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 신청 당일 계좌가 개설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 단위(유로, 달러 등)를 지정하여 외화 계좌도 개설할 수 있다. 개설된 계좌에 외화 예금을 할 경우 폴란드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한 외환 소지 신고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자. 병원, 약국

현지 병원을 이용할 때는 언어 문제로 의사 소통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하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종합 병원은 다음과 같은데 모두 개인 병원이다.

- LIM Medical Center
 - 주소: UL.Jerozolimskie 65/79, 00-697 Warsaw
 - 전화: 48 22) 458 70 00
 - 웹사이트: www.cmlim.pl
- Medicover
 - 주소: UL.Jana Pawla 27, Atrium, Warsaw
 - 전화: 48 22) 860 82 95
 - 웹사이트: www.medicover.com.pl
- Damian Medical Center
 - 주소: UL.Walbrzyska 46, 02-739 Warsaw
 - 전화: +48 22) 566 22 22
 - 웹사이트: www.damian.com.pl/english

약품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하나, 종합 감기약, 두통약 등은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다. 약국은 “APTEKA” 라는 글씨로 표시되어 있고, 시내 곳곳에 많이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자료: KBC 자체조사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폴란드는 북위 49-54도, 동경 14-24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러시아 및 구 CIS국가의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봄은 통상 3월에 시작되어 5월(또는 6월)까지 이며 평균 기온은 -1℃에서 15℃이다. 여름은 6-8월로서 건조한 편이며 평균 기온은 21-32℃이나 매우 무더울 때는 4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가을은 9월부터 약간씩 추워지면서 시작되며 하루에도 날씨 변동이 심하여 비 오는 경우가 많다. 겨울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주로 날씨가 흐리고 많은 눈을 동반한다. 특히 겨울은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은 편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600mm이고, 평야 지대 500~700mm, 중부 지역 500mm이하, 남부 산악 지대 1,000~1,100mm이다. 평균적으로 우기인 여름철의 강우량은 겨울철의 약 두 배이다. 적설일수는 동남부가 40일 이하, 동북부 90일 이상, 0도 이하 일수는 80~130일이다.

지역별 평균 온도 및 강수량

(단위: 온도(℃), 강수량(mm))

구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간
중부	온도	-4	-2	2	5	13	16	17	19	13	6	2	0	7.8
	강수량	1	21	24	27	57	61	214	23	38	55	39	28	588
북부	온도	-1	2	3	4	9	15	18	20	14	8	4	1	8.4
	강수량	8	23	21	38	89	36	116	4	95	117	31	42	620
중서부	온도	-3	2	3	5	13	16	19	18	13	7	2	0	8.4
	강수량	3	50	20	42	66	86	193	40	33	59	14	32	638
중남부	온도	-6	1	3	5	14	17	17	18	13	6	3	1	8
	강수량	17	50	20	36	65	91	285	49	53	68	54	65	823
서남부	온도	-4	3	4	6	13	17	17	19	14	7	3	0	7
	강수량	5	26	14	50	65	39	238	51	37	42	29	33	629

겨울에는 추. 동복과 오버 코트를, 여름에는 하복을 준비하면 무난하나 여름이라도 아침, 저녁 기온이 10도, 낮 기온이 20도 정도로 하강할 것을 대비하여 가벼운 긴 팔 윗도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봄, 가을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 많아 온도와는 달리 춥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한국의 봄, 가을보다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방수 옷과 우산은 항상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시차/근무시간

현지 시간은 한국보다 8시간 늦으며, 하절기 일광 시간 절약제가 시행되는 기간에는 7시간 늦다. 따라서 한국의 오후 18:00시는 폴란드의 12:00이며 하절기에는 13:00이다. 폴란드의 일광 시간 절약제는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에 한 시간을 앞당기며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한 시간을 뒤로 돌린다. 일광 시간 절약제가 실시되지 않는 겨울철에는 오후 3시만 되어도 어두워져 야외 활동이 어렵다.

관공서의 대민 서비스 업무는 공무원의 근로 시간보다 짧으며 요일마다 시간대가 다른데 평균적인 대민 서비스 업무 시간대는 10:00-15:00이다. 노동법은 일일 8시간 근무 중 15분을 점심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점심 시간은 길어야 30분 내이다. 그러나 민간업체의 경우 업무 성격상 1시간으로 정한 곳도 있다.

주요 기관 및 장소의 통상 근무 시간

기관 및 장소	시 간	비 고
관 공 서	08:15 - 16:15	(토, 일요일 휴무)
은 행	08:30 - 17:00	(토, 일요일 휴무)
국영기업	08:00 - 15:00	(토, 일요일 휴무)
민간기업	08:00 - 16:00	(토, 일요일 휴무)
레스토랑	13:00 - 23:00	(토, 일요일 영업)
주 유 소	08:00 - 23:00	(토, 일요일 영업)
백 화 점	10:00 - 22:00	(토, 일요일 영업)

다. 주요 단위

폴란드 도량형은 미터법을 채택하여 거리, 넓이, 무게, 부피는 각각 m, m², kg, m³ 등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폴란드 전기 규격은 230V, 50 Hz이다. 전원 소켓에 어스용 폴이 돌출된 소켓을 사용한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현지 콘센트에 끼우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터법 단위

길이	mm	cm	m	km
부피	-	cm ³	m ³	-
넓이	mm ²	cm ²	m ²	km ²
무게	mg	g	kg	ton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한국은 폴란드와 비자 면제 협정(1993.12.24 발효)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없이 폴란드에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90일 내) 방문의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단, 한-폴 비자 면제 협정은 현지 취업과 같은 영리 목적의 입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취업, 주재원 파견 등 영리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90일 이상 체류할 때는 적절한 비자 또는 임시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체류 비자에는 체류 목적 별로 취업 비자, 유학 비자, 문화 비자 등이 있으며, 기간별로는 단기/장기 비자가 있다. 단기비자는 최고 6개월(1회 3개월)까지 발급되며, 장기비자는 최고 5년(1회 1년)동안 발급된다.

폴란드 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임시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임시 거류증은 최고 2년까지 받을 수 있고 연장이 가능하나 총 기간이 10년을 넘을 수 없다.

폴란드 비자는 하기의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주한 폴란드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Poland)
 - 주소: 서울 종로구 사간동 70번지
 - 전화: 723-9681
 - 팩스: 723-9680
 - 근무 시간: 09:00~12:00, 13:00~17:00(토,일 휴무)
 - 영사 업무: 10:00~12:00
 - 홈페이지: <http://www.polandseoul.org>

2) 출입국 절차

□ 폴란드 입국 절차

입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항공편으로 입국 시 입국 심사를 거친 후 배기지 클레임(Baggage Claim)에서 짐을 찾아 출구로 나가면 된다.

- 입국 심사: 입국 심사대는 'EU 권 승객'과 'EU 권 이외의 승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국인은 'EU 권 이외의 승객' 데스크로 가면 된다.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 스탬프를 받으면 입국 심사는 끝난다.
- 주의 사항
 - 여권(Passport)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 혹시 수하물 컨베이어에 자신의 짐이 없을 경우에는 CIQ(세관/출입국 관리 구역) 내 배기지 클레임 홀에 위치한 분실물 사무소(Lost Baggage Office)를 접촉한다.
- 세관 검사
 - 배기지 클레임(Baggage Claim)에서 수하물을 찾은 후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녹색 출구("NOTHING TO DECLARE"라고 되어 있음)를 통해 나오며, 바로 공항 대합실과 연결된다.
 - 녹색 출구를 통해 나올 때 세관원이 짐을 보자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만, 세관원이 입국자의 수하물이 너무 많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샘플 등을 카톤 박스에 담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세관원의 주의를 끌 수 있으므로 샘플도 가급적 일반 여행 가방에 넣는 것이 좋다.
 - 한편, 세관에 신고할 물품(면세 반입 한도를 초과하거나, 1만 유로 이상 현금 보유)이 있다면, 붉은색 출구("ITEMS TO DECLARE"라고 되어 있음)로 가도록 되어 있고, 세관 검사를 거쳐야 한다.
 - 특히 2007.6.15부터 외화와 현지화를 합해서 1만 유로 이상의 현금 또는 여행자 수표 등을 소유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일단,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신고를 안 하다 발견되면 그 현금은 압수되고 처벌까지 받게 될 소지가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 국제선 승객이 면세품을 들여올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담배 200개비, 독주(위스키 등) 1리터, 와인 2리터, 맥주 2리터, 향수 50ml 등이다.
 - 상식적인 사항이지만, 마약, 도덕적 또는 환경보호 사유로 금지된 물품, 사람과 동식물에 유해한 물품, 안전이나 공공의 질서를 저해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 주의 사항
 - 샘플을 가지고 왔을 경우 일반 가방에 넣어 녹색 출구로 나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 만약 샘플이 많아서 세관원의 주목을 끌게 되어 가방을 보자고 할 경우에 대비하여 샘플에 대한 송장을 준비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장 명칭은 Non-Commercial Invoice 또는 Invoice 로 하고, 샘플임을 명시하고 가격을 아주 낮게(예: 1달러) 표기한다.

□ 폴란드 출국 절차

항공편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대를 거쳐 나가면 된다. 출국 심사대에는 여권과 항공기 탑승권을 제시한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출국 심사대로 나가면 된다. 단, 1만 유로 이상의 외화나 영리 목적의 물품, 또는 1945년 이전 제조 물품과 같은 수출 제한 물품을 가진 승객은 붉은색 세관 검사("GOODS OR CURRENCY TO DECLARE"라고 표시)를 거치게 되어 있다.

3)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방법

공항에서 175번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 지하철, 전차(트램) 등은 공항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공항에서는 청사를 나오면 바로 택시 스탠드를 볼 수 있고, 택시들이 대기해 있다. 공항~시내 간의 요금은 통상 40주워티(원화 약 16,000원)을 잘 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택시 지붕에 번호(예: 9644, 19191 등)가 쓰여져 있는 택시를 타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은 택시를 탈 경우 바가지 요금에 시달릴 수 있다.

마. 환전

1) 통화 단위

화폐 단위는 주워티(Zloty, 또는 PLN)이다. 1'주워티'는 100'그로셰'(Groszy)이다. 지폐는 10, 20, 50, 100, 200 주워티가 있고, 동전은 1, 2, 5 주워티와 1, 2, 5, 10, 20, 50 그로셰가 있다. 통상 1달러는 3.00 pln 이며, 한국 원화로 약 400원~500원으로 보면 된다. 폴란드는 2004.5.1부로 EU에 가입했으며 EURO화 채택은 2013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환전 요령

시내에 있는 칸토르(Kantor/공식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은행의 환율은 칸토르 보다 못하다. "칸토르"는 90년 초 정부의 독점적인 외환 관리가 풀리면서 등장했는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민간인이 운영한다. 현재 전국에 약 3,500여 개의 칸토르가 있다. 특히 바르샤바 시내에는 요처에 많기 때문에 찾는데 어렵지 않다.

칸토르에서 외환의 매입, 매도가 모두 가능하나 동전은 환전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교환해 주더라도 액면의 60% 정도로만 쳐준다.

칸토르는 환전 시의 매입, 매도율 차이로 이윤을 확보하며 별도의 환전 수수료는 없다. 대개 아침 8시-저녁 5시 사이에 개점하는데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곳은 환율이 좋지 않다. 칸토르 마다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고액을 환전할 경우에는 3-4 군데의 칸토르를 둘러 보고 가장 좋은 환율의 칸토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은행에서도 환전이 가능한 곳이 있으나, 대부분 은행은 구좌 보유자에 한해서만 입출금 시 환전 서비스를 부수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호텔에서는 환전 서비스를 중지 하였다. 공항 내 환전소는 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종합하면, 폴란드에서 환전 시 환율이 유리한 환전 장소의 순서는 칸토르, 은행, 공항 내 환전소 순이다.

3) 신용카드 사용

대부분의 상점, 식당, 호텔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나, 키오스크, 기념품점 등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액의 현지화를 소지하는 것이 편리하다.

바. 교통/통신

1) 한국과의 교통

한국(인천)과 폴란드(바르샤바) 간에는 현재 직항 노선이 없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파리 등 유럽 내 주요 도시를 경유해야 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서 바르샤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대한항공의 경우 서울 - 프랑크푸르트 구간을 매일 운항하고 있으며, 비행 시간은 약 12시간 정도이다. 한국 출발 시간은 오후 1시대이며, 프랑크푸르트에서 2시간 20분 정도 기다린 후 다른 항공기로 갈아타게 되는데 바르샤바 도착 시간은 오후 10시 40분이다.

영국 런던, 스위스 취리히, 이탈리아 로마, 오스트리아 비엔나, 프랑스 파리, 러시아 모스크바 등을 경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간혹 수화물이 함께 도착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들어 영국을 당일 경유하는 경우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폴란드 취항 항공사 리스트

AMERICAN AIRLINES	ALITALIA
AIR FRANCE	AUSTRIAN AIRLINES
AEROFLOT	AEROSVIT
AIR NEW ZEALAND	AER LINGUS
AIR BERLIN	AIR CANADA
AI EUROPA	AIR LITHUANIA
AIR MADAGASKAR	AIR NAMIBIA
AIR SEYCHELLES	ALL NIPPON AIRLINES
BELAVIA	BRITISH AIRWAYS
BRUSSELS AIRLINES	BRITISH MIDLAND
BWIA	CYPRUS AIRLINES
CZECH AIRLINES	CONTINENTAL AIRLINES
CATHAY PACIFIC	EL AL ISRAEL AIRLINES
FINNAIR	HAHN AIR
ICELANDAIR	KLM
LOT	LUFTHANSA
MALEV	MALAYSIA AIRLINES
MEXICANA	TAM LINHAS AEREAS
PULKOVO AIRLINES	SINGAPORE AIRLINES
SOUTH AFRICAN	SAS
SWISS	TURKISH AIRLINES
TAROM	THAI AIRWAYS
TUNISAIR	US AIRWAYS
UNITED AIRLINES	QANTAS
CENTRAL WINGS	GERMAN WINGS
SKY EUROPE	WIZZAIR
EASY JET	RYANAIR
VARIG	

2) 시내 교통(버스, 트램, 지하철 등 대중 교통)

시내버스, 시가전차(tram), 지하철 등이 있는데 한 가지의 승차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승차권은 일회권 2.4주워티, 일일권 7.2주워티, 일주일권 26주워티, 한달권 66주워티의 가격이다. 4세 이하 동반 유아는 무료이고, 12세 이하의 어린이, 학생, 정년 퇴직자에게는 50% 할인된다. 일회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환승 할 때마다 새로운 승차권을 사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버스는 5-23시, 트램은 4시-24시까지 운행된다. 지하철은 1개 노선으로 바르샤바 전 지역을 운행하지는 않는다. 23시부터 새벽 5시30분까지 운행되는 야간 버스(Night bus) 승차권은 7.2주워티 정도이다.

승차권은 곳곳의 버스 및 트램 정류장에 있는 Kiosk(신문 등을 파는 소형 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공항에서 175번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 지하철, 전차(트램) 등은 공항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현지사정에 밝지 않은 출장자에게는 택시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이다. 콜택시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거리에서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시내에서는 20-30주워티면 주요 지역을 갈 수 있고, 밤 10시 이후와 일요일, 공휴일에는 할증 요금이 붙는다. 팁에 관한 관습이 일반화 되어있지 않게 때문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호텔, 식당 등 방문지에서는 콜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면 약 10분 후에 이용할 수 있다.

3) 음성통신

□ 휴대폰 임대 안내

출국 전 한국에서 휴대폰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폴란드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렌트할 수도 있다. 공항에 휴대폰 대여점이 있는데 출장자의 경우 여기서 빌리면 나중에 반납할 때도 편리할 것이다.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출구로 나오면 'Airport Telecom'이란 대여점이 보인다. 구비하고 있는 구형이라는 점이 단점이다. 휴대폰을 빌리기 위해서는 여권과 신용카드(credit card)가 있어야 한다.

□ 공중 전화

공중전화는 공항과 호텔, 그리고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바르샤바 시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는 대부분 카드식이다. 전화카드는 시내 곳곳에 있는 신문 가판대(키오스크)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전화카드 가격은 9주워티(3분 통화 15회 분량), 15주워티(3분 통화 30회), 24주워티(3분 통화 60회) 등이 있다(1주워티는 원화로 약 300원). 주의할 점은 폴란드 내 전화시에는 0을 포함한 지역번호와 로컬번호를 이용해서 전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바르샤바 시내에서 바르샤바 시내로 전화할 경우 022(바르샤바 지역번호)+로컬번호로 전화가 가능하다.

□ 한국으로 전화하는 방법

- 호텔 객실에서 전화할 경우
 - 외부 연결 번호 + 00 + 82 +(앞자리 '0'을 뺀 지역번호) +(전화번호)
- 일반 전화의 경우(공중전화 등)
 - 00 + 82 +(앞자리 '0'을 뺀 지역번호) +(전화번호)
- Collect Call 거는 법
 - 008 + 008 + 211 + 122

4) 인터넷 이용

폴란드의 인터넷 속도는 한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일반 가정의 경우 아직도 56kb/초 속도의 다이얼업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다. 폴란드에서는 128kb/초 정도의 속도가 브로드밴드로 인식되고 있다. 브로드밴드 접속 방식은 ADSL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약 69%), 케이블 선을 통한 접속은 27% 정도이다.

지난 90년대 말까지 개인 고객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접속은 가격이 매우 비쌌다. 최근에는 다수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들이 저렴한 가격의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의 평균 가격은 아래와 같다.

- 월 15유로: 128/64 kb/초 연결
- 월 30유로: 512/128 kb/초 연결
- 월 55유로: 1024/256 kbt/초 연결

1급 이상의 호텔 대부분은 객실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호텔 내 비즈니스 센터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용이 비싼 편이다.

바르샤바 시내 곳곳에는 인터넷 카페도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카페의 영업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일요일은 쉬는 경우가 많다. PC 보유 대수는 보통 5대~15대까지 다양하고, 각종 음료 및 스낵을 같이 판매하고 있으며, 이용 연령층은 청년층이 많다. 시내의 주요 인터넷 카페로는 Casablanca Cafe(폴란드 최초), Omda Internet Cafe, E-nigma, Matrix net 등이 있다.

5) 우편

우편은 폴란드 국영기업인 우체국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전문 운송업체인 DHL, TNT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폴란드 우체국은 우편물 분실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중요한 서류의 경우 전문 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한다. 폴란드에도 우리나라의 퀵서비스와 같은 인편 배송 서비스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호텔 인포메이션 데스크 등에 문의 할 수 있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 바르샤바(Warsaw)

바르샤바의 호텔 사정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다. 호텔 수준에 비해 가격이 합리적이며, 예약 폭주로 방이 없는 경우도 별로 많지 않다. 다만, 국제회의나 대형 전시회와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호텔 방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를 두고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호텔 요금은 주말이 주중보다 저렴하다. KOTRA KBC는 시장 개척단 지원 등의 목적으로 바르샤바 소재 주요 호텔과 협의하여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 출장자도 KBC를 통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호텔 요금은 가끔 변동되며, 대형 행사가 있을 때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바르샤바의 주요 호텔(4성~5성급)은 다음과 같다. 이 호텔들은 대부분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인터넷도 잘 연결되어 있다.

KOTRA 현지 호텔 평가표

호텔명	접근성	쾌적성	안전성	부대시설	평점
InterContinental Hotel	10	10	10	10	40
Marriott Hotel	10	10	10	9	39
Hyatt Regency Hotel	9	10	10	10	39
Novotel Centrum	10	10	10	9	39
Holiday Inn Hotel	10	9	10	9	38
Jan III Sobieski Hotel	9	9	10	9	37

자료: 바르샤바KBC

□ InterContinental Hotel(☆☆☆☆☆)

- 위치
 - 시내 중심인 Emilii Plater 거리에 위치하며, 바르샤바의 명물인 문화 과학 궁전 맞은편에 있다. KBC가 입주해 있는 Financial Center 건물과는 50미터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있다.
 - 공항(프레데릭 쇼팽 공항)에서 자동차로 20분~30분 정도 걸린다.
 - 주소: ul. Emilii Plater 49
- 객실 요금
 - 일반 싱글룸 기준 150유로 (아침식사, 제세 포함) 이다.
- 인터넷 사용 여건
 - 모든 객실에서 인터넷 사용 가능(사용료는 24시간 기준 21유로 정도임)
- 각종 부대 시설
 - 특급 호텔로 다양한 크기의 컨퍼런스 룸, 식당, 바,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수영장 등 모든 편의 시설 구비
- 연락처
 - 전화:(48-22) 328-8888
 - 팩스:(48-22) 328-8889
 - 웹사이트: www.warsaw.intercontinental.com

□ Marriott Hotel(☆☆☆☆)

- 위치
 - 시내 중심가에 있고, 바르샤바 중앙역(기차역)과 매우 가깝다. 공항에서 자동차로 20~30분 정도 걸린다.
 - 주소: Al. Jerozolimskie 65/79
- 객실 요금
 - 일반 싱글룸 기준 145유로 정도(아침식사, 제세 포함) 이다.
- 인터넷 사용 여건
 - 대부분 객실에서 인터넷 사용 가능(사용료는 24시간 기준 20유로 정도임)
- 각종 부대 시설
 - 특급 호텔로 컨퍼런스 룸, 식당, 바,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수영장 등 편의 시설 구비
 - 호텔 최상층에는 바가 설치되어 있어서 바르샤바 전경을 즐기면서 각종 음료를 마실 수 있다.
- 연락처
 - 전화:(48-22) 630-6306
 - 팩스:(48-22) 830-0311
 - 웹사이트: www.marriott.com

□ Hyatt Regency Hotel(☆☆☆☆)

- 위치
 - 시내 변화가에서 약간 떨어져 있으나, 자동차로 10분 내에 변화가로 나갈 수 있다. 가까운 거리에 유명한 와지엔키 공원이 있다.
 - 주소: ul. Belwederska 23
- 객실 요금
 - 일반 싱글룸 기준 145유로 정도이다.
- 인터넷 사용 여건
 - 모든 객실에서 인터넷 사용 가능(사용료는 24시간 기준 20유로 정도임)
- 각종 부대 시설
 - 특급 호텔로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수영장, 스파(spa), 레스토랑, 컨퍼런스 룸 등 각종 편의 시설 구비
 -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폴란드 방문 시 수행원들이 투숙한 호텔
- 연락처
 - 전화:(48-22) 558-1234
 - 팩스:(48-22) 558-1235
 - 웹사이트: www.warsaw.regency.hyatt.com

□ Novotel Centrum(☆☆☆☆)

- 위치
 - 시내 중심인 Marszalkowska 거리에 위치하며, 바르샤바의 명물인 문화과학궁전과는 대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매우 가깝다.
 - 공항(프레데릭 쇼팽 공항)에서 자동차로 20분~30분 정도 걸린다.
 - 주소: ul. Marszalkowska 94/98
- 객실 요금
 - 일반 싱글룸 기준 100유로 정도(아침식사, 제세 포함) 이다.
- 인터넷 사용 여건
 - 모든 객실에서 인터넷 사용 가능. 객실 요금에 인터넷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 각종 부대 시설
 - 1급 호텔로 식당, 바, 다양한 크기의 컨퍼런스 룸,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등의 편의 시설 구비
 - 최근 리노베이션을 하여 시설이 상당히 좋다.
- 연락처
 - 전화:(48-22) 621-0271
 - 팩스:(48-22) 625-0476
- Novotel Airport 호텔과 혼동 주의: 노보텔은 시내와 공항 근처에 각 1개가 있으므로 택시 등을 이용, 호텔로 가는 경우 반드시 “노보텔 센트룸”이라고 해야 함.

□ Holiday Inn Hotel(☆☆☆☆)

- 위치
 - 바르샤바 중심가에 있다. KBC 가 입주해 있는 Financial Center 건물과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며, 10분 정도 걸린다.
 - 주소: ul. Zlota 48/54
- 객실 요금
 - 일반 싱글룸 기준 100유로 정도(아침식사, 제세 포함) 이다.
- 인터넷 사용 여건
 - 대부분 객실에서 인터넷 사용 가능(사용료는 24시간 기준 20유로 정도임)
- 각종 부대 시설
 - 1급 호텔로 피트니스 센터, 컨퍼런스 룸, 식당, 사우나 등이 구비되어 있다.
- 연락처
 - 전화:(48-22) 697-3999
 - 팩스:(48-22) 697-3899
 - 웹사이트: www.holiday-inn.com/warsawpoland

□ Jan III Sobieski Hotel(☆☆☆☆)

- 위치
 - 바르샤바 중심가에서 가까우며, 공항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 걸린다.
 - 주소: pl. Zawiszy 1
- 객실 요금
 - 일반 싱글룸 기준 100유로가 약간 넘는다.
- 인터넷 사용 여건
 - 대부분 객실에서 인터넷 사용 가능(사용료는 Superior 룸은 24시간 기준 15유로, 일반 객실은 요금에 포함되어 있음)
- 각종 부대 시설
 - 1급 호텔로 레스토랑, 바, 다양한 사이즈의 컨퍼런스룸,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등을 구비하고 있다.
- 연락처
 - 전화:(48-22) 579-1000
 - 팩스:(48-22) 659-8828
 - 웹사이트: www.sobieski.com.pl

상기 호텔 이외에도 바르샤바에는 한국 분이 운영하는 민박집도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이용이 가능하다.

- 코리안하우스
 - 주소: ul. Zolny 27a ursynow, Warsaw
 - 전화: 22)641-8787
 - 팩스: 22)643-8127
 - 이용 요금: 1인실(50유로), 2인실(1인당 40유로), 4인 가족실(1인당 30유로)
 -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warsawkoreahouse>

□ 브로추와프(Wroclaw)

- 여행 안내 센터: 71)344 3111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Monopol	71)343 7041	71)343 5103	monopol@orbis.pl	UL.Modrzejewskiej 2
DworPolski	71)372 3415	71)372 3415	dworpol@wr.onet.pl	UL.Kielbasnicza 2
MariaMagdalena	71)341 0898	71)341 0920	hotel@hotel-mm.com.pl	UL.Sw.M.Magdaleny 2
Polonia	71)343 1021	71)344 7310	N.A	UL.Pilsudskiego 66

□ 우찌(Lodz)

- 여행 안내 센터: 42)633 7169

(요금 단위: 달러)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Swiatowid	42)636 3817	42)636 5291	N.A	AL.Kosciuki 68
Grand	42)633 9920	42)633 7876	Res.logrand@orbis.pl	UL.Piotrkowska 72
Centrum	42)632 8640	42)636 9650	centrum@hotelspt.com.pl	UL.Kilinskiego 59/63

□ 크라코프(Krakow)

○ 여행 안내 센터: 12)421 7787

(요금 단위: 달러)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Continental	12)637 5044	12)429 6821	Res.continen@orbis.pl	UL.Armi Krajowej 11
Forum	12)261 9212	12)269 0080	Dh.krforum@orbis.pl	UL.M.Konopnickiej 28
Pollera	12)422 1044	12)422 1389	rezerwac@pollera.com.pl	UL.Szpitalna 30
Demel	12)636 1600	12)636 4543	hotel@ demel.com.pl	UL.Glowackiego 22
Grand Hotel	12)421 7255	12)421 8360	grand@kr.onet.pl	UL.Slawkowska 5/7
Cracovia	12)422 5122	12)421 9586	cracovia@orbis.pl	Al.Focha 1
Francuski	12)422 5122	12)422 5270	francuska@orbis.pl	UL.Pijarska 13
Logos	12)632 3333	12)632 4210	Logos-kr@intercom.pl	UL.Szujskiego 5

□ 포즈난(Poznan)

○ 여행 안내 센터: 61)852 6156

(요금 단위: 달러)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Mercury	61)855 8000	61)855 8955	mercury@orbis.pl	UL.Roosevelta 20
Novotel	61)877 0011	61)877 3654	rez.npoznan@orbis.pl	UL.Warszawska 64
Poznan	61)833 2081	61)833 2961	hpoznan@orbis.pl	PL.Andersa 1
Lech	61)853 0151	61)853 0880	N.A	UL.Sw Marcin 74
Batory	61)832 4481	61)832 4230	info@batory.pl	UL.Leszczynska 7/13

□ 그단스크(Gdansk)

○ 여행 안내 센터: 58)301 4355

(요금 단위: 달러)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Novotel	58)301 5611	58)301 5619	res.ngdanski@orbis.pl	UL.Pszenna 1
Hevelius	58)301 5631	58)301 1922	hevelius@orbis.pl	UL.Heveliusza 22
Szydlowski	58)345 7040	58)344 3877	office@hotel-szydlowski.com.pl	UL.Grunwaldzka 114
Posejdon	58)553 1803	58)553 0228	posejdon@orbis.pl	UL.Kapliczna 30
Marina	58)553 2079	58)553 3159	marina@orbis.pl	UL.Kapliczna 30
Talar	58)309 0882	58)306 5865	N.A	UL.Trakt Sw.Wojciecha 212

□ 카토비체(Katowice)

○ 여행 안내 센터: 32)599 414

(요금 단위: 달러)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Silesia	32)596 211	32)596 140	silensia@orbis.pl	UL.Piotra Skargi 2

○ 참고 사이트: www.poltravel.com(All hotels in Poland)

2) 식당

바르샤바에는 폴란드 전통 식당을 비롯하여 각종 유럽식 식당, 일본 식당, 중국 식당, 베트남 식당 등 다양한 식당이 있다. 한국 식당도 분점 등을 포함하면 10개 정도 된다.

식사 시 즐겨 마시는 술은 대개 보드카, 맥주, 포도주 등이다. 폴란드의 수질은 석회질이 많고 수도관 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 수돗물보다는 생수를 별도로 구입해서 마신다.

□ 바르샤바 시내의 주요 식당

각 전화번호 앞에 바르샤바 지역번호 022 생략

폴란드 전통 식당

식당명	전 화	주 소	비 고
Belvedere	841-2250	Agrykola 1	유명한 와지엔키 공원 안에 있어 바깥 풍경을 즐길 수 있음. 폴란드 전통식과 일반 양식 등
U Fukiera	831-1031	Rynek Starego Miasta 27	구 시가지(올드 타운)에 위치. 폴란드 전통 요리 및 일반 양식 등
Przy Zamku	831-0259	Plac Zamkowy 15/19	구 시가지 초입의 왕궁 근처에 위치. 폴란드 전통식 등
Polska "Tradycja"	840-0901	Belwederska 18A	폴란드 전통 음식 전문
Villa Nuova	885-1502	Kostki Potockiego 23	바르샤바 남쪽의 빌라노프 궁전 근처에 위치. 폴란드 전통식을 맛볼 수 있음

한국 식당

식당명	전 화	주 소	비 고
아카시아	636-6767	Jana Pawla II 61	시내 중심가에서 가깝고 식당이 깔끔함. 스시를 주종으로 하며, 각종 한국 음식 서빙
한강	549-9152	Walbrzyska 11 lok 159	한식당 중 가장 크고, 다양한 크기의 방으로 구분됨. 삼겹살, 보쌈 등 각종 한국 음식 서빙
라스(LAS)	642-1471	Kostki Potockiego 24A	바르샤바 남쪽 빌라노프 궁전 근처에 위치. 삼겹살, 차돌박이 등
아리랑	862-2000	Wolnosz 7	다양한 한국 음식 서빙
한반도	863-3026	Popularna 5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음. 한국 음식과 자장면, 짬뽕 등

일본 및 중국 식당

식당명	전화	주 소	비 고
Nippon-Kan	585-1028	Nowogrodzka 47A	시내 중심가에 위치. 스시, 우동 등 다양한 일식 서빙
Tokio	827-4632	Dobra 17	스시, 스키야키 등 일식과 함께 중국식 면류 서빙
Cesarski Palac	827-9707	Senatorska 27	시내 중심가에 위치. 북경 오리 요리 등 다양한 중국식 서빙

아. 관공서 관행

공산주의 체제 및 슬라브적인 느슨한 기질의 영향으로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가능한 문서로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관공서의 민원 서비스 수준과 전산화 정도가 낮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1989년의 체제 전환 이후 15년이 경과하였고, 2004년 5월 1일의 EU가입 등으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정착이 가속화되어, 사회주의 잔재가 많이 사라졌다.

한편 업무 처리에 대체적으로 융통성이 없고 책임 회피 관행이 아직 불식되지 않아 완벽한 서류 제출과 보완을 수시로 요구하기 때문에 한번 방문으로 업무를 끝내기가 어렵다.

관공서에 방문할 때에는 소액의 선물 제공 등을 통해 친밀도를 높이는 경우,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융통성 있는 업무 처리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 직원들은 영어를 잘 못하므로 폴란드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인에 대해서 다소 고자세를 보일 수 있으므로 방문 시 깔끔한 외모를 갖추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관공서에는 번호표 시스템이 되어 있어 오는 사람대로 번호표를 이용하여 차례를 기다리며 간단한 문의라고 판단하여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묻는 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일단 자기 차례가 끝나면 또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하므로 문의할 사항이 많으면 잊지 않고 한꺼번에 묻도록 문의 사항을 미리 종이에 적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공서 직원들은 근무 시간을 엄중히 지키고 행정 업무 종류마다 근무 시간이 다소 다를 수도 있으므로 관공서에 가기 전에 근무 시간을 확인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감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근무 시간 내에 가도록 해야 한다. 근무 시간이 1~2분 지났다고 일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일을 잘 처리해 달라고 선물을 주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자. 공휴일

1) 공휴일(2009년 기준)

날짜	공휴일	현지어	비고
1.1	신정	Nowy Rok	
4.12~13	부활절	pierwszy dzień Wielkiej Nocy drugi dzień Wielkiej Nocy	매년 변동
5.1	노동절	Święto Państwowe	폴란드에서는 노동절이라 하지 않음
5.3	제헌절	Święto Narodowe Trzeciego Maja	
6.11	성체축일	dzień Bożego Ciała	매년 변동
8.15	성모승천일	Wniebowzięcie Najświętszej Maryi Panny	
11.1	만성절	Wszystkich Świętych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이 공식 휴일로 지정됨
11.11	독립기념일	Narodowe Święto Niepodległości	
12.25~26	성탄절	drugi dzień Bożego Narodzenia	

2) 출장 지양 기간

전 초·중·고등학교는 부활절 2주전에 2주일간 방학(방학 일자는 매년 각 언어권 소속 문교부에서 결정)에 들어가며 학생들 방학 중에는 자녀들과 휴가를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다. 따라서, 이 기간을 피하거나 상대방의 휴가 일정을 미리 알아본 후 이에 맞추어 출장 일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목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금요일까지 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칠 경우 월요일까지 휴일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장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5월 1일과 5월 3일이 있는 주간은 피크닉 주간이라고 하여 대부분 비즈니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7-8월에는 학교 방학은 물론 직장인의 대부분이 휴가 시즌이므로 이때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대방의 휴가 일정을 사전에 알고 대처해야 한다. 12월 중순부터 1월초까지는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 연시로 특히 관공서의 연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 시기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여행시 유의 사항

1) 치안

비교적 안전한 편이나, 살인, 마약 밀수, 인신 매매 등 강력 조직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버스나 전차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소매치기와 야간 기차에서의 강도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국경을 넘는 야간 기차에는 강력한 마취제를 살포한 뒤, 강탈을 하는 경우도 있다.

Skin Head족 등 불량배와 마피아가 있긴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리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으며, 알려진 우범 지역은 기차역, 야간의 Old Town 주변, '비스와' 강 동쪽 북부의 프라가(Praga)지역 등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 차별이 있기는 하나, 한국인, 일본인에게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베트남, 중국인에 대해 간혹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다.

2) 식수

석회질이 많고 파이프가 많이 부식되어 수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수돗물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는 물은 생수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3) 저기압

폴란드는 기압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편두통이 있을 수 있다. 취침 전에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저기압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4) 팁 관행

일반적으로 10% 정도이다. 주로 음식점, 호텔, 이발소, 카페 등에서는 팁을 기대한다.

5) 여권 관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쇼핑 장소, 대중 교통 수단 등지에는 소매치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여권은 지갑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호의적으로 접근하는 현지인에게

방심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여권을 맡기지 말자. 현지에서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경우 우리 대사관이나 현지 경찰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6) 의료기관

약국에서 감기약 등 간단한 약품은 그냥 구입할 수 있으나,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이 많다. 약국은 시내 곳곳에 많이 있으며, 'APTEKA' 라는 간판을 찾으면 된다.

현지에서 병원을 이용할 때는 언어 문제로 의사 소통에 많은 애로가 있다. 다음은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하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병원들 이다. 시내 중심에 있는 병원은 림 센터(LIM Medical Center)와 메디커버(Medicover)이다.

□ 바르샤바에서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병원

- Medcover
 - 주소: ul. Jana Pawla 27, Atrium
 - 전화번호 : (48 22) 9596(핫라인)
- LIM Medical Center
 - 주소: ul. Jerozolimskie 65/79
 - 전화번호 : (48 22) 458-7000
- Damian Medical Center
 - 주소: ul. Walbrzyska 46
 - 전화번호 : (48 22) 566-2222

카. 유용한 연락처

1) 응급연락처

구분	전화번호	비 고
경찰	997	교통사고 포함
화재	998	
응급환자	999	
전화안내	118 913	
24시간약국	825 6986	바르샤바 중앙기차역(Central Station) 구내 소재
카드분실신고	625 4030	Amex 카드
	515 3000	비자/마스터카드(24시간 운영)
콜택시	9191, 9621, 9622, 9623, 9624 등	9191과 9623이 비교적 영어가 잘 통함

2) 한국 기관 연락처

기관명	주소	전화	팩스
대사관	Ul. Szwolezerow 6, 00-464 Warsaw	(22)559-2900	(22)559-2905
KOTRA바르샤바KBC	Ul. Emilii Plater 53, 00-113 Warsaw	(22)520-6230	(22)520-6231

주: * 대사관 영사 콜센터: +48-601328893(평일: 17시 이후, 휴일의 경우)

타. 기타 유용한 정보

1) 쇼핑

폴란드의 특산품으로 호박(Amber)과 전통 술 '보드카'가 유명하다. 구 시가지 내에 호박 취급 점이 있으며, 시내 각처와 호텔 등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또한, 빌라노프 궁전(Palac Wilanowski) 근처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박 매장도 있다. 폴란드의 호박 부존량이 많지 않아 상당량의 호박 원석을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원석을 가공하여 각종 장신구 (브로치, 목걸이, 반지 등), 주방 용품 등은 물론 장식등까지 제작하고 있다.

"Zubrowska" 보드카는 독특한 향이 나는 폴잎을 넣고 만든 것으로 폴란드에서만 나는 특산품이다. 이외에도 "Chopin" 보드카는 병 모양이 예쁘고 포장도 잘 되어 있어 선물 증정용으로 많이 구입한다. 대체로 폴란드산 보드카 가격은 50주워티(14 달러) 내외이다.

손으로 수를 놓은 폴란드 특산 식탁보도 이색적인 기념품이 될 수 있는데, 폴란드 민속품 판매 체인인 Cepelia에서 구입할 수 있다. Cepelia는 구시가지에 많이 있다.

2) 폴란드 문화, 이것만은 주의하자

- 유럽 사회는 일반적으로 사생활을 중요시하므로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폴란드 인은 처음 만난 사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질문의 예로는 남자(여자) 친구, 남편(부인) 관련 사항, 자녀 관련 사항, 나이 관련 사항, 월급 등 금전 관련 사항, 그리고 종교, 정치 관련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 대중 장소에서 가래침을 뱉는 것
- 식사 때 소리를 내서 먹는 것
- 손으로 음식을 집어 주는 것
- 공공 장소나 다른 사람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 폴란드에서 발은 인체의 '더러운' 부분으로 인식되므로 발을 잘 노출하지 않는다.
- 사람 몸에 손대는 것(touching): 잘 모르는 사람이 몸에 손대는 것을 싫어한다.
- 악수할 때 손을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

3) 유용한 현지어 표현과 단어

- 안녕하십니까?: Dzień Dobry(지엔 도브리)
- 감사합니다: Dziękuję(지엔쿠예)
- 만나서 반갑습니다: Bardzo mi miło(바르조 미 미오)
- 작별인사(다시 만날때까지): Do widzenia(도 비제니아)
- 저는 한국인입니다: Jestem Koreańczykiem(예스탐 코레안취키엠)
- 여기는 아주 맛있는 곳입니다: Tu jest bardzo ładnie(투 예스트 바르조 와드니에)
-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Pogoda jest bardzo dobra (포고다 예스트 바르조 도브라)
-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Nazywam się 홍길동(나지밤 시엠 홍길동)
- 예/아니오: Tak(탁) / Nie(니에)
- 환전소: Kantor(칸토르)
- 영수증: Rachunek(라후넥)
- 물: Woda(보다)
- 맥주: Piwo(피보)

파. 관광 명소

1) 바르샤바 및 근교 지역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Warszawa)는 남쪽 국경 산악 지역에서 발원하여 북쪽의 발틱해로 흘러 들어가는 비스와(Wisla)강과 모스크바-베를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폴란드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위도상으로는 북위 55도에 위치하며, 면적은 485km², 인구는 165만 명에 이른다.

바르샤바는 13세기에 도시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여 1413년 마조비아 공작 Janusz The Elder에 의해 마조비아 공국의 수도가 되었으며, 1526년 마조비아 공국이 폴란드 왕의 직속 영토가 되면서 1569년부터 폴란드-리투아니아 왕국의 연합의 회의 개최지가 되었다. 1596년 Zygmunt 3세는 당시 왕궁인 크라코프(Krakow)소재 바벨성이 소실되자 왕궁을 바르샤바로 옮기면서 폴란드의 수도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에서 8번째로 큰 도시이었던 바르샤바는, 2차 세계대전 중 건물의 80% 이상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으나, 전후에 복구되어 현재 폴란드의 행정, 교육, 상업의 중심이 되어 있다.

주요 명소로는 왕궁(Royal Castle), 구시가 광장(인어동상, 바르샤바 역사박물관 등), 퀴리 부인 생가 & 박물관, 바르샤바 봉기 영웅 기념비, 무명 용사 기념비, 성 세레 요한 대성당, 와지엔키 공원, 빌라노프 궁전, 문화과학 궁전 등이 있으며, 바르샤바에서 50Km 떨어진 인근 젤라조 바볼라에는 쇼팽 생가가 있다.

□ 와지엔키 공원(Lazienki)

18세기 후반 폴란드 최후의 왕 Stanislaw Augustus Poniatowski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원이다. 이 공원의 이름 와지엔키는 "목욕탕"이라는 뜻으로, 당시 이 지역은 귀족들의 수렵 장소였는데 수렵을 마친 후 이곳에서 목욕을 하였다 한다.

러시아의 여황제 애카데리나 2세의 젊은 연인으로서 그녀의 후광으로 왕이 된 Poniatowski는 정치적으로 무력하여 현실에서 도망치듯 공원의 조경에 열중했다. 그는 폴란드 영토가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의 삼국에 의하여 분할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1795년 예카테리나 2 세로부터 폴란드 분할 문서의 조인을 강요당한 후에 퇴위하여, 1798년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세상을 떠났다.

Poniatowski왕은 열렬한 그림 애호가로서 당시 이 공원내의 궁에 회화와 조각품 5천 점을 소장하고 있었으나, 그가 페테르부르크로 갈 당시에 약 2천 점을 가지고 갔다.

2차 대전 당시 이 궁에 소장되었던 많은 그림들은 독일로 유출되었고 1944년 큰 화재로 인하여 내부가 완전히 불타는 수난을 겪었으나 복구되어 지금은 국립박물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공원 입구에는 보리수 나무 아래 쇼팽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해마다 5~9월 사이 매주 일요일 12시, 16시에 쇼팽의 피아노 연주회가 무료로 열리고 있어 많은 바르샤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공원의 동쪽에는 귀족들이 수렵 휴식을 취하던 '레스트하우스'와 '화이트하우스'가 있으며, 금세기 초의 유명한 폴란드 피아니스트이자 정치가였던 파테레프스키의 박물관도 이곳에 있다. 또한 남쪽에는 식물원과 함께 야외극장 등이 있다.

□ 바르샤바 왕궁(Royal Castle)

폴란드 왕국의 상징인 이 왕궁은 13세기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마조비아(Mazovia) 공작의 요새였 으며, 14세기 중반에 방어용의 큰 탑과 성벽이 세워졌다. 15세기 초에는 벽돌로 고딕식 왕궁이 세 워졌고 수개의 부속 건물들이 건립되었다. 오늘날의 모습을 하게 된 것은 '야기에오' 왕조의 마지막 왕이던 '지그문트 아우구스투스'왕 시절이며, 그는 종래의 건물을 '우아드로'라는 궁정 건축가에게 의뢰하여 오늘날의 르네상스식 왕궁으로 변모시켰다.

스웨덴의 침입과 대형 화재로 크라코프의 바벨궁이 큰 손실을 입자, 1596년 Zygmunt Waza 3세는 수도를 바르샤바로 천도하고 이곳을 새 수도로 정했다(구시가의 입구에 높이 서 있는 높다란 원주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이 지그문트 왕의 동상임).

이후에도 이곳은 역대 왕조의 왕궁으로 사용되었으며, 제 2차 스웨덴의 침입으로 왕궁이 전 소되는 등 많은 수난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다시 새롭게 복구되었다.

16, 17세기에는 이 왕궁이 의회(Sejm)를 포함한 정치의 중심이었으며, 폴란드에서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교도들에게 법적으로 자유를 부여한 법안이 통과되 는 등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물이다.

또한 1791년 5월 3일 이곳에서 유럽 최초로 성문헌법이 상원을 통과하여 폴란드의 현대 국 가 형성을 목표로 "무혈혁명"이라고까지 불린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918년 독립 국가가 된 이후 왕궁은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되었으며, 나치의 침략에 의하여 파괴되 었던 이 왕궁은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주춧돌만 남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 었 다. 1971년부터 이 왕궁을 복구하자는 국민의 열광에 해외 동포들을 비롯하여 전 국민 의 헌금과 정 성으로 재건 작업이 시작되어 1988년에 이르러 완전히 제 모습을 찾았다.

□ 빌라노프 궁전(Palac Wilanowski)

바르샤바 남쪽 교외의 빌라노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후세의 사가들로부터 17세기 중엽 회교도의 침입에 대항하여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구출했다는 평가를 듣는 비엔나 전투의 영웅 '얀 소비에스키' 3세의 여름 별궁으로 건립되었다.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을 모방한 이 건물은 바로크식의 궁전 건물과 프랑스 왕가인 부르 봉가 출신인 '소비에스키'왕의 왕비가 정성을 쏟아서 조경하였다는 프랑스식 정원이 유명하 다.

□ 무명용사비(Monument Of The Unknown Soldier)

바르샤바 구시가지의 외곽인 승리 광장에 위치해 있으며, 폴란드 독립을 위해 약 130년의 기간 동안 죽어간 수많은 무명 용사를 위해 1925년 건립되었다.

Saxon궁의 3중 아케이트로 건립되었으나 Saxon궁은 1944년 파괴되고 현재는 아케이드와 무덤만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무명 용사의 유해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교전지에서 가져온 흙을 담은 14 개의 항아리도 묻혀있으며, 2차 대전 후 대리석판이 추가되었고, 폴란드 및 외국 주요 인사 의 중요 행사 시에 헌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 국립미술관(National Museum)

1862년 설립된 바르샤바 미술관(Museum Of Fine Arts)이 1916년에 국립미술관으로 승격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1926년 건축되었으며, 초대 및 제2대 박물관장의 노력으로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국립미술관으로 건재할 수 있었다.

현재 동 미술관은 78만여 점의 그림, 사진, 아이콘, 동전 및 메달, 고인쇄물, 지도 등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들 그림은 고대미술관, Michalowski 교수관, Wyszynski 추기경 중세미술관, 외국회화관, 폴란드 회화관, 20세기 폴란드관, 폴란드 장식예술관 등에 전시되었다.

1995년에 동 미술관은 완전히 재정비되었고, 조각품이 재배치되었으며, Michalowski 교수관은 비잔틴 예술을 포함한 기독교 정교의 미술품을 전시하기 시작했다.

1997년부터 동 미술관은 유럽 장식예술관, 동양미술관, 또 다른 고대미술관을 개관하기도 하였다.

□ 퀴리부인 생가 & 박물관(Maria-Sklodowska Curie's Museum)

구시가(Old Town)의 북쪽에 위치한 동 박물관은 퀴리부인이 탄생한 생가로, 퀴리부인의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1967년에 설립되었다.

소장품으로는 실험도구와 여러 기념사진들이 있으며, 방문자의 요청에 따라 퀴리부인의 일생을 담은 영화도 상영된다.

개장 시간은 화요일-토요일은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일요일은 오전 10시-오후 2시이다.

□ 쇼팽 생가, 젤라조바 볼라(Zelazowa Wola)

프레데릭 쇼팽의 출생지인 젤라조바 볼라(Zelazowa Wola)는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약 50킬로에 위치한다.

쇼팽은 당시 이곳의 영주였던 스카르벡 백작의 먼 친척이자 프랑스어 교사였던 프랑스인 아버지와 평범한 여성이었던 폴란드인 어머니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발휘하였던 쇼팽은 그의 나이 7세 때 바르샤바로 이사를 갔지만 종종 이곳을 방문하여 예술가로서의 감성을 연 마했으며, 지역 농민들이 즐겨 부르는 마주르카곡은 나중에 그가 고향을 생각하고 작곡한 많은 곡 들 속에 융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쇼팽이 바르샤바로 이사를 가고 스카르벡 백작이 죽은 후 이 집은 농장의 마구간으로 사용되는 등 점차 퇴락하여 갔으나, 19세기 말 쇼팽을 추앙하였던 한 러시아 음악가에 의하여 이 집이 복원, 수리되어 박물관으로 변모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 폴란드에서는 쇼팽 협회가 발족되고 이 집의 관리는 쇼팽 협회가 맡아서 하게 되었다. 이때에 원래 작은 지역이었던 것을 국민들의 성금으로 넓은 부지를 추가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였고, 세계 각국의 쇼팽 음악 애호가들은 공원 조성엔 필요한 식물들을 기증하여, 현재 이 공원에는 약 1만 5,000종의 세계 각국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한편 1830년 폴란드를 떠난 쇼팽은 크라코프, 프라하, 비엔나, 뮌헨 등을 거쳐서 파리에 정착한 뒤 작가 조르주 상드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다. 이 여인의 후원 아래 쇼팽은 그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다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여동생이 파리를 방문하여 그의 심장을 가지고 와서 바르샤바 구시가에 있는 '성 십자가' 성당에 안치했다.

해마다 5월에서 9월까지 매주 일요일 11:00-15:30이면 이 생가에서 저명한 피아니스트들의 연주회가 열린다.

2) 유네스코 지정 9대 문화 유산

폴란드에는 다양한 관광 명소 외에도,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세계적인 '문화유산(World Heritage)' 9개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크라쿠프의 舊市街地(The Historic Center of Cracow)

1978년에 지정. 지정 당시 유네스코는 전세계에 단 12개소를 문화유산 지구로 선포했는데 크라쿠프 구시가지가 그 중의 하나였다.

16세기 폴란드의 수도를 현재의 바르샤바로 옮기기 전까지 수도였으며, 당시 신성로마제국의 일부였던 보헤미아의 프라하와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함께, 중세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다

또한 폴란드 전역을 통해 드물게도 제2차 세계대전의 戰禍를 입지 않은 덕분에 중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900년대의 100년 동안 광장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 내에 단 한 채의 신축 건물도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타원형으로 조성된 시가지는 주변이 녹지대로 둘러 쌓여 도시건축 공학 측면에서도 유명함. 구시가지의 중심부는 40,000s/m(약 13,000평)에 달하는 거대한 광장이 조성되어 예로부터 市場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마르코 광장과 더불어 유럽 최대 규모의 마켓스퀘어(Market Square)를 자랑하고 있음. 광장 중앙부에 있는 직물회관과 거대하면서도 내부 장식이 정교한 '聖 마리아' 성당은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중세식 구시가지와 더불어 인접한 왕궁(Royal Castle) 및 바벨 언덕(Wawel Hill)까지 보존 지구에 포함되어 있다.

광장 주변부의 건물들은 대개가 지하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이 '부띠끄' 형태의 상점으로 전환되면서 이 지하 공간도 카페 등 훌륭한 지하 상업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르샤바에는 여행사들이 주관하는 패키지 투어가 잘 구비되어 있으며, 주로 열차편으로(Inter City로 불리는 특급 열차로 약 2시간 30-40분 소요) 이동하여, 현지에서 별도의 교통편을 이용, 60킬로미터 떨어진 유명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와 30킬로미터 떨어진 지하 130미터에 조성된 관광 명소인 거대한 '소금 광산'을 묶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비아보비에차 숲(Bialowieza Forest)

1978년에 지정. 1992년에는 폴란드 동부에 인접한 벨로루시(白러시아) 지역까지 보존구에 포함 시켜 관리되고 있다.

□ 비엘리츠키 소금 광산(Wieliczka Salt Mine)

1978년에 지정. 13세기 이래 암염 광산으로 개발된 이래, 오늘날까지 무려 700년 이상 활용이 되고 있어 전 세계 광산 중 가장 오랜 기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염수 탐사를 하다 발견된 암염광은 13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14세기에 이르러 왕국 재정 수입의 1/3이 소금 광산으로부터 얻어지기도 한다.

同 소금광산은 13세기, 당시 '헝가리'왕 벨라 4세의 딸인 '킹가' 공주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전설과 함께, 킹가 공주는 '비엘리츠키'의 수호 성인으로 봉안되면서, 갱도 내 곳곳에 다양한 소금 조각 상이 세워져 있다.

이후 700년 동안 약 7,500만 톤이 채취되었는데 이를 화차에 적재하면 지구 둘레의 1/5에 해당하는 물량임. 전체 갱도는 지하 64미터에 위치한 1단계에서 지하 327미터에 위치한 제9단계에 이르기까지 총 연장 250킬로미터에 이르며, 채굴하면서 남겨진 방의 형태만 2,040개에 이른다. 오늘날 일반에게 관람이 허용된 부분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

한편 광산 내부는 늘 화재와 낙반 사고 등이 뒤따라 매우 위험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16세기에는 한때 매년 전체 광부의 10%가 사고로 희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하 광산 내부를 둘러 보려면 평균 2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반드시 가이드가 동행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볼 수는 없게 되어 있음.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발매할 때 20-30명 단위로 그룹을 지어 구경하게 되므로 입장이 약간 지체된다.

또한 지하 광산내부는 평균 10도 내외로 다소 서늘하기 때문에 반드시 긴 팔 상의를 한 벌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여름에는 마지막 입장이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Auschwitz-Birkenau Concentration Camp)

1979년에 지정. 독일의 나치 제3제국 시절에 조성된 최대 규모의 집단 수용소 겸 처형장으로, 1940년부터 1945년에 걸쳐 약 400만 명이 기아, 고문, 처형 등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정 되고 있음. 희생자의 대부분이 유럽 각지로부터 압송된 유태인이었다.

희생자 숫자는 통상 400만 명이라고 알려졌으나 이는 舊소련이 과장되게 발표했다는 설과 함께, 지속적인 사실 관계 추적에 따라 오늘날에는 150만 명이 희생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함. 바르샤바에서 360킬로미터, 크라쿠프 시에서 60여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해있다.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 후, 이 지역은 폴란드 지명으로 '오시비엥침'(Oswiecim)이라 불려오다 독일에 의해 편입되면서 독일 명으로 아우슈비츠로 변경되었다.

당초에는 폴란드 등 점령지의 정치범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이후 유럽 전역에서 압송되어 온 수많은 유대인들과 나치에 의해 분류된 이른바 저질 인종이라는 집시 등을 강제 수용하여 노동력 착취는 물론 결국에는 처형시키는 대규모 처형장으로 바뀌었다.

수용소 소장은 '루돌프 헤스'였으며, 총 28개 동으로 구성된 수용소 규모였음. 피크 타임이었던 1942년에는 동시 수용 인원이 한때 28,000명에 달하였으나, 평상 시에는 15,000명 내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후 뉴른버그 전범 재판소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헤스는 유대인들의 인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운 이곳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후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41년 아우슈비츠에서 3킬로미터 떨어진 브제젠카(Brzezinka: 폴란드 지명. 독일명으로 비르케나우)에 제 2수용소를 지었는데, 후에 아우슈비츠 제 2 수용소라고 명명되었다. 전체 부지가 무려 53만평에 달하며 수용소 건물만도 300동에 달하였는데, 1941년에는 한때 동시 수용 인원이 10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

이후 1942년에는 또 다시 인근 '모노비체' 지역에 제 3 수용소를 설립한 바 있는데, 현재는 제1 수용소와 제 2 수용소만이 보존되어 일반 관람을 시키고 있다.

당시 소련군이 해방군으로 이곳에 진입하기 직전 나치에 의해 수용소 시설은 물론, 각종 문서 기록들이 파괴되어 어느 누구도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이후 유대인들이 사실 추적에 집중적인 노력을 한 결과 오늘날 보여지고 있는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현재 전시되고 있는 희생자들의 유품들도 전쟁 말기에 파괴되지 못한 채 발견된 일부분에 불과하나, 이것만으로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유례 없던 비극을 짐작할 수 있다. 매년 최소한 100만 명의 관광객, 참배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폴란드 내에는 아우슈비츠 외에도 2차 대전 중 20만 명이 희생된 바르샤바 시내 소재 유대인 '게토' 지구가 극히 일부분만의 시설을 보존하고 있으며, 폴란드 동부의 중심도시 루블린(Lublin) 근교에도 엄청난 규모의 유대인 수용소 현장이 보존되고 있으나, 아우슈비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바르샤바 舊市街地(The Historic Center of Warsaw)

1980년에 지정. 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여름 독일군은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바르샤바 시민군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기에 따라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면서 쌍방이 막대한 희생자를 낸 바 있는데, 독일군은 시민군을 철저히 괴멸시키는 한편, 소련군의 바르샤바 진주에 앞서 퇴각하면서, 13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잘 축조된 舊시가지(Old Town) 전체를 다이나 마이트로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이후 폴란드는 공산치하에 있던 1951년부터 1966년에 걸쳐 각계 각층의 고증 자료를 활용하고, 복구에 따른 막대한 인력 수요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무료 근로 참여 등을 이용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15년 만에 완전히 옛 모습 그대로 복원시켰다.

유네스코는 지정할 당시, 13세기의 역사를 20세기에 고스란히 복원해낸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규모 면에서는 크라쿠프의 구 시가지와 비교가 되지 않으나, '바르샤바'시의 80%가 2차

대전 중 초토화된 만큼, 옛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바르샤바로서는 이곳만이라도 드물게 중세 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돋보이는 곳이 되고 있다.

□ 자모츠 舊市街地(The Old City of Zamosc)

1992년에 지정, 16세기 '얀 자모이스키' 장군(Jan Zamoyski)에 의해 축조되고, 파우다(Paou-da)의 건축가 베르나르도 모란도(Bernardo Morando)에 의해 설계된 곳으로, 오늘날 "가장 완벽한" 르네상스식 건축물이 보존된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 토룬시의 中世式 舊市街地(The Medieval Town of Torun)

1997년에 지정, 14세기-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세식 건축물을 구비한 "한자동맹(Hanseatic League)" 시절의 상업 중심 지구의 모습이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는 곳으로 평가 되고 있다.

토룬은 한때 독일의 튜턴 기사단(Teuton Knights)의 거점 지역 중의 하나였으며, 오늘날 까지도 '튜턴'식 건축물의 잔재가 구 시가지 곳곳에 남아있다.

또한 이곳은 폴란드의 남북을 관통해 '발틱'해로 흘러내리는 '비스와' 강에 인접해 있는 도시였기에 당시 호박 등 토산물의 무역 통로로도 잘 활용되던 곳이다.

현재는 교육 중심 도시이기도 한 이곳은, 지동설로 유명한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Nicholas Copernicus) 탄생지이기도 하다.

□ 말보르크의 튜튼식 성채(The Castle of the Teutonic Order in Malbork)

1997년에 지정, 튜튼 기사단 시대의 중심지로서 중세식 붉은 벽돌 양식을 이용하여 축성된 대표적인 성채로 꼽히고 있다. 19세기에 1차 보수가 있었으며, 2차 대전 당시 공습으로 인한 막심한 피해를 입은 후, 또다시 대대적인 복원이 이루어졌다.

튜튼식 성채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으로 유명한 만큼, 오늘날 독일로부터의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다.

내성과 외성으로 축성되고, 가운데 탑 부분은 10층 높이로 당시의 건축술로 볼 때 벽돌만으로 이만한 높이를 축조한 것은 대단한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 칼바리아 제브리돔스카(Kalwaria Zebrzydowska)

1999년에 지정, 예루살렘을 모델로 한 16세기 유행한 '마니에리즘' 양식의 건축물과 자연 풍경이 복합된 장소로, 전형적인 폴란드의 전통 민속 종교인 "예수 고난(the Passion of Christ)회"의 기도 장소이기도 하다.

3) 가톨릭 성지

현 요한 바오르 2세 교황을 배출한 폴란드는 정통 가톨릭 국가로서 많은 종교적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꼽히는 곳은 성모 발현지로서, 바르샤바

시에서 남서쪽 2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첸스토호바'의 '야스나 구라' 성당에 있는 '검은 성모상'과, 바르샤바 시 서쪽 200 Km에 위치하고 있는 '리헨' 성당의 성모상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 첸스토호바의 검은 성모상

첸스토호바(Czestochowa)시의 야스나 구라(Jasna Gora: 빛의 언덕) 성당에 안치되어 있는 검은 성모상은 폴란드가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차례 기적을 일으키면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해 온 것으로 알려져, 폴란드인들은 이곳을 정신적인 고향으로 여기고 있다.

검은 성모상의 유래는, 누가복음을 지은 루가(St. Luke) 성인(聖人)이 나자렛에서 성모로부터 예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식사를 하던 삼나무 식탁에 그린 그림이라고 전해진다. 이후 서기 326년, 예루살렘에서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모후인 헬레나 성인에게 발견되어 보관되었다가 헬레나 성인이 성지 순례차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할 때 아들 콘스탄틴 황제에게 전해졌으며, 황제는 곧 성당을 지어 이 성모상을 안치하였다.

5세기 동안 콘스탄티노플에 보관되어 있던 성모상은, 이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전전하다가 결혼 지참 예물의 일부로 폴란드의 라디스와브(Radisław) 왕에게로 오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당시 폴란드의 수도였던 크라쿠프에 보관되었던 성모상은 1382년 타타르족의 침공 시 '타타르' 군이 쏜 화살에 맞아 목 부위에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라디스와브 왕은 보다 안전한 곳에 보관할 곳을 생각으로 자신의 고향인 오폴레(Opole)로 옮기기로 하였다. 옮기던 중 '첸스토호바'에서 하루를 유숙하면서 왕은 꿈을 꾸었다. 꿈에 자신들이 묵고 있는 첸스토호바의 야스나 구라 언덕이 보이고 그 언덕의 정상에 "성모의 승천"이라는 조그만 목조 성당에 자신이 옮기고 있는 성모상이 걸려 있는 것이었다. 이튿날 일행이 오폴레로 출발하기 위해 성모상을 마차에 옮겨 실었으나, 마차를 끄는 말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에 왕은 『이는 분명히 하늘의 계시임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야스나 구라의 성당에 성모상을 안치하였다.

1430년 후스(Huss)의 추종자들이 야스나 구라를 침입하여 사원과 성모상을 파괴하려고 성모상을 향하여 칼을 뽑았다. 두 번이나 칼을 휘둘렀으나 성모상의 얼굴에 칼자국만 남겼으며, 세 번째 휘두르려 하자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에 의하여 바닥에 쓰러지고 몸부림을 치며 고통스러워 하다가 결국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때 입은 두 번의 칼자국이 지금의 성모상에 나타나 있으며, 후세에 이 칼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여러 번 수리하였으나 보수가 끝나면 다시 선명하게 칼자국이 되살 아났다고 알려지고 있다.

카지미어즈(Jan Kazimierz)왕은 1656년 야스나 구라 요새에서 스웨덴 침략군을 격파하고 폴란드와 유럽을 스웨덴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 성모상이 일으킨 기적이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1659년 이 성모상을 폴란드의 수호신으로 공식 공포하였다. 폴란드의 수호신이라는 명칭은 1962년 당시 교황 요한 13세로부터 재차 인정을 받았다. 1979년 교황으로 선출된 폴란드 출신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의 자격으로서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하여 '성모'의 보호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며, 그 후로도 1983년과 1991년 두 차례 더 방문을 하였고, 이는 전 세계에 야스나 구라가 널리 알려지게 된 동기가 되었다.

□ 성모상이 일으킨 기적(奇蹟)의 사례

1655년 폴란드를 침범한 스웨덴군은 야스나 구라 성당을 포위하고 화살을 퍼부었으나 성벽에 다다른 화살은 마치 그물에 걸린 듯 모두 성벽 밖으로 떨어지고, 이에 힘입은 폴란드 군의 반격으로 스웨덴군은 대패했다고 전해진다. 이 정경을 묘사한 그림은 지금도 많은 화가들에게 의하여 그려지고 있다.

또한, 1920년 러시아를 적화시킨 레닌의 적군(赤軍)이 서유럽에 공산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맨 먼저 폴란드를 공격했다. 당시 독일은 폴란드가 곧 패배할 것이며 이어서 베를린으로 몰려올 러시아 군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공황에 빠졌다. 그러나 바르샤바의 동쪽, '비스와' 강변에 도착한 러시아군은 구름 속에 나타난 성모의 모습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싸였고, 이어 벌어진 전투에서 폴란드의 독립 영웅 피우수드스키(Jozef Piłsudski) 장군이 이끄는 폴란드 군에 대패하고 말았다. 이로써 소련은 유럽 적화라는 야욕을 포기해야만 했고, 폴란드는 전 유럽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켰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은 계기가 되었다.

성모상이 검은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검은 성모상의 유래를 조사한 크루즈(Joan Carol Cruz)는 그 단서를 기도서에서 찾는다. 즉 성가(聖歌)에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검게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오랫동안 제단을 밝히는 초의 그을음이나 향연(香煙)이 착색되어 이로 인하여 검게 변색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성모상이 안치되었던 사원들이 이교도들에게 여러 번 침입을 받았고 그때마다 불에 탄 적이 많았는데 이때의 화염(火焰)과 연기로 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모스(Moss)는 회화(繪畵)에서 인물의 피부를 검게 변색시키는 것이 중세기 대표적인 비잔틴 양식의 한 기법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이 성모상의 모작(模作)은 여러 곳에 있는데, 스위스의 복제화는 야스나 구라의 성당의 원화(原畵)보다 더 검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도일스타운에 있는 복제화는 오히려 옅은 살색을 지니고 있다.

이 밖에도 검은 성모상이 안치된 성당에는 기적에 힘입어 장애를 치료 받은 순례자들이 기증한 선물들이 온 벽을 덮고 있으며, 성물들을 보관한 박물관에는 역대의 제왕이나 순례객들이 봉헌한 수많은 보물과 성물들이 보관되어 있다. 도서관에는 중세 폴란드의 가톨릭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귀한 서적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다.

성당내의 박물관에는 고(古) 성경과 성모상을 감싸던 많은 보석으로 장식된 성의(聖衣)들이 있으며, 진열장 한쪽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신자들이 빵 조각을 이용해 만들어 사용했다는 목주가 전시되어 있다. 또한, '자유노조'를 지도하던 바웬사의 투옥 당시의 초상화도 있으며, 그가 자유 노조 지도자로서 정부와 함께 사인을 하던 볼펜과 함께 노벨 평화상도 진열되어 있다. 수상 후, 전 세계를 방문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훈장들도 함께 진열되어 있다.

□ 성모 발현지 리헨(Lichen)

또 다른 성모상으로 리헨(Lichen)의 것이 유명하다. 코닌(Konin) 근교에 있는 리헨의 성모상 (애도의 성모상, sorrowful Madonna)은 1813년에 라이프치히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폴란드 출신 병사에 성모가 발현하면서 구함을 받은 이 병사가 고국으로 생환하여 자신에게 나타났던 성모상을 찾아서 봉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성모상은 1850년 리헨 근교 숲 속에서 발현, 당시 전 유럽을 휩쓸던 콜레라로부터 수많은 사람을 구한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기적을 일으킨 만큼 폴란드의 수호신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1967년 요한 바오로 6세로부터 공인을 받으면서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고 있다.

2000년은 성모 발현 1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많은 순례자들의 참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대한 성당을 지었는데 2만 명이 동시에 미사를 볼 수 있는 전 유럽에서 7번째로 큰 규모의 성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로 기적을 일으키는 검은 성모상이 있는 곳으로는 폴란드 외에도, 알토팅(Altötting)의 성모 (Bavaria, Germany), 헤르밋(Hermits)의 성모(Einsiedeln, Swiss), 과달루페(Guadalupe)의 성모(Mexico City), 몬세랫(Montserrat)의 성모(Spain), 틴다리(Tindari)의 성모상(Sicily)이 있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주요 전시회 리스트

전시회명	도시	개최기간
포츠난 가정용품 박람회	포츠난	2009/06/03~2009/06/06
포츠난 가구박람회	포츠난	2009/06/03~2009/06/06
키엘체 교회건축, 부속품 및 가구, 신앙용품 박람회	키엘체	2009/06/08~2009/06/10
포츠난 공작기계 전시회	포츠난	2009/06/16~2009/06/19
그단스크 국제 어류가공 및 가공품 박람회	그단스크	2009/06/16~2009/06/18
포츠난 표면처리기술 전시회	포츠난	2009/06/16~2009/06/19
키엘체 국제 스포츠 및 야외장비 박람회	키엘체	2009/08/21~2009/08/23
라돔 에어쇼 및 항공박람회		2009/08/29~2009/08/30
키엘체 제15회 국제 군수 박람회	키엘체	2009/08/31~2009/09/03
키엘체 제17회 국제 방위산업 박람회	키엘체	2009/08/31~2009/09/03
그단스크 국제 호박(Amber) 박람회	그단스크	2009/09/10~2009/09/12
바르샤바 국제 애완동물 용품 박람회	바르샤바	2009/09/11~2009/09/13
포츠난 식품 산업 박람회	포츠난	2009/09/14~2009/09/17
비엘스코-비아와 국제 전력 산업 박람회		2009/09/15~2009/09/17
키엘체 국제 대중교통 박람회	키엘체	2009/09/16~2009/09/18
바르샤바 국제 오일 및 가스 산업 박람회	바르샤바	2009/09/16~2009/09/17
키엘체 제9회 산업 측정 기술 박람회	키엘체	2009/09/24~2009/09/26
바르샤바 국제 관광 박람회	바르샤바	2009/09/24~2009/09/26
키엘체 제15회 국제 주조 기술 박람회	키엘체	2009/09/29~2009/10/01
키엘체 국제 알루미늄 기술 및 비철 금속 박람회	키엘체	2009/09/29~2009/10/01
포츠난 국제 동물사육, 원예, 지방 개발 박람회	포츠난	2009/10/02~2009/10/04
카토비체 목공기계 및 도구 박람회	카토비체	2009/10/02~2009/10/04

바르샤바 보석 및 시계 박람회	바르샤바	2009/10/02~2009/10/04
그단스크 미용제품 박람회	그단스크	2009/10/03~2009/10/04
그단스크 국제 철도 박람회	그단스크	2009/10/14~2009/10/16
크라코프 제14회 국제 공작기계, 공구, 장치 및 설비 박람회	크라코프	2009/10/21~2009/10/23
포츠난 제 20회 국제관광 박람회	포츠난	2009/10/21~2009/10/24
바르샤바 국제 종합 기간산업(Infrastructure) 박람회	바르샤바	2009/10/21~2009/10/23
키엘체 국제 도로교통 박람회	키엘체	2009/10/21~2009/10/23
포츠난 게임 경기장 및 전시회	포츠난	2009/10/25~2009/10/26
바르샤바 국제 호텔 설비 박람회	바르샤바	2009/11/04~2009/11/06
브로츠브 제19회 국제 석재 및 석재가공기계 박람회	브로츠브	2009/11/05~2009/11/08
크라코프 제17회 국제 호텔 및 케이터링 설비 박람회	크라코프	2009/11/18~2009/11/20
제7회 크라코프 국제 와인 박람회	크라코프	2009/11/18~2009/11/20
크라코프 케이터링 식품 박람회	크라코프	2009/11/18~2009/11/20
포츠난 국제환경 박람회	포츠난	2009/11/24~2009/11/27

자료: 바르샤바KBC 종합

자세한 정보는 바르샤바 KBC 홈페이지의 전시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kotra.or.kr/wps/myportal/dk/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94g3cXUCSYGZjmH6kRhioZhiLuYIMV-P_NxU_SB9b_0A_YLc0NCIckdFAOV2ufY!/delta/base64xml/L3dJdyEv00ZnQUFzQUMvNEIVRS82X0hfNEVF?site_cd=01005&site_gubun_cd=1039528&workdist=&id=&trade_cd=&trade_site_cd=&user_isAuth=false#top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한인회

- <http://pol.mofat.go.kr/kor/eu/pol/main/index.jsp>
 -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폴란드간 주요 정세현황 및 우리정부의 주요 전달사항 등(한국어)
- <http://www.krpol.net>
 - 폴란드 한인회 홈페이지 : 한인회 소식 및 주요 행사 안내(한국어)

☐ 정부기관, 공공부분, 비영리 단체

- <http://www.kprm.gov.pl/>
 - 정부 정보센터 : 정부조직, 주요정책, 정책 방향 등 (영어/폴란드어)
- <http://www.sejm.gov.pl/>
 - 의회 : 의회 관련 정보 (영어/폴란드어)
- <http://www.mg.gov.pl/>
 - 경제부 : 경제부 주요정책, 대외무역 관련 정보 (영어/폴란드어)

- <http://www.mst.gov.pl/>
 - 국고부 : 국고부 주요정책 등 (영어/폴란드어)
- <http://www.paiz.gov.pl/>
 - 투자유치청 : 폴란드 투자유치 관련 정보 (영어/폴란드어)
- <http://www.stat.gov.pl/>
 - 통계청 : 각종 통계 정보 (영어/폴란드어)
- <http://www.uzp.gov.pl/>
 - 조달청 : 조달청 서비스, 입찰 정보 (영어/폴란드어)
- <http://www.ukie.gov.pl/>
 - EU 통합위원회(KIE) : 폴란드의 EU 가입 관련 정보 (폴란드어)

□ 상공회의소, 조합단체

- <http://www.pkec.pl/>
 - Polish Korean Chamber of Commerce (PKCC) : 업체 정보 등 (영어/폴란드어)
- <http://www.kig.pl/>
 - Polish Chamber of Commerce(KIG) : 업체/박람회 정보 등 (영어/폴란드어)
- <http://www.pipc.org.pl/>
 - Polish Chamber of Chemical Industry : 화학산업 관련 정보 (영어/폴란드어)
- <http://www.ierigz.waw.pl/>
 - Institute of Agricultural and Food Economics : 농업부문 개혁, 정책방향등(영어/폴란드어)

□ 금융기관, 투자회사

- [pol.mofat.go.kr/kor/eu/pol/main/index.jsphttp://www.nbp.pl/](http://www.nbp.pl/)
 - National Bank of Poland(폴란드 중앙은행) : 금융/환율정보 (영어/폴란드어)
- <http://www.wse.com.pl/>
 - Warsaw Stock Exchange(바르샤바 증권 거래소) : 증권 정보 (영어/폴란드어)

□ 언론기관

- <http://www.gazeta.pl/>
 - Gazeta Wyborcza : 최대 일간지 (폴란드어)
- <http://www.rzeczpospolita.pl/>
 - Rzeczpospolita : 유력 일간지 (폴란드어)

- <http://www.warsawvoice.com.pl/>
 - Warsaw Voice : 유력 주간 종합지 (영어)
- <http://www.polishmarket.com.pl/>
 - Polish Market : 경제 및 산업 관련 월간지 (영어/폴란드어)
- <http://www.wbj.pl/>
 - Warsaw Business Journal : 경제관련 유력 주간지 (영어/폴란드어)

□ 기타

- <http://www.insidepoland.pl/>
 - inside Poland : 폴란드 거주 외국인을 위한 사이트 (영어/폴란드어)
- <http://www.teleadreson.com.pl/>
 - Teleadreson onLine : 업체정보 제공 최대 온라인서비스 (영어/폴란드어)
- <http://www.kompass.com.pl/>
 - Kompass : 콤파스 업체정보 (폴란드어)
- <http://www.panoramafirm.com.pl/>
 - Panorama Firm : 업체 정보(업체 검색 가능) (영어/폴란드어)
- <http://www.polfair.com.pl/>
 - 박람회 정보 사이트 (영어/폴란드어)

(자료: 바르샤바KBC 종합)